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2007. **8** Vol. 188
www.bsculture.busan.kr

반갑습니다 _ 부산은행 이장호 회장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노래 _ 동요 <반달>과 윤극영선생

어화둥둥 이야기 국악 _ 선조들의 음악평론과 관객의 자세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_ 대마도



부산문화회관

8월 토요일 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8월 18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 유초신지곡 중 '염불, 타령, 군악'(집박/유경조·소금/최재호·대금/김수일, 이만형, 강은주, 엄익준, 황두호·피리/박춘석, 김용우, 최성교, 권미정, 정주아·해금/조남순, 김민정, 최윤정 외)
- 해금독주 '적념'(작곡/김영재·해금/정수경·신디/백규진)
- 거문고 중주 '출강'(거문고/이대하, 박하혜, 한정임, 이유진)
- 시나위(대금/채수만·피리/박순자·해금/하지행·아쟁/최희정·가야금/송영남·거문고/강상호·장구/신문범·징/전학수)
- 흥겨운 민요 한마당(민요/박성희, 정선희·대금/채수만·피리/박순자·해금/하지행·아쟁/최희정·가야금/송영남·거문고/강상호·장구/신문범)
- 사물놀이(쟁과리/이주현·장구/최오성·징/전학수·북/신문범)

※ 해설/백규진

● 8월 25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6중주 '펠리체 앙상블' 연주회



- 모차르트/디베르티멘토 바장조 '잘츠부르크 교향곡 제 3번' 작품 138
- 보로딘/현악4중주 제2번 라장조 중 제 2악장
- 보르/스윙트리오를 위한 이중협주곡
- 하이든/현악4중주 바장조 '세레나데' 중 제 1악장
- 하이든/트럼펫 협주곡 중 제 3악장(트럼펫/드미트리 로카렌코프)
- 루터/현악 모음곡 중 '방황'
- 슈트라우스 형제(요한 2세 & 요셉)/피치카토 폴카

※ 연주

ViolinI 이상진 ViolinII 우소라 Viola 홍영선 Viola 김상철
Cello 서송은 Double Bass 윤강희 Trumpet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 9월 1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 아쟁산조 '박대성류'(아쟁/최영훈·장구/신문범)
- 가야금산조 '강태흥류'(가야금/김혜진·장구/이장우)
- 거문고산조 '신쾌동류'(거문고/박용란·장구/신문범)
- 대금산조 '서용석류'(대금/강영진·장구/전학수)
- 산조합주(대금/한영길·피리/김경수·해금/방병원·아쟁/권혜정
가야금/윤경선·거문고/강상호·장구/신문범)

※ 해설/백규진

• 입장권 : 무료(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피아니스트 공소현, 김미연의 포핸즈
Pianist KONG So-Hyun & KIM Mi-Yeon's 1Piano 4hands

IL BACIO col piano e forte

일 바치오 콜 피아노 에 포르테

W. A. Mozart
F. Liszt
A. Dvorak

해설 박진홍

피아니스트 공소현
피아니스트 김미연

2회 공연
오후 4시 / 7시 30분

8/7

소프라노 권선아 조영희 조인트리사이틀
Soprano KWON Seon-a CHO Young-Hee Joint Recital

꽃보다 아름다운 어울림

반주 하영화
트럼펫 이용하
해설 김중진

소프라노 조영희

1회 공연
오후 7시 30분

소프라노 권선아

8/14

부·울·경을 연결하는 음악 네트워크 다양하고 재밌는 이야기 음악회

2007-8 PBC TUESDAY CONCERT

여름음악축제

SUMMER MUSIC FESTIVAL

음악감독 윤성민

매주 화요일 가톨릭센터가톨릭소극장 051-462-1870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www.bccenter.or.kr

국악트리오 창립대 초청연주회 Kuk-ak Trio Jindalae

국악으로의 워킹

해설 홍희철

우호적인
나루가 있는 언덕
두대의 가아름과 해안을 위한 해녀리
On the sunny side of the street
Misty
Fly me to the moon

아쟁 진민진 피리 신선영 해금 이인경

2회 공연
오후 4시 / 7시 30분

8/21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단 특별초청연주회
Busan Brass Quintet

매직 브라스 Magic Brass

8/28

해설 안명기
독창 박영주(성동초4)
중창 김민서 김도연 김미선 최규리 이주희 정해원 정아연 백지현

1회 공연
오후 7시 30분

트럼펫 1 김재현 (Kim Jaehyun) 트럼펫 2 김민서 (Kim Minseo) 트럼펫 3 안명기 (An Myeonggi) 트럼بون / 호른 최규리 (Choi Gyu-ri) 트롬본 / 호른 정해원 (Jeong Hae-won) 유포 / 송아현 (Yoo Ah-hyun) 색소폰 / 조용길 (Jo Yong-gil)

이 음악회는 라디오 FM(부산·경남 FM101.1, 울산 94.3MHz)에서 매주 일요일 오후 6시부터 실황녹음 방송됩니다.

www.birdclassic.co.kr

PBC 최음음악회 녹음은 클래식음악 녹음전문기업 Bird Classic의 도움으로 진행됩니다.
www.birdclassic.co.kr

이제, 자신의 연주를 음반과 DVD로 소장하십시오!

클래식 연주자들이 바라던 클래식 전문 녹음실&촬영 스튜디오

연주 실황 녹음 · 음반 녹음 · 교수 연구실적 녹음
연주 실황 촬영(DVD, SVHS) · 콘서트 촬영

051-744-1150 / 011-562-8773

BIRD classic 부산시 남구 대연동 55-12 2층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환상과 마법의 가족 오페라



여름 피서, 문화체험
방학숙제를 한번에!

무더운 여름, 자녀들과 갈 곳이 마땅치 않을 때 시원하고 쾌적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마련되는 환상과 마법의 가족오페라 「마술피리」로 오페라 여행을 떠나세요.

마음이 살찌는 여름 피서, 감동이 살아 있는 문화 체험. 수행평가 등의 방학 숙제를 한번에 해결하는 현명한 엄마들의 알사과는 감성 특목! 자녀교육법 환상과 마법의 가족오페라 「마술피리」가 함께 합니다.

| 주최 | 그랜드오페라단
| 주관 | SM기획
| 후원 | 부산은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7.8.11(토)~12(일)

| 토 | 오후 2:00, 5:00 | 일 | 오후 5:00 | 예매 | (051) 610-1004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공연을 두배로 재미있게! - 신나는 문화체험 이벤트

- Event 1 무대 뒤 견학 교실 (Backstage Tour)
오페라 공연의 무대장치, 조명, 분장을 둘러보는 신나는 문화체험
- Event 2 Photo Zone 주역배우들과 함께 사진으로 추억 남기기, 찰칵!
- Event 3 페이스 페인팅(Face Painting) 등 가족 관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 Event 4 모차르트 효과(Mozart Effect)와 함께하는 오페라 「마술피리」 공연감상문 모집

환상과 마법의 가족오페라 「마술피리」, 맘껏 애 나와 있는 오페라 감상문을 재미있게 쓰는 요령을 참고하셔서, 공연 감상문을 적어 입장권이나 봉투에 함께 8월 30일(금)까지 그랜드오페라단으로 보내주세요. 총 30권을 추첨해 2007년 11월 24(일)~25(일)에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있을 공연사와 함께하는 오페라 여행 - 라 트라비아타 공연의 초대권 2매를 우승에 드립니다. (20명당 1명씩 선정)



| 인터넷 예매 | 인터파크 (1544-1555 www.interpark.com) 티켓 65 (1588-2528 www.ticket365.co.kr)
| 지정 예매처 | 부산은행 전 지점 · 영광도서(816-9500) · 통보서적(803-8000) · 남포문고(245-8911) · 대한도서(332-7339) · 향학서점(204-9381)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 학생석 10,000원 ♣가족석(4인기준) 25%특별할인 R석(4인) 120,000원 | S석(4인) 90,000원

6세이상 입장자
5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무료놀이방 운영

Contents

2007 · 08



24



36



42

- 06 부산문화회관 8월 공연 일정
- 10 마음을 여는 글 | 신국악단상 · 백정강
- 12 반갑습니다 | 부산은행 이장호 은행장
- 15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노래 | 동요 〈반달〉과 윤극영 선생 · 김상훈
- 18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 대마도는 지금 여름축제중 · 김지언
- 22 어화등등 이야기 국악 | 선조들의 음악평론과 관객의 자세 · 강성일
- 24 우리춤 산책 | 봉산탈춤 · 흥기태
- 26 김형술의 그림에세이 | 이방인의 눈 (Andrew Marly-Village) · 김형술
- 28 연극속으로 | 세대(世代) · 유상홍
- 30 그곳에 가면 | 킴스아트필드
- 32 우리는 문화가족 | 국도클래식음악동호회
- 34 지금 준비중 | 윤이상 민족칸타타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
- 36 공연 화제 | 국립발레단과 함께 하는
발레리노 김용걸 초청공연 '백조의 호수'
- 38 이 사람 | 세계적인 발레리노 김용걸
- 39 부산시립예술단 관람가이드
- 44 8월 프로그램 가이드
- 62 쉽게 듣는 클래식 | 2대의 피아노를 위한 음악 · 객근수
- 63 세계의 뮤지컬 | 뮤지컬 화성에서 꿈꾸다 · 이상훈
- 64 새로 나온 음반
- 65 새로 나온 책
- 66 부산문화회관 소식
- 68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 69 100자 토크



-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TEL. 625-8130, FAX. 607-6079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대연 4동 848-4)
- 발행인 정우연 | 편집인 공영훈 | 편집장 백경숙
- 발행일 2007년 7월 25일
- 인쇄처 (주)세한기획 TEL. 865-0080, FAX. 852-7085
614-05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263-4 하이월 B/D B층
- 표지설명 : 부산문화회관이 국제신문과 공동주최로 8월 25일, 26일 세계적인 발레리노 김용걸과 국립 발레단을 초청, '백조의 호수'를 선보인다.

※ 예술에의 초대는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게 무료로 우송해드립니다.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www.bsculture.busan.kr>을 Click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을 비롯한 부산문화회관 공연은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월 공연일정

전시실

■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부산공모전-대전시실

8월 4일(토)~8월 8일(수)

문의 국민예술협회 부산지회

(245-2521, 011-845-9599)

■ 제33회 부산미술대전 초대작가전-대전시실

8월 13일(월)~8월 21일(화)

문의 부산미술협회(632-2400, 011-844-4994)

■ 제 3회 전국공모 파스텔 학생그림 공모전-중전시실

8월 13일(월)~8월 19일(일) (시상식 8월 13일 오후 2:00)

문의 부산미술협회(632-2400, 011-844-4994)

■ 제 24회 전국조각가협회전 -대· 중전시실

8월 24일(금)~8월 30일(목)

문의 전국조각가협회(011-392-5527)

■ 제 3회 부경서도대전-대· 중전시실

9월 1일(토)~9월 3일(월) (9월 1일 오후 3:00 오픈)

(사)한국서도협회 부산경남지회

문의 (516-5678, 011-9501-8181)

표 공연은 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예약하십시오. (안내 : 60쪽)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극장

MAIN THEATER

1	wed	
2	thu	7월 14일부터 8월 19일까지 대극장 무대 공사기간입니다
3	fri	
4	sat	
5	sun	
6	mon	
7	tue	
8	wed	
9	thu	
10	fri	
11	sat	
12	sun	
13	mon	
14	tue	
15	wed	
16	thu	
17	fri	
18	sat	
19	sun	
20	mon	
21	tue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합창단 연합공연 '칼 오르프 카르미나 부 라나' 전국 19:30 1만원·7천원·5천원/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22	wed	부산시립 교향악단 특별연주회 '금난새와 함께 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11:00, 16:00 균일 1만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
23	thu	
24	fri	
25	sat	국립발레단과 함께 하는 발레리노 김용걸 초청공연 '백조의 호수' 19:00 10만원·7만원·5만원·4만원·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70), 예술기획(0505-700-9798)
26	sun	국립발레단과 함께 하는 발레리노 김용걸 초청공연 '백조의 호수' 16:00 10만원·7만원·5만원·4만원·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70), 예술기획(0505-700-9798)
27	mon	
28	tue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팔빙수같이 시원한 콘서트' 20:00 3만원·2만원·1만원/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29	wed	제 13회 신정희 발레단 공연 'Deux Coppelia' 19:30 5만원·3만원·2만원/신정희(620-4963), 예은예술기획(632-6904)
30	thu	
31	fri	

중극장

MEDIUM THEATER

- 1 7월 25일부터 8월 9일까지
중극장 무대 공사기간입니다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그랜드오페라단 가족오페라 '마술피리' 16:00
4만원 · 3만원 · 2만원 · 1만원/그랜드오페라단(610-1004)
- 11 그랜드오페라단 가족오페라 '마술피리' 14:00, 17:00
4만원 · 3만원 · 2만원 · 1만원/그랜드오페라단(610-1004)
- 12 그랜드오페라단 가족오페라 '마술피리' 17:00
4만원 · 3만원 · 2만원 · 1만원/그랜드오페라단(610-1004)
- 13 레이디스필 앙상블 '청소년 해설음악회' 16:00, 19:30
1만원 · 5천원/박소영(011-9771-2367)
- 14 노엘남성중창단 특별연주회 '비교음악회' 19:30
1만원 · 5천원/최성규(011-564-3439)
- 15 아코르 청소년오케스트라 제 5회 정기연주회 18:00
무료/김혜숙(759-1648, 011-564-9258)
- 16 부산원드오케스트라 '매직 브라스' 19:30
균일 1만원/윤두현(011-582-8480)
- 17 2007 부산신인음악회 '한 여름 밤의 음악산책' 19:00
균일 5천원/부산음악협회(634-1295)
- 18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19 부산의치대 관현악단 제 35회 정기연주회 19:30
무료/염정인(011-9332-0096)
- 20 2007 제3회 The Great Ensemble of KUNA 전국투어콘서트
19:30 1만원 · 5천원/부산문화(633-8890)
- 21
- 22
- 23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07 한여름밤의 춤 작품전-사랑의 세
가지 그림자' 19:30 균일 5천원/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24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키티큐슈 소년소녀합창단
초청 추억만들기'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25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 6중주 '펠리체 앙상블'
연주회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26 남산놀이마당 전통연희로 그려본 우리민족이야기 '사신도'
19:00 1만2천원 · 8천원/남산놀이마당(516-4434)
- 27 남산놀이마당 전통연희로 그려본 우리민족이야기 '사신도'
19:00 1만2천원 · 8천원/남산놀이마당(516-4434)
- 28 신타요가연구회 제 4회 정기공연 '요가와 예술의 만남' 19:00
균일 1만원/최수정(010-7979-4018)
- 29 김은진 비올라 독주회 19:30
균일 1만원/프린트(521-5729)
- 30 고신의대 관현악단 제 12회 정기연주회 19:30
무료/윤기운(010-2319-3117)
- 31 최정순교수 정년기념 연주회 19:30
초대/노은주(016-565-9780)

소극장

SMALL THEATER

- 1
- 2 7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
소극장 무대 공사기간입니다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엄희정 피아노 독주회 19:30
무료/엄희정(010-3167-1554)
- 24
- 25 한국 피아노 지도자협회 2007 여름음악 페스티벌 16:00
무료(선착순)/박선연(011-9508-6846)
- 26 한국 피아노 지도자협회 2007 여름음악 페스티벌 16:00
무료(선착순)/박선연(011-9508-6846)
- 27
- 28
- 29
- 30
- 31

부산시내 기타공연 8월 달력

부산시민회관

문의 : 시민회관(630-5200)

- 1 **wed** 특집영화 '슈렉3'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 2 **thu**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청소년 교과서음악회 19:30 -대극장
1만2천원 · 8천원/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620-4917~8)
- 3 **fri** 한여름 밤의 콘서트 19:30 -대극장
2만원 · 5천원/부산예술기획(016-9317-4728)
- 4 **sat** 영필하모니오케스트라 '한국환상곡의 밤' 19:00 -대극장
초대/정동화(017-587-8994)
- 5 **sun**
- 6 **mon** 월요일영화 '밀양'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 7 **tue**
- 8 **wed**
- 9 **thu**
- 10 **fri** 가족뮤지컬 '피터팬' 15:00, 19:00
5만5천원 · 4만5천원 · 3만원 · 2만원/ANS이티(1644-4484)
- 11 **sat** 가족뮤지컬 '피터팬' 14:00, 17:30
5만5천원 · 4만5천원 · 3만원 · 2만원/ANS이티(1644-4484)
- 12 **sun** 가족뮤지컬 '피터팬' 14:00, 17:30
5만5천원 · 4만5천원 · 3만원 · 2만원/ANS이티(1644-4484)
- 13 **mon** 월요일영화 '황진이'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 14 **tue** 부산클라리넷콰이어와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음악여행' 19:30
-대극장 1만원 · 5천원/부산클라리넷콰이어(011-583-2810)
- 15 **wed**
- 16 **thu** 청소년을 위한 정다운 음악회 '한여름밤의 클래식' 19:00
-대극장 7천원 · 5천원/음악협회 부산지회(634-1295)
- 17 **fri**
- 18 **sat** 부산국제청소년 유도 & B-boy경연 문화페스티벌 09:00
-대극장 하형주(011-877-4884)
- 19 **sun**
- 20 **mon** 월요일영화 '오션스13'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 21 **tue** 터키 안탈리아 국립교향악단 내한 협주곡의 밤 19:30 -대극장
3만원 · 1만원/클래식아트매니저(624-1991)
- 22 **wed** 청소년을 위한 방학숙제 음악회 16:00, 19:30 -대극장
균일 1만원/영남필하모니오케스트라(010-8525-7816)
- 23 **thu** MBC 목요일음악회 '동아원드오케스트라초청 청소년음악회' 15:00,
19:30 -대극장 1만원 · 5천원/(사)문화도시 네트워크(760-1494)
- 24 **fri**
- 25 **sat** 어린이뮤지컬 '사과가 콩' 12:00, 14:00, 16:00 -대공연장
2만원 · 1만5천원/PS엔터테인먼트(442-6500)
- 26 **sun** 어린이뮤지컬 '사과가 콩' 13:00, 15:00 -대공연장
2만원 · 1만5천원/PS엔터테인먼트(442-6500)
- 27 **mon** 월요일영화 '트랜스포머'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 28 **tue** 유즈도 사할린스크 시립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 19:30 -대극장
2만원 · 5천원/부산예술기획(016-9317-4728)
- 29 **wed** 유즈도 사할린스크 시립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 19:30 -대극장
2만원 · 5천원/부산예술기획(016-9317-4728)
- 30 **thu** 중앙러시아 국립교향 오케스트라 초청 콘서트 'Romance for You'
19:30 -대극장 7만원 · 5만원 · 3만원 · 2만원/정춘식(016-545-4939)
- 31 **fri**

금정문화회관

문의 : 금정문화회관(519-5651~2)

- 1 **wed** 금정수요음악회 '청소년과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음악회' 19:30
-대공연장 1만원 · 5천원/금정문화회관(519-5651)
- 2 **thu**
- 3 **fri** 청소년과 함께하는 이장호 바이올린 독주회 19:30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이장호(011-830-4770)
- 4 **sat**
- 5 **sun**
- 6 **mon**
- 7 **tue**
- 8 **wed** 금정수요음악회 '부산청소년국악관현악단이 들려주는 우리음악
이야기' 19:30 -대공연장 1만원 · 5천원/금정문화회관(519-5651)
- 9 **thu**
- 10 **fri** 어린이 영어연극 '리틀 드래곤' 13:00, 16:00 -소공연장
균일 2만원/라트어린아극장(02-560-0996)
- 11 **sat** 어린이 영어연극 '리틀 드래곤' 13:00, 16:00 -소공연장
균일 2만원/라트어린아극장(02-560-0996)
- 12 **sun** 어린이 영어연극 '리틀 드래곤' 13:00, 16:00 -소공연장
균일 2만원/라트어린아극장(02-560-0996)
- 13 **mon** St. Andrew Chamber 연주회 19:30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박진(017-592-0705)
- 14 **tue** 플라우탄도 쾰른 리코더콰르텟 내한연주회 19:30 -소공연장
균일 2만원/한국리코더아카데미(02-582-8714~5)
- 15 **wed** 동초소리와 새울타락의 아름다운 만남 19:00 -대공연장
균일 2만원/(사)동초제반소리보존회 부산 · 경남지회(512-1616)
- 16 **thu** 청소년을 위한 '마티니타' 연주회 11:30 -대공연장 아트링크크레이(442-1941)
청소년을 위한 방학숙제 음악회 16:00, 19:30 -대공연장 부산4세대실크네(016-9614-5228)
- 17 **fri** 제 5회 팝스 앤 퍼커스 정기연주회 15:00, 19:00 -대공연장
균일 1만원/구용준(016-559-7460)
- 18 **sat** 뽕브르발레연구회 정기공연 18:00 -대공연장 최은정(011-9556-2755)
아현 제 26회 정기연주회 19:00 -소공연장 우루/오영재(016-593-9083)
- 19 **sun**
- 20 **mon** 오키나와와 성악가의 만남 19:30 -대공연장
1만원 · 5천원/JK예술기획(016-9665-6535)
- 21 **tue**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트럼펫 독주회 19:30 -대공연장 JK예술기획(016-9665-6535)
제 17회 신동일의 작곡마당 19:30 -소공연장 부산작곡마당(017-585-2052)
- 22 **wed** 금정수요음악회 '김화정과 친구들의 노래이야기' 19:30
-대공연장 1만원 · 5천원/금정문화회관(519-5651)
- 23 **thu**
- 24 **fri** 어린이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10:20, 11:40 -대공연장
균일 1만5천원/동그라미그리기(818-1772)
- 25 **sat** 어린이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12:00, 14:00, 16:00
-대공연장 균일 1만5천원/동그라미그리기(818-1772)
- 26 **sun** 어린이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13:00, 15:00 -대공연장
균일 1만5천원/동그라미그리기(818-1772)
- 27 **mon** 청소년음악회 '한 여름밤 떠나는 춤으로의 여행' 19:30
-대공연장 균일 1만원/프로인트(521-5729)
- 28 **tue**
- 29 **wed** 금정수요음악회 '김수진, 김윤정 콤비음악회' 19:30 -대공연장
로망스 19:30 -소공연장 균일 6천원/김상철(016-372-8015)
- 30 **thu**
- 31 **fri**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19:30, 22:30 -대공연장
4만4천원 · 3만3천원/(주)코엔(1544-3164)

울속도문화회관

| 문의 : 울속도문화회관(220-5331~2)

해운대문화회관

| 문의 :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1	wed	
2	thu	
3	fri	
4	sat	
5	sun	
6	mon	전시일정
7	tue	7월 6일(금)-8월 31일(금) 사하 문인협회 시화작품 초대전
8	wed	7월 23(월)-8월 3일(금) 부산시립미술관 이동미술관
9	thu	토요일 울속도 문화회관(220-5321~3)
10	fri	
11	sat	토요뮤직점프 11:00 -소공연장 균일 2천원/울속도문화회관(220-5321)
12	sun	
13	mon	
14	tue	
15	wed	
16	thu	
17	fri	
18	sat	
19	sun	
20	mon	
21	tue	피아니스트 박중훈 독주회 19:30 -대공연장 1만원 · 5천원/울속도문화회관(220-5321~4)
22	wed	뉴프라이임 오케스트라 '한 여름밤의 향연' 19:30 -대공연장 초대/황성준(011-556-7308)
23	thu	
24	fri	
25	sat	토요뮤직점프 11:00 -소공연장 균일 2천원/울속도문화회관(220-5321)
26	sun	
27	mon	
28	tue	
29	wed	
30	thu	인형극 '춤추는 호랑이' 10:30, 11:30 -대공연장 균일 4천원/김희곤(017-553-9323)
31	fri	

1	wed	
2	thu	
3	fri	
4	sat	
5	sun	
6	mon	
7	tue	
8	wed	
9	thu	해설이 있는 가족오페라 '마술피리' 16:00, 19:30 -대공연장 2만원 · 1만5천원/오페라제작소 밤비니(010-5580-3902)
10	fri	해설이 있는 가족오페라 '마술피리' 16:00, 19:30 -대공연장 2만원 · 1만5천원/오페라제작소 밤비니(010-5580-3902)
11	sat	해설이 있는 가족오페라 '마술피리' 16:00, 19:30 -대공연장 2만원 · 1만5천원/오페라제작소 밤비니(010-5580-3902)
12	sun	해설이 있는 가족오페라 '마술피리' 16:00, 19:30 -대공연장 2만원 · 1만5천원/오페라제작소 밤비니(010-5580-3902)
13	mon	
14	tue	오카리나 박은숙과 함께하는 신나는 교과서음악회 19:00 -대공연장 1만원 · 5천원/박은숙(011-9532-5759)
15	wed	
16	thu	
17	fri	
18	sat	아트서커스 '동방의 신기-비천' 15:00, 19:00 -대공연장 2만원 · 1만원 · 5천원/해운대문화회관(749-7651)
19	sun	아트서커스 '동방의 신기-비천' 15:00, 19:00 -대공연장 2만원 · 1만원 · 5천원/해운대문화회관(749-7651)
20	mon	
21	tue	뮤젠 '실내악 앙상블의 밤' 20:00 -대공연장 2만원 · 1만원 · 5천원/해운대문화회관(749-7651)
22	wed	
23	thu	제 5회 잼 색소폰 앙상블 정기연주회 19:30 -대공연장 1만원 · 5천원/잼 색소폰 앙상블(011-851-6574)
24	fri	부산 클라리넷 콰르텟 '한여름 밤의 피스콘서트' 19:30 -대공연장 1만원 · 5천원/김태훈(017-543-0883)
25	sat	
26	sun	BMF 스타음악가와 함께 16:00, 19:30 -대공연장 4만원 · 3만원 · 2만원/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27	mon	
28	tue	백재진 바이올린 독주회 '초심으로' 19:30 -대공연장 1만원 · 5천원/백재진(890-1318)
29	wed	박종석 기타독주회 19:30 -대공연장 균일 1만원/신성진(017-542-8107)
30	thu	
31	fri	넌버벌 힙합퍼포먼스 '힙합고 D반' 19:30 -대공연장 2만원 · 1만원 · 5천원/해운대문화회관(749-7651)

신국악 단상(斷想)

백정강 · 목촌문화회

문화란 시간과 공간을 넘으면서 시대 흐름의 변화요구 속에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기 마련인데, 음악 또한 그렇게 흐름을 따라 함께 변화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음악의 경우 한 언어의 변화되는 경계를 넘어서 다른 언어의 변화영역으로 흐르다 보면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생성 소멸되어 서서히 발전해 가기 마련인 것이다.

두 가지 이상의 음악적 특성이 합쳐지면서 또 다른 형태가 생겨나고, 그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을 때, 더욱 큰 힘을 얻어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내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다른 요소와 마주쳤을 때 변화의 추진력이 훨씬 강하게 작용한다.

근래에 두 가지 이상의 음악적 특성이 합쳐지면서 새로운 음악 형태를 이루어가려는 징크로 '크로스오버 음악(Crossover Music)' 과 국악을 일반인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시도로 이른바 국악과 다른 음악을 접목 시킨 퓨전음악(Fusion)이 크로즈업 되고 있다.

크로스오버와 퓨전은 흔히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크로스오버'는 서로 다른 장르가 결합해도 각각의 장르는 원래의 영역과 정체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이를테면 재즈와 록을 결합한다고 해도 재즈와 록의 정체성은 유지된다.

이에 반해 퓨전은 서로 다른 것이 융합하여 그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장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융합 이전의 모습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 크로스오버가 장르간의 다리 걸치기라면 퓨전은 장르가 비빔밥처럼 뒤섞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음악이 일반인들에게 관심을 끌게 된 것은 무슨 원인 때문인가? 우리 전통음악과 서양 음악이 만나 내는 소리는 귀를 부드럽게 할까, 거슬리게 할까?



동적이고 자극적인 음악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근육운동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반면, 정적이고 마음을 차분히 가리얏혀 주는 음악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로 유도한다. 또 박자가 일정하고 비트가 강한 음악은 절로 어깨를 들썩이게 하고, 느린 멜로디의 감미로운 음악은 서정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전통적인 표현방식인 시김새가 소홀해지는 느낌을 지을 수 없다.

떠는 음 몇 개, 꺾는 음 몇 개와 서정적인 선율만으로 '국악적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다지 좋은 현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현재와 같은 시대상황에서 대중화가 되지 못하면 사라지는 것은 시간문제이기에, 너무 전통적인 요소만 강조한다면 서양음악에 익숙해져있는 사람들에게 파고들기란 너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현재는 전통도 계승하되 좀 더 대중적인, 그러면서도 작품성이 있는 국악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 이같이 대중들의 관심을 이끌어낸 것을 기회로 퓨전국악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지만 전통국악도 함께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퓨전국악을 추구하면 할수록 전통국악의 이해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퓨전국악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나 질타가 있는 실정이지만, 이 같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면 퓨전국악이나 전통국악이 모두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과 함께 하는 향토은행 40년 부산은행 이장호 은행장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은 부산은행이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높여 주기 위해 든든한 문화 후원자로 나선다.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을 실천하고 부산이 문화예술도시로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Culture Angels Project 사업을 전개하는 부산은행이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단체 가입, 공연관람 기회가 적은 시민들을 공연장으로 초대할 계획이다.

지난 7월 9일 부산지역 공연 활성화와 시민 문화체험 기회제공을 위해 부산광역시와 업무 협약을 맺은 부산은행 이장호 은행장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이장호 은행장은 부산은행 출신으로 내부 승진을 거쳐 2006년 은행장으로 취임했다. 취임 이후 나눔경영과 지역 밀착 영

업을 펼치면서 부산시민과 친근하게 만나고 있다.

▶ 창립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은행장님께서 생각하는 40주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967년 창립 이래 지역경제의 버팀목으로서 시민들과 함께 한 40년이었습니다. 그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더 든든한 장년은행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실현을 위해 2007년은 '제 2창업의 해'라는 정신으로 전 임직원이 재무장해 알차고 강한 최고의 은행으로 거듭나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 40주년을 계기로 은행 내, 외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물론 금융산업의 경쟁 격화 및 대형화, 겸업화 그리고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금융기관간 M&A 등 향후 급변하게 될 금융환경 자체가 가장 큰 외부적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대처하기 위한 각고

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며 당연히 내부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연초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은행의 체질을 강화하였으며 울산, 경남지역을 포괄하는 새로운 성장거점의 확보를 통해 동남경제권 일등은행이 되기 위한 경영전략이 빠른 속도로 가시적인 성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8월에는 거제도에도 지점을 개점하게 됩니다.

▶ 올해 지역사회공헌활동이 더 활발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이익의 사회 환원을 실천하고, 향토은행으로서 지역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대적인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금년중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펼칠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보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아동보육 지원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며 전국 최저 출산율과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단체의 공연활동을 지원하고, 금정산성 망루 등 문화재 복원사업,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마당 개최, 육상 꿈나무 지원 등의 사업을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지역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도시로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단체의 창작과 공연 지원 등 지역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지원방안(Culture Angels Project)을 마련해 단계별로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크게 3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공공 문화예술단체와 연계하여 시민문화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둘째, 음악,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민간 문화예술단체 지원, 셋째, 문화예술의 미래를 위한 차세대 역량강화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행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은행장님을 이끌어준 철학은 무엇이었습니까.

'철학'이라는 어려운 말보다는 당시 얘기로 대신해볼까 합니다. 1965년에 한국은행에 입행하여 접하게 된 것이 외환업무였습니다. 그 때는 한국은행에만 외환업무라는 것이 있을 때입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외환은행 설립때 옮겨가게 되었고 또 6년 후에는 창설 초창기인 부산은행의 외환업무 개설과 관련하여 제가 부산은행에 뿌리를 내려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 시절을 되돌아보면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스스로가 쌓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도 4년간 재무부 파견, 오사카 출장소 시절 교포실업가들과의 교분 등을 떠올려보면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지론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 장기적으로 구상중인 부산은행의 청사진은?

전문연구기관들에 의하면, 시스템을 가장 잘 혁신해 고객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은행만이 업계의 선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변화할 것인가 아니면 사라질 것인가(Change or Perish)'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더욱 강화된 지역 밀착전략과 행동이 필수요건이라 생각합니다.

부산은행은 2008년에 Triple Three 즉, 총자산 30조원, 순이익 3천억원, 시장점유율 35%, 2010년에는 Triple Four 즉, 총자산 40조원, 순이익 4천억원, 시장점유율 40%를 실현해 냄으로써, 지역에 뿌리를 두면서도 강하고 알찬 은행의 모델을 세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 부산은행 내 문화 예술과 관련한 동호회가 있는지요.

우리 부산은행은 직원의 취미생활이나 동호회 활동이 기업문화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에 힘입어 수십년이 넘도록 잘 운영되는 동호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행내 동호회 중에는 클래식 & 재즈, 풍물패, 사진, 문학, 영화, 문화답사 등



문화예술 관련 동호회들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은행장실에 동호회 대표들을 초대해서 현황과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고 진지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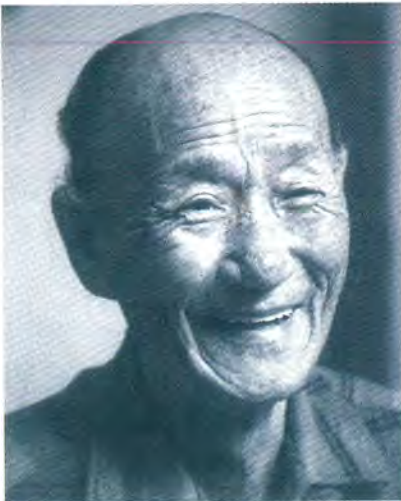
▶ 부산시민, 직원들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먼저, 본연의 책무인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무엇보다 충실히 수행해 낼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연단체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노력도 계속될 것이며 그를 통해 우리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다른 금융기관들에 비해 부산은행이 우리 지역을 위한 기여에 더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를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의 단결된 마음과 힘이 필요할 것이므로 신바람 나는 분위기로 서로 도와 함께 나아가자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협약 체결 이후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단체 가입한 부산은행은 병원, 군부대 등 문화소외지역민들을 공연장으로 초대할 계획이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를 경험하고 생활의 활력을 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는 이장호 은행장. 그의 나눔 경영 철학으로 문화도시로 변해가는 부산의 모습에 기대가 크다.

동요 <반달>과 윤극영 선생

김상훈 · 시인, 민족시가연구소 이사장



'반달' '까치 까치 설날' '고드름' '따오기' '할미꽃' '나란히 나란히' '우산 셋이 나란히' '고기잡이' 등 111곡에 이르는 동요곡을 발표한 윤극영 선생.

머칠전 몇몇 문학 도반(道伴) 및 지인(知人)들과 함께 몽골과 시베리아를 다녀왔다. 문학기행을 겸한 관광이라 할 수 있겠는데 고회를 넘긴 나로서는 꽤 힘든 '극기훈련'이었다는 편이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한다.

의욕적으로 짠 일정이기 때문에 무리한 점이 없지 않았지만 여행이란 참으로 많은 것을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생각하게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몽골은 13세기 칭기스칸이 대제국을 건설한 이래 16세기 제국이 해체되기까지 쿠빌라이칸, 알탄칸으로 이어지면서 주변국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우리가 흔히 몽고라고 불렀던 까닭은 오랫동안 몽골로부터 피해를 입었던 중국인들이 몽골을 비하하기 위해 우매할 몽(蒙)과 옛고(古)를 사용한데서 비롯되었다.

몽골은 위도 42도-50도, 경도 88도-120도 사이의 중앙아시아 심장부에 위치하며 북으로는 러시아, 남으로는 중국주변과 접하고 있다. 면적은

155만 평방Km, 동서길이 2,400Km, 남북길이 1,200Km의 타원형으로 인도 면적의 반, 한반도 면적의 7배에 이르며 아시아에서 5번째로 큰 나라이다. 그러나 나라가 큰 만큼 국경선도 길어 총 8,100Km로 3,460Km는 러시아, 4,546Km는 중국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사막, 그 위에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양과 소, 말과 낙타, 그리고 뜸뜸이 보이는 그 곳의 전통 주거양식인 '게르(GER 중국명: 파오)'가 모두이다.

이번 여행에서 우리가 누린 행운 중의 하나는 '나담축제(Natham Festival)'를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나담축제는 사회주의 혁명 이전에 7명의 봉건제후가 주최하던 전통 나담행사와 몽골민족의 영산(靈



몽골 문화기행에 오른 필자.

산)인 '복드산' '헨데이산'의 신에 바치는 2대 나담을 합쳐 1921년 인민혁명정부가 몽골민족해방과 정부수립 기념일인 7월 11일 전후에 개최되는 축제이다. 말타기, 활쏘기, 씨름 등 전통적인 유목민족들의 민속경기가 행해진다.

우리 일행은 일정상 말 타기와 활 쏘기는 볼 수 없었지만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라고 일컫는 씨름을 구경할 수 있었다. 전국 각 지역에서 뽑혀 온 521명의 장사들이 토너먼트로 경기를 해서 그 해의 왕좌를 뽑는 데 그 열기는 정말 대단했다.

울란바토르 근교의 '나랄담'에서 말을 타면서 기마민족이던 우리 조상들의 옛 생활을 연상하면서 감회에 젖기도 했으며 '가이산전망대' '이태준열사 추모공원' '만츠취르사원(ManzshirMonsetry)' '수흐바타르(Sukhbaatar)광장' '간등사' '거북바위' '자연사 박물관' 등을 주마간산격이지만 두루 돌아보았다.

러시아의 이르쿠츠크까지 가서 '데키브리스트 박물관' '알렉산더 3세 기념비' '끼로프 광장' '즈나멘스키 수도원' '팔츠 목조건물' '바이칼 호수' '앙가르강' '바이칼 생태박물관'을 구경했는가 하면 바이칼 관광 열차를 타고 자그마치 12시간을 여행했다.

이번 여행의 꽃은 역시 돌아오는 길에 울란바토르 근교 아르부르드에서 가진 별밤의 축제였다. 일행은 떠날 때부터 몽골 초원에서 하늘의 별천지를 마음껏 누렸다. 게르에 숙소를 정하고 캠프 파이어가 시작되자 일행은 제너름의 노래와 장기자랑으로 박수, 갈채와 폭소를 자아 내었다.

일행 중 한사람이 일쿠츠크와 몽골은 우리민족의 독립투쟁과 깊은 관련이 있는 곳이니 우리 모두 '반달'을 재창하자고 제의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계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뿔대도 아니 달고 샷대도 없이/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나라로/은하수를 건너서 구름나라로/구름나라 지나선 어디로 가나/멀리서 반짝 반짝 비추이는 건/셋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1924년 10월 20일 동아일보에 실린 윤극영 선생의 작품이다. 일제 강점기에는 동요 조차도 광복을 희구하고 소망하는 노래였다. 배는 쪽배이고 뿔대도 없고 샷대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다. 그러나 별에 스치는 바람이 뿔대이고 샷대였으며 은하수와 구름나라가 지팡이였고 셋별이 등대였던 것이다.

윤극영 선생은 동요작곡가였다. 1903년 9월6일 서울 종로구 소격동에서 태어났다. 교동보통학교(1917년)와 경성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1920년) 경성법학전문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적성에 맞지 않아 중퇴하고 1921년 일본으로 건너가 동양음악학교에서 바이올린과 성악을 공부했다.

1923년 어린이들에게 순수한 우리말과 노래를 가르쳐 애국심을 일깨우고 우리겨레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찾아서 지키도록 하자는 목적으로 일본 동경에서 방정환, 손진태, 정순철, 진장섭, 조재호, 정병기 등과 함께 '색동회'를 조직했다.

그 후 일본에서 돌아온 선생은 1924년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동요 '반달'을 작곡하였다. '반달'은 '어린이'지 창간호에 발표된 동요로 일제시대 우리나라의 각박했던 현실과 우리민족의 황량했던 심정을 대변해 주고 있다. 윤극영 선생은 아버지의 도움으로 자택에서 '일성당(一聲堂)'이라는 음악공부방을 만들어, 음악공부를 계속하면서 '다알리아회'라는 소년소녀 합창단을 조직하여 동요창작과 보급운동을 통해 어린이 사랑운동을 펼쳤다.

1926년부터는 간도의 동흥중학교, 광명중학교, 광명여고에서 교사생활을 했으며 1947년 서울에 돌아와서는 윤석중이 만들고 가르친 '노래 동무회'에 참가하여 아름다운 동요들을 작곡, 보급하는 한편 '색동회'를 다시 재건하여 '방정환 동상건립' '무궁화 보급운동' 등에 진력했다. 1988년 11월 15일 85세를 일기로 한 생애를 마쳤으나 동요작곡가로서의 그의 업적, '색동회'를 통한 민족정신선양에 기여한 그의 공적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횃불로 우리들 가슴속에서 타고 있을 것이다.

윤극영 선생의 동요곡은 '반달' 이외에도 '까치 까치 설날' '고드름' '따오기' '할미꽃' '나란히 나란히' '우산 셋이 나란히' '고기잡이' 등 자그만치 111곡에 이른다.

몽골 아르브르드 초원의 별밤, 별들과 함께 밤을 새우며 목청껏 부르던 '반달' '따오기' '할미꽃' '선구자' '이별가' '청산에 살리라' 등의 노래가 지금도 메아리가 되어 귓전을 맴돌고 있는 느낌이다.



대마도는 지금 여름축제 중

김지연 · 일본 대마도고등학교 교사



대마도의 여름은 마즈리로 시작해서 마즈리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마즈리가 열린다.(사진은 아리랑 마즈리)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대마도의 정오를 알리는 음악이다. 대마도에는 아침 여덟 시, 정오, 오후 여섯 시를 알리는 음악이 있다. 정오의 음악이 나올 때면 나는 잠시 창밖을 보면서 미소를 짓는다. 이런 나를 보는 학생들은, “선생님 배고프죠?”라는 농담을 던지곤 한다. 물론 점심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기쁨도 석삼아 있지만, 역시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동요를 들으면서 정오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나는 현재 대마도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모교인 부경대학교에서 일한 것이 인연이 되어, 이곳 대마도에서

교편을 잡게 되었다. 대마도 고등학교는 일본의 국공립 고등학교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국제문화교류코스’가 있는 고등학교로 개교 102년을 자랑하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고등학교이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한국어는 물론이고 한국의 문화, 역사까지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사백년 전 거친 풍랑을 헤치고 온 조선 통신사가 처음 발을 들였던



대마도 아리랑 축제에는 매년 한국의 공연단이 축제에 참가, 공연을 펼친다.

땀이며, 날씨가 좋을 때면 부산의 시내가 보이며 한글로 표기된 각종 표지판과 원색 티셔츠를 입은 한국인 아주머니들과 등산복을 입은 한국인 아주씨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이곳은 일본에서 가장 한국어를 배우기에 적합한 곳임에 틀림없다. 대마도 사람들 중에서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는 일상어가 되어 있다. 이곳 어린 아이들 중에서는 거리를 지나가던 프랑스인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난다.

지루한 장마가 끝날 때쯤이면 씨플라워호는(대마도와 부산을 잇는 고속선) 연일 만석을 기록하며 한국인 관광객을 태우고 이곳 대마도로 들어온다. 그도 그럴 것이 여름은 대마도의 자연을 만끽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기도 하지만 대마도의 마쯔리를 만끽하기에도 가장 좋은 계절이기 때문이다. 대마도의 여름은 마쯔리로 시작해서 마쯔리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마쯔리가 열린다.

대마도의 번주(藩主, 영주)였던 소우 가문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반쇼인(万松院, 만송원)의 마쯔리를 시작으로 대마도의 마쯔리는 그 막을 올린다. 유카타를 입은 여성들의 아름다운 자태는 일본 마쯔리의 또 다른 볼거리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그 자태는 한국여성과는 너무나도 다른 일본여성의 아름다움이라. 유카타를 입은 여성들의 매력에 사로잡혀 반쇼인을 향하면 약 칠십 미터의 거리를 등불이 마쯔리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한다. 등불 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현실을 잊어버리고 마쯔리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된다.

정문 앞에서는 손 등불을 나누어 주며 소우 가문의 무덤을 참배할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 참배가 끝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공연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울해는 일본의 가야금 공연이 기획되어 색다른 분위기가 연출 되었고, 이는 현실의 세계를 잠시 떠나서 마쯔리의 독자적인 시간을 충분히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쇼인 마쯔리가 끝난 며칠 뒤면 어린 아이들의 건강을 지조우(地藏, 지장보살)에게 기원하는 지조우봉(地藏盆) 마쯔리가 열린다. 이 지조우(地藏) 상(像)은 평소에도 거리 곳곳에 모셔지고 있는 데 이 날이 되면 어린이들은 각각의 지조우 상을 돌면서 건강을 기원한다. 고사리 두 손을 모아 기원이 끝나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과자 등을 어른들이 나눠 준다. 집집마다 조금씩 그 내용이 달라서 아이들은 과자를 받기 위해서라도 많은 지조우 상을 돌면서 마쯔리를 즐긴다. 지조우봉 마쯔리는 반쇼인 마쯔리와는 전혀 다른 그 특유의 마쯔리의 시간을 연출한다.



이리랑 마쯔리의 메인이벤트는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이다.

재현이다. 사 백년 전 선진 문물을 전하기 위해서 거친 파도를 넘어 이곳 대마도 땅을 밟았을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 생생히 재현된다. 삼백 명에서 오백 여명에 달하는 조선통신사 일행은 당시 조선의 최고 관료와 학자, 문화인들이 함께 하였으며, 조선통신사가 묵는 숙소에는 일본의 수많은 학자와 문인들이 모여들어 학문과 예술의 교류가 이뤄졌다고 한다.

예전부터 일본의 마쯔리는 각종 신들을 섬기는 행사로 신과 인간이 만나는 시간이기도 했다. 이 때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것은 술이었고, 술을 마시며 신과 하나가 되기를 기원했다고 한다. 그래서 술과 술을 마신 뒤의 행동에 관대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쨌든 나는 마쯔리에 가면 그 특유의 묘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각종 신들이 만들어내는 그 특유의 시간을 나는 마쯔리의 시간이라 부른다. 마쯔리의 시간, 우리는 잠시 현실의 세계에서 떠날 수 있다. 기독교인인 나로서는 조금 힘든 시간이기도 하지만...

지조우봉 마쯔리의 시간이 지나면 대마도의 거리는 이리랑 마쯔리 준비로 한창 바빠진다. 거리 곳곳에 축제를 알리는 포스터와 깃발이 걸리며 학교에서는 마쯔리에 참가할 학생들을 선발하느라 한창 바빠진다. 대마도 고등학교에서도 매년 국제문화교류코스 학생들을 중심으로 마쯔리에 참가하고 있다.

이리랑 마쯔리의 메인이벤트는 조선통신사 행렬



대마도에는 아직 예전 무사들이 살았던 집의 담장이 곳곳에 남아 있다. 이 담장은 밖에서도 안을 볼 수 없고, 안에서도 밖을 볼 수 없는 높이로 제작이 되어있다. 이는 조선통신사들에게 당시의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실례가 된다고 하여 이 같은 높이로 제작되었다고 한다. 또한 조선통신사들이 왔을 때에 매너를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소학교(小學校)를 만든 곳이 이곳 대마도인데, 이것이 현재 일본의 소학교(小學校, 초등학교)의 기원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최근 대마도를 방문하는 한국인 수가 대마도 인구를 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어 주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사 백년 전 처음으로 이곳 대마도에 선진 문물을 전해주었던 우리 조상들의 뒤를 이어 이제 우리는 관광객이라는 이름으로 이곳 대마도 땅을 밟고 있다. 그러나 일부 관광객들의 매너 없는 행동으로 대마도 사람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여느 관광지와는 다른 대마도의 특징은 주택가에 기념비가 있고, 주택가에 신사가 있으며, 주택가에 호텔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들의 생활공간에 우리들은 관광을 하러 오는 셈이다. 따라서 이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여느 관광지의 사람들이 느끼는 그것과는 다르다. 외국인이 우리 집 앞에서 사진을 찍고 길거리에서 술 마시고 밤늦게 까지 이야기 하고 하는 것이 일상이 된다면 어떨까? 조선통신사의 후예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되돌아 봤으면 한다.

올해는 조선통신사 사 백주년이 되는 해이다. 따라서 올해의 아리랑 마찌리는 더욱 성대하게 개최될 예정이다. 이를 보기 위해 수많은 한국인들이 이곳 대마도 땅을 밟게 된다. 아리랑 마찌리에 참가할 한국인들이 조선통신사의 후예다운 매너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올해의 아리랑 마찌리를 기대해 본다.

선조들의 음악 평론과 관객의 자세

강성일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부산대 강사

우리시대 가야금의 명인 황병기는 '국악 이야기'란 글에서 국악을 감상할 때 두 가지 점을 유의하면 좋다고 하였다. 첫째는 국악에는 많은 분야가 있고, 각 분야는 독특한 양식과 특색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만 좋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는 같은 곡이라도 연주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설픈 연주를 듣고 국악에 실망하기 쉬우니 반드시 명인의 연주를 들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도 어떤 때는 명인의 음반을 찾을 때가 있다. 실로 좋은 사람과 만나면 편안해지듯이, 음악 또한 좋은 음악을 들으면 삶이 편안해지고 그렇지 못한 음악을 들으면 머리만 산만해져 맑은 기운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연주장에서 명인의 연주라 하여 많은 기대를 하였는데 흡족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때면 그동안 몸이 좋지 않아 연주에 소홀했는지, 아니면 가사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관심을 갖게 된다. 이때는 음악은 뒤로하고 사생활이 궁금해지는 경우가 있다. 전통의 입장에서 보면 연주는 구도와 같이 자신의 품격과 관계있는데, 오늘날의 연주자는 관객이란 자체를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옛날의 관객들은 음악을 듣고 어떻게 평했을까? <시조평론>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전한다.

유간무화시고목(有幹無華是古木)

유육무골시화충(有肉無骨是夏蟲)

유인무아시괴뢰(有人無我是傀儡)

유직무곡시누호(有直無曲是漏卮)

유성무운시와부(有聲無韻是瓦釜)

유격무취시토우(有格無趣是土牛)

줄기만 있고 꽃이나 잎이 없으면, 이는 메마른 나무와 같다.

살만 있고 뼈가 없으면, 이는 뼈 없는 여름 벌레(구더기)와 같다.

남만 있고 내가 없으면, 이는 허수아비(꼭두각시)와 같다.

곧기만 하고 굴곡이 없으면, 이는 새는 삼태기에 흐르는 물과 같다.

소리만 있고 운치가 없으면, 이는 기와로 군 가마와 같다.

격조만 있고 이취가 없으면, 이는 흙으로 만든 소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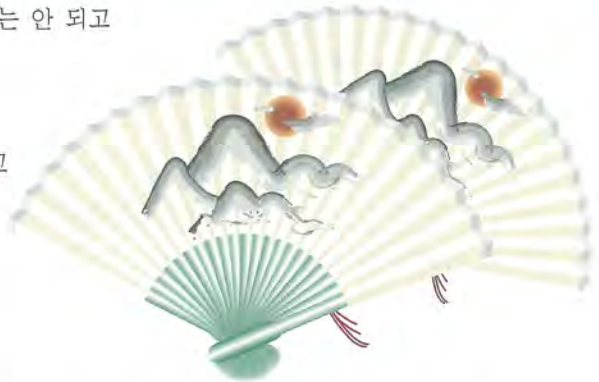
유간무화시고목, 즉 음악이 큰 즐거만 있고 무미건조하면 고목과 같이 생동감이 없다는 것이다. 음악이 생동감이 없으면 지루하고 따분해지기 때문이다. 유육무골시화충, 꿩고 밟는 것이 분명치 않아, 여름벌레의 구더기 같이 꾸물꾸물하는 것을 말한다.

유인무아시괴뢰, 관객은 도취되지 않았는데 자기만 도취되니 속빈 허수아비나 꼭두각시가 아니겠는가. 유직무곡시누호, 소리는 시원한데 큰 사이클(원)을 그리지 못하여, 마치 구멍 난 삼태기에 물이 죽죽 빠지는 것과 같은 단조로운 모습을 말한다.

유성무문시외부, 음악에 운치가 없어 음율이 기와 굽는 가마에서 나오는 소리와 같은 것이다. 유격무취시토우, 음악에 격조는 있는 것 같은데 아정한 취향이 없으니, 소는 소인데 흙으로 빚은 토우(土牛)와 같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음악에서 혼과 생명력이 없으니 목석같이 정취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객의 자세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

좌불거와(坐不踞臥) 앉은 무릎은 세우거나 뉘어서는 안 되고
용불변색(容不變色) 얼굴빛은 중용을 지키고
목불초시(目不瞧視) 결눈으로 보지 말고
수불소박(手不踏拍) 손을 흔들거나 박을 치지 말고
족불월니(足不踰踞) 발을 뻗거나 흔들지 말고
구불사어(口不私語) 사사로이 말하지 말고
찬불난발(讚不亂發) 함부로 칭찬하지 말고
청불방심(聽不放心) 듣기는 소홀히 하지 말라.



선조들이 추구한 음악평론과 관객의 자세가 이러하니 음악이란 매우 소중한 것이 아닌가 한다. 올 여름에는 우리의 멋을 아는, 그리고 한가하고 무료한 음악인과 지내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마치 김창업(1658-1721)의 시흥과 같이...

거문고 술 꽃자 노코 호젓이 낮잠든제
시문(柴門) 견폐성(犬吠聲)에 반가운 벗 오도괴야
아희야 점심(點心)도 흐려니와 외자 탁주(濁酒) 내여라

한가한 오후, 거문고 줄 사이에 술대를 꽃아놓고 호젓하게 낮잠이 들었는데, 사립문에 개 짖는 소리가 나니 반가운 벗이 온 모양이구나. 점심도 좋으려니와 외상 탁주라도 가져 오거라.

음악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는 기쁨이 더욱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

봉산탈춤

흥기태 · 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봉산탈춤은 1967년 6월 16일 중요무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되었으며, 해서 즉, 황해도 전지역에 걸쳐 분포되어 온 해서탈춤에 속하며 산대도감 계통의 극이다.

탈춤의 분포 지역들은 농산물과 수공업 생산물의 교역이자 소도시다. 봉산은 다른 남북을 잇는 유리한 지역적 조건 때문에 나라의 각종 사신을 영접하는 행사에 놀이가 벌어졌다. 예로부터 해서의 각 지방에는 5일장이 서는 거의 모든 장터에서도 1년에 한 번씩은 탈춤놀이가 벌

어졌다.

약 200여년 전 봉산에서 이숙 노릇을 하던 안초목이 전남에 있는 어느 섬에 유배되었다가 돌아온 후 나무 탈을 종이탈로 바꾸는 등 이 놀이를 많이 개혁하였으며 그 후 안초목과 같은 이숙들이 주로 이 놀이를 담당하였다고 한다. 양주 별산대에는 없고 봉산 탈춤에만 있는 사지춤 과장도 약 80여년전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봉산탈춤은 200여년 전부터 이어온 것이며, 또 다른 지방의 탈춤에서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면서 개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봉산탈춤은 세시 풍속의 하나로 5월 단오날 밤에 시작하여 다음날 새벽까지로 원래는 4월 초파일에 놀았다. 단오날 외에도 원님의 생일이나 원님이 부임하는날, 사신의 영접, 탈춤대회가 있을 때도 연회되었다. 연회장소는 봉산의 구읍 경수대 였으나 1915년경 군청 등 행정기관이 사리원으로 옮겨가고 경의선 철도가 개통되자 이 놀이도 사리원으로 옮겨져 경암산 아래에서 연회되었다.

봉산탈춤의 연출 형식은 양주 별산대 놀이와 거의 비슷하며 피리, 쯤대, 북, 장구, 해금으로 구성된 이른바 삼현육각으로 연주되는 엽불, 타령, 굿거리에 맞추어 추는 춤이 주가 되었고 여기에 몸짓과 동작, 재담과 놀이가 따랐다. 탈춤은 가무적인 부분과 연극적인 부분으로 그 구성을 크게 나눌 수 있다.

봉산탈춤은 활발하며 장삼 소매를 휘어잡고 뿌리거나 한삼을 경쾌하게 휘뿌리면서 두 팔을 빠른 사위로 굽혔다 폈다하는 깨끼춤이 기본이 된다. 목중춤은 오편대의 말뚝이의 춤과 마찬가지로 모닥불 우리를 뛰어넘는 것으로 장기를 자랑하곤 했다.

춤사위의 분류는 양주 별산대놀이의 춤처럼 자세하지는 못하나 팔목중의 의사위, 겹사위, 양사위, 만사

위, 취발이의 깨끼, 말뚝이의 두어 춤, 밀양의 궁둥이 춤과 까치걸음 등의 사위 명칭이 있으며 불림에 따라 장단을 청하고 춤을 춘다.

의상은 과거에는 무당의 옷을 자주 징발하여 썼다고 하며, 그러한 연유에선지 목중의 원색 더거리같은 것은 몹시 화려하다. 팔목중은 원래 장삼위에 더거리를 입으며, 더거리는 붉은 원동에 초록색 소매를 달고 소매 끝에 각기 청색, 황색, 남색 등의 끝동을 달았으며, 긴 한삼은 손목에 달고 그것을 휘두르면서 춤을 추었고, 다리에는 행전을 치고 대님을 맨다.

봉산탈춤 내용은 양주 별산대놀이와 비슷하며 과장은 크게 7과장으로 나뉘는데 처음에 길놀이와 고사가 있고 끝에 지노귀굿을 한다.

제 1과장 4상좌춤은 사방신에 대한 배례로서 벽사의 의식무이다.

대결로 해석할 수 있으며, 출산은 풍요를 비는 의식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제 2과장 8목중 춤이다. 제1경 목중 춤은 8목중이 사설과 자기소개를 하며, 제 2경 번고놀이는 목중 1,2가 번고를 가지고 재담을 한다. 근래에는 번고 놀이가 없어졌다.

제 5과장 사자춤으로 파계승들을 벌하기 위하여 부처님이 보낸 사자가 내려와 목중을 잡아 먹으려고 하다가 목중들이 회개하겠다는 말을 듣고 용서하며 함께 춤을 춘다. 양주별산대 놀이에는 없는 이 과장은 약 80여년 전에 새로 도입되었다고 한다.

제 3과장 사당춤으로 7명의 거사들이 화려하게 치장하고 사당을 엮고 등장하고 흠아비거사가 사당을 희롱하다 쫓겨나며 7명의 거사들은 놀랑가를 합창하며 질탕하게 논다.

제 6과장 양반춤으로서 주로 말뚝이와 양반 3형제와의 재담으로 이루어진다. 새처를 정하는 놀이, 시조짓기와 파지놀이, 나랏돈 잘라먹는 취발이를 잡아오는 과정들을 통하여 말뚝이는 독설과 풍자로서 양반들을 욕보인다.

제 4과장 노장춤에서 제경 노장춤은 부처라 칭송받던 노장이 소무에게 유혹되는 좌장을 풍자하며, 제2경 신 장수 춤은 노장이 소무의 신을 외상으로 사자값을 받으려고 신장수가 원승이를 보냈다가 장작전으로 오라는 편지에 장작뼌을 당할까봐 급히 퇴장한다. 세속적인 인물로 변한 노장의 모습을 보여준다. 제3경 취발이춤은 취발이가 노장을 물리치고 소무와 사랑을 나누는 뒤 아이를 얻고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며 신세 타령을 하는 내용이다. 노장과 취발이의 대결은 늙음과 젊음, 겨울과 여름의

제 7과장 미알 춤으로 난리에 헤어졌던 영감과 미알할미가 만났는데 영감이 데려온 덜머리집과의 일부처침의 싸움은 미알의 죽음으로 끝나고 지노귀굿을 한다. 일부다처제로 인한 갈등을 보여주며 굿은 탈춤의 기원이 굿에 있음을 보여준다. 배역들은 가면을 소각하는 소제를 치르면서 풍년 기원과 동네의 무사 안녕을 축원하는 것으로 놀음을 끝낸다.

봉산탈춤에 나오는 배역은 모두 34인이나 탈은 겸용되기도 하여 실제 26개의 가면이 사용된다. 상좌 4개, 목중 8, 거사 6, 소무, 노장, 신장수, 원승이, 취발이, 망양반, 들썰양반, 도령, 말뚝이, 영감, 미알, 덜머리집, 남강노인, 무당, 사자 등이 있다.

봉산탈춤은 다른 지방의 탈놀이에서 끊임없이 영향을 받아들이면서 개량하였고 명수들의 배역과 뛰어난 연기로 주위에 명성을 떨치면서 19세기말 20세기초에 걸쳐 강령탈춤과 함께 황해도 탈놀이의 최고봉을 이루었다. 봉산탈춤의 연희자는 모두 남자였고, 특히 그 지방 이속들이었으므로, 사회적으로 그리 천시되지 않았고 그 연기가 세습되어 왔다. 1920년대에 들어서 기생조합이 생긴 후로는 남자대신 여자 기생들이 상좌와 소무를 맡게 되었다고 한다.

이방인의 눈

- Andrew Marly <Village> -

김형술 · 시인

사람들은 때때로 이방인을 꿈꾼다. 방 한구석에 밀쳐두었던 배낭을 꺼내어 먼지를 털고 간단한 세면도구와 몇 가지의 옷과 지도를 챙겨 넣은 후 어깨에 메고 늘 머물던 집과 늘 오가던 길을 벗어나 어디론가 떠나기를 원한다.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마침내 도착한 낯선 곳, 자신이 태어나 숨쉬고 자란 모국이 아닌 전혀 다른 언어와 공기와 자연환경을 가진 그곳에서 기꺼이 이방인의 눈과 이방인의 몸과 마음을 가지게 되는 당혹감과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한다. 늘 익숙하게 봐오던 풍경이며 사람들, 제 몸의 일부인 양 체화되어버린 거리의 바람이며 냄새,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소음들에서 벗어나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들, 난생 처음 맡게 되는 낯선 곳 특유의 풍경들이 가진 체취들 한가운데 서서 길을 잃으면 비로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음을 새삼 확인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그리워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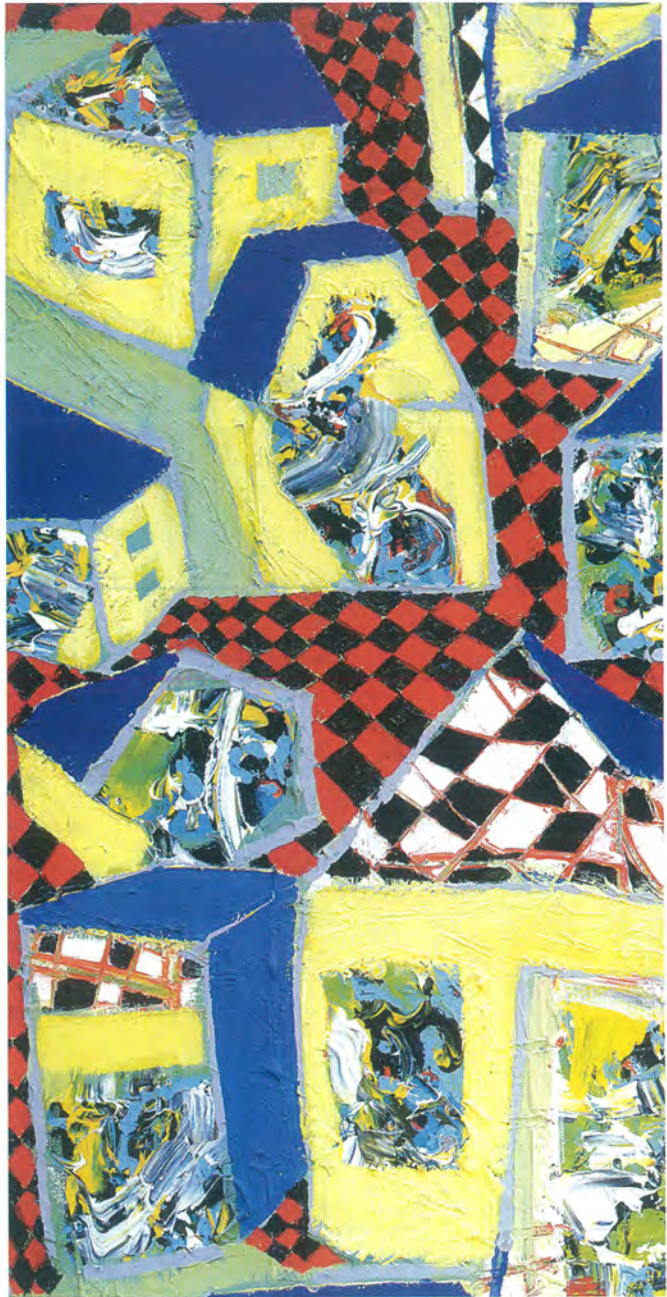
모국에서의 나는 거미줄처럼 얽힌 수많은 관계와 관계들 사이 하나의 개체였으나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낯선 곳에서의 나는 그저 그곳 풍경의 일부에 불과할 뿐이며 여행을 떠나기 전에 준비했던 몇 가지의 지식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임을 쉽사리 알게 된다. 그럴 때 나는 이 낯선 곳의 사람들과 풍경들을 내가 태어나 자란 모국의 모든 경험들을 통하여 바라보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낯선 곳에 도착해 낯선 거리를 걷고 있는 나는 여전히 아무 것도 아닌 사람, 즉 Mr nobody임엔 분명하지만 이곳에서야 비로소 내 안에 잠재된 수많은 모국의 흔적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무심한 눈, 세계를 인식하는 완강한 관점들, 일상의 사소한 몸짓이며 버릇 하나하나가 모두 모국에서의 삶들에 의해 형성된 것들이라는 걸 새삼 이해하게 되고야 만다.

나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존재를 꿈꾸며 내 삶의 근원인 장소를 이탈해왔지만 사실은 내가 떠나온 곳에 관한 더 넓은 시각과 더 큰 이해를 갖기 위해 떠났던 것이라는 사실도, 낯선 곳의 모든 것들은 모국의 그것들과 대조되고 비교된 후에야 이해는 가능해지고 이국적인 풍경과 언어들 내 몸과 정신에 깃들인 모국이라는 필터를 거쳐야만 그 의미를 가늠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지없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그게 떠나는 일, 낯선 곳을 여행하는 일의 의의이자 힘이다. 그러니 어디론가를 향해 떠나는 일은 내 사는 곳을 향해 깊숙이 되돌아보는 일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어쩌면 새롭게 되돌아보기 위해 늘 어디론가 떠나고자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Andrew Marly Village
All Painting acrylic on canvas 86x104

7월의 시청 전시실에서 이방인의 전시회를 만났다. 자신의 모국인 호주를 떠나 8년을 부산에서 살면서 부산의 풍경을 그려왔다는 이방인의 그림들 속엔 우리가 익히 아는 부산의 정서적인 색채와 풍경은 발견하기 힘들었다. 대신 화가 자신의 감성 속에 남아있는 모국의 정서와 낯선 곳인 부산의 풍경들이 만나 충돌한 흔적들을 쉽사리 발견할 수 있었다. 아마도 호주의 자연풍경이 화가 자신에게 남겼을 흔적인 강렬한 원색의 색채들과 바다를 중심으로 퍼져나간 부산이라는 도시의 특징적인 선들이 묘하게 만나 또 하나의 낯선 풍경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

기묘한 기표를 벗어난 채 그저 하나의 무늬로만 차용된 한지들과 모란, 대나무, 문살 등이 전형적인 동양화의 쓰임이 아닌 자유분방한 서양화 속에 배치되어 있는 그림들은 이 호주에서 온 이방인이 한국과 부산의 지형적 거리를 떠나 동양의 문화들에 갖는 시각이 어떠한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이런 기묘한 느낌들은 어쩌면 대개의 사람들이 낯선 곳으로 떠난 여행에서 만났던 느낌들, 감각들과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벽안의 이 이방인 또한 부산의 여러 풍경들을 그려내면서 자신의 내면에 완강하게 깃들여져 결코 벗어버릴 수 없는 모국의 여러 문화들을 새삼 재확인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 이방인의 눈을 통해 부산의 외형적 풍경들과 내면적 색채들을 확인하게 되는 경험 또한 내 시는 곳을 향해 새롭게 되돌아보는 일이기도 한 것처럼.



세대(世代)

유상훈 · 연극배우



연극인의 숫자와 나이의 관계는 피라미드형이라고들 한다. 나이가 들수록 연극인의 숫자가 쏠리는 얘기다.(사진은 부산시립극단 '리어왕')

예전엔 연극관에 노인 역을 젊은 연기자들이 많이 했었다. 예나 지금이나 드라마틱한 일은 젊은이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건지 어쨌든 젊은 주요 배역들은 극단에 나이 드신 선배님들 차지였고 나머지 단역들은 이제 극단에 막 들어온 후배들이 맡아했었다. 거기에는 노(老)역이 섞여 있었다.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 '리어왕'은 노역이 주연이다. 나이가 들어 왕국의 모든 것을 딸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노후를 자식들에게 의탁하여 안락하게 보내려 하였으나 왕국을 나누어준 뒤 오히려 그 자식들에게 내쫓겨 아무 것도 없는 거지처럼 광야로 내 몰리게된다. 정직하여 아부하지 못해 아무 것도 물려받지 못한 막내인 셋째 딸의 도움으로 왕국을 다시 찾게되나 세 딸과 자신의 목숨마저 잃게되는 처절한 비극적 여정을 그린 내용이다. 내친김에 이 대본 속에 나오는 세대별 대사를 한번 더듬어보자.

“무엇 때문에 내가 습관의 희생이 되고 세상의 시끄러운 잡소리에 굴복을 하며 나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으면 안 되는가” “자신의 재난을 태양이나 달이나 별의 탓으로만 돌리다니 마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악당이 되고 천체에 강요되어 바보가 되고, 어떤 특별한 별의 세력으로 악한이나, 도둑이나, 반역자가 되고 떠돌이별의 영향력에 억지로 복종하여 주정뱅이, 거지말쟁이, 간부가 되고, 신통력에 놀려 여러 불한당이 생겨 나는 것처럼 음탕한 인간이 자신의 음탕한 성질을 별 탓으로만 돌리다니...” 혈기왕성한 청년의 운명과 현실에 대한 거친 저항이 시작된다.

“여자가 노래를 썩 잘 부른다고 해서 그 여자를 사랑할 만큼 풋내기도 아니요, 무작정 여자에게 반할 만큼 나이든 늙은이도 아닌 마흔 여덟 살이 지났지요” “하늘의 축복을 빼앗기고 따뜻한 햇빛을 찾으러 다닌다는...재난을 겪지 않고 기적을 볼 수는 없다... 행운의 여신이어 잘 있거라 어느 때고 너의 미소를 볼 날이 있으리나...” 경험도 있고 미래에 대한 여지도 아직은 남아있는 중년의 대사들이다.

이제 운명에 내어침을 당한 노역의 대사들을 한번 보자. “전능하신 신이여! 저는 이 속세를 버리겠나이

다. 기록하신 당신 앞에서 저의 이 벽찬 번뇌를 떨어버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고통을 견딜 수 있고, 거역할 수 없는 막강한 당신의 힘과 싸움을 시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타다 남은 찌꺼기 같은 육체의 흥한 잔해는 저절로 다 없어질 것이..." "공인이 맹인의 손을 끄는 것이 이 시대의 저주다" "우리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이 거대한 바보들의 무대에 나오는 것을 깨닫고 슬피 운다" "너희들은 내가 눈물을 흘릴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울지 않을 것이다. 아니 나는 절대로 울지 않겠다. 이 심장이 천 갈래 만 갈래로 찢겨지기 전에는 울지 않으려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본질적이다. 더 이상 기다릴 수도, 미래를 다짐하며 거역할 수도 없는, 막바지에 다다른 처절한 인간의 외침이 공야로 내몰린 노역의 대사들에서 쏟아져 나온다.

어제 같은 오늘로 늘상 연습과 공연의 날들을 보내다 보니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난 숫자나 나이 개념이 별로 없는 듯하다. 그러나 새롭게 몰려 올라오는 후배들의 모습과 관객의 주류가 이루는 기운의 변화들을 겪으며 언제인가부터 섭외 들어오는 백역도 점차 한정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나이란 떠밀려 가는 것인지...

스포츠계는 이제 그 연령대가 점차 낮아져 10대에 전성기를 구가하는 종목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대기록을 매년 경신해나가는 40대의 선수들도 있다. 빌 게이츠나 아인슈타인은 20대에 인생을 결정지었다. 예수는 33세에 인류의 죄를 대속할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하고, 석가는 35세에 사유와 직관의 영역으로 우주를 꿰뚫었다 한다. 다른 어떤 이의 성공보다 더 위대한 실패의 대 정벌을 멈추고서 알렉산더 대왕은 서른 셋의 나이로 이 세상을 하직한다. 그들에겐 나이는 무색하다. 많은 화가들과 저술가들이 80세 고령에 불후의 명작들을 남겼다.

몇해 전 보았던 고회를 훌쩍 넘기신 국립극단 장민호신생님의 무대는 가만히 시 계시기만해도 한 점 흐트러짐이 없는, 한톨의 육체도 정신이 감당하지 않는 부분이 없는 그런 감동을 보여 주셨다. 우리 부산이 낳은 전성환신생님도 바로 리어왕에 출연하시며 큰상을 받으시고 노년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다.

연극인의 숫자와 나이의 관계는 피라미드형이라고들 한다. 나이가 들수록 연극인의 숫자가 준다는 얘기가. 하지만 이제는 연극을 시작하려는 이들도 줄어 원통형에 가깝다고 보아야겠다. 집에서 잠만 자고 차비만 있으면 연극하러 다닐 수 있던 시대와는 지금은 거리가 있는 듯 하다. 아무런 소비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 통신비나 교통비 유지비만 들어 만만찮은 세월이다. 소비와 물신(物神)의 구원을 모토로 키워온 사회적 현실인건지, 뛰는자 위에 끊임없이 날아야 살아남고 연봉 억대의 살아있는 신들의 대열에 끼이기 위해 탄생 때부터 조기교육의 열성이 시작되는 시대다.

살아남은 자가 모든 정보와 물질의 향유를 보장받는 지금은 '생존의 시대'라고 일컬어보면 비약일까. 거기다 대고 "아침에 도(道)를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던 우리 할아버지적 선비정신을 입력한다면 세대공감은 커녕 세대공갈로나 치부되지 않을까. 이러다 마지막 남은 연극인이 공야에 내몰려 바로 그 말을 외치게 되지나 않을까. 80세가 넘은 리어는 노구를 이끌고 공야를 헤매며 목놓아 이 말을 부르짖는다.

"죄짓는 사람은 없어, 아무도 없어. 없는 거야."

금정산 산자락에 자리잡은 김정명 작업실 김스아트필드

대문을 걸어두면 오가는 사람들이 담 넘어 자꾸 기웃거린다.

열어두면 마구 들어와 신경이 쓰였다.

이 곳 산성마을

강산이 두 번 바뀌어가는 동안 그런 속에서 작업해왔다.

너무 빼곡히 들어찬 작품, 호기심이 많다.

이렇게 보고 싶어 하고 관심있어 하는 사람을 위해 문을 연다. 간판을 단다. Art Field.



부산대학교 김정명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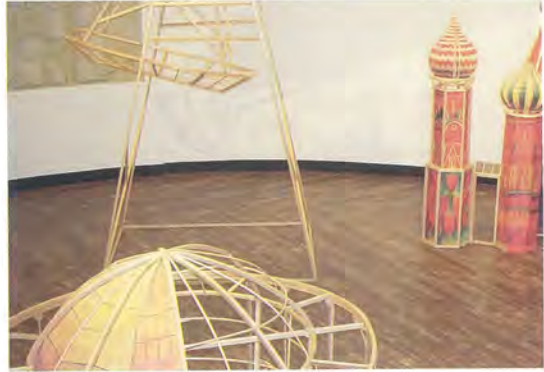
오가는 등산객의 발길을 붙잡는 금정산 산자락 한켠에 자리잡은 김스아트필드. 부산대학교 김정명 교수의 개인 작업실이던 김스아트필드는 지난해 10월 이렇듯 '기웃거리는 일반인들'을 위해 문을 연 그의 개인미술관이다.

지난 1988년 처음 이곳에 터전을 잡았을 때만 하더라도 작업실 10여평에 불과했던 공간은 지금은 300여평으로 늘어나면서 지하 1층, 지상 1, 2층의 갤러리와 야외전시장을 갖추고 있다. 전시장에는 20여년 가깝게 작업해 온 그의 분신들이 빼곡히 자리잡고 있다.

김스아트필드에 들어서면 사람 키를 훨씬 뛰어넘는 거대한 머리 조각들이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바로 김정명 교수의 대표작인 머리 연작시리즈. 12개의 브론즈 작품에 원본까지 총 24개의 대형머리가 야외전시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전 세계 유명 건축물로 구성된 '건축물', 유명 브랜드를 새겨놓은 '브랜드', 성경, 팔만대장경 등 책 수백권이 들어있는 '책', 십이지상으로 둘러싸인 '십이지(十二支)' 등 사람의 머리라는 형상은 같지만 그 형상을 구성하는 주제는 저마다 다르다. 하나하



김정명 교수의 대표작인 머리 연작시리즈가 전시된 김스아트필드 야외전시장.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유망주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김스아트필드 기획전. (사진은 지금 전시중인 정혜련 작품전)

나 들여다보며 김정명 교수가 직접 부친 작품노트를 읽는 것도 재미가 쏠쏠하다.

통로를 사이로 두줄로 늘어진 머리시리즈를 감상하다 보면 어느덧 실내전시장 입구에 다다른다. 전시실로서는 그다지 넓지 않은 공간이지만 층별로 꾸며진 전시공간에는 김정명 교수의 소품이 전시되고 있다. 지하 1층 벽면에는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로비 벽면에 새겨져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객석'의 축소본이 전시되어 있다. 전시실에 전시되는 작품들은 그의 작품 중 20%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김정명 교수는 계절별로 작품을 바꿔 전시하고 있다.

김스아트필드는 개인 작업실을 겸한 만큼 매주 토요일에 한해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일반인들에게 개방된다. 지금도 평균 30~40여명의 관람객이 이 곳을 찾고 있다. 내년 3월 서울 초대전을 앞두고 바쁜 와중에도 김정명 교수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토요일이면 이 곳에 머물러 관객들에게 직접 작품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있다.

김스아트필드에서는 현재 기획전으로 설치작가 정혜련 작품전 'The wonderful world'가 열리고 있다. 김스아트필드 기획전은 김정명 교수가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유망주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전시로, 매년 봄, 가을 두차례 열릴 예정이다. 정혜련 작품전은 7월 28일까지 김스아트필드 지하 1층 전시실에서 열리며, 가을에는 설치미술가 변대용의 작품전이 열릴 예정이다.

20여년 전 지금의 이곳에 등지를 틀 때부터 미술관 건립을 구상했다는 김정명 교수. 김스아트필드를 개관하면서 한걸음 내딛는가 했는데, 최근들어 문제가 발생했다. 김스아트필드가 자리한 부지가 금정 산성 관아지인 금정진 터로 복원될 예정이라 언제 이 곳을 떠나야 될 지 모르는 상황이다.

“오랜 세월 부산에서 작품활동을 해온만큼 꼭 부산에 개인미술관을 건립하고 싶다”는 김정명 교수. 문화인프라가 열악한 부산에 조그만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다양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랄 뿐이다.

· 개관시간/매주 토요일 오전 11:00~오후 5:00

■ 문의 : 김스아트필드(517-6800, <http://blog.naver.com/af2006>)

고전음악을 사랑하는 모임 국도클래식음악동호회



올해 들어 온라인 카페 '고전음악을 사랑하는 모임'을 개설하며 새로운 출발을 선언한 국도클래식음악동호회.

올해 들어 온라인 카페 '고전음악을 사랑하는 모임'을 개설하며 새로운 출발을 선언한 국도클래식음악동호회. 1997년 유니텔 부산지역 회원들의 오프모임에서 시작된 국도클래식음악동호회가 지금의 이름을 걸고 활동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2년 6월부터이다.

국도클래식음악동호회를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국도레코드. 2002년 3월 광복동에 문을 열었던 국도레코드는 음반 매장 외에 전문시설을 갖춘 음악감상실과 영화감상실, 아트홀 등 문화공간을 지역 예술동호인들에게 제공해 동호인들의 문화 메카역할을 했던 곳이다. 국도레코드를 즐겨찾던 회원들이 이곳 음악감상실을 정기모임 장소로 정하면서 동호회 이름을 '국도클래식음악동호회'라 명명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4월 재정난으로 국도레코드가 문을 닫게 되면서 터전을 잃게 된 국도클래식음악동호회는 지난 3월 한 회원

이 자신의 개인 음악감상실을 정기모임 장소로 제공하면서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되었다.

현재 온라인 카페에 가입한 회원은 90여명. 국도클래식음악동호회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온라인 카페에 가입한 후 6개월 동안 3번 이상 정기모임에 참여하면 된다. 현재 정회원은 26명. 20대 중반에서 60대까지 연령층은 다양하지만 클래식음악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똑같다.

정해진 주제에 따라 회원들이 음악감상을 진행하는 정기모임은 매달 둘째주 토요일 오후에 열린다. 지난 7월 14일 열렸던 7월 정기감상회에서는 국도클래식음악동호회 신입회장으로 선임된

김희성 동서대학교 교수가 '전쟁과 평화'라는 주제로 음악감상회를 진행했다. 김희성 교수가 이날 준비한 곡은 총 8곡, 홀스트의 관현악 모음곡 '행성' 중 제 1곡 '화성:전쟁의 신'에서부터 베토벤의 '웰링턴의 승리', 국악타악그룹 '공명'의 '전쟁과 평화', 안익태의 '한국환상곡'까지 '전쟁과 평화'라는 주제에 걸맞는 다양한 곡을 감상한 후 회원들간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앞서 6월 음악감상회에서는 지난 4월 타계한 로스트로포비치를 추모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정해진 주제에 따라 회원들이 음악감상을 진행하는 정기모임은 매달 둘째주 토요일 오후에 열린다.

이밖에도 국도클래식음악동호회에서는 매년 '찾아가는 감상회'와 초청음악회를 가져오고 있다. 부산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음악을 즐기며 회원들간에 친목도 다지는 '찾아가는 감상회'는 지난 5월 통도사 찻집 '다요'에서 펼쳐졌으며 지난해 5월에는 합천 해인사 산정꺠러리에서 감상회를 갖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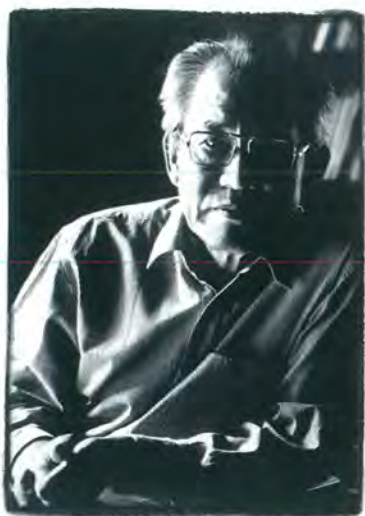
자연속에서 음악을 즐기며 회원들간에 친목도 다지는 '찾아가는 감상회'.(사진은 지난 5월 통도사 찻집 '다요'에서 열렸던 찾아가는 감상회)

연주회장을 직접 찾아가 연주를 관람하는 것도 국도클래식음악동호회 회원으로서 빠질 수 없는 일. 번개모임을 통해 회원들과 자주 연주회장을 찾는다. 1년에 한번은 초청음악회도 가져오고 있는데 그동안 콘트라베이스 주자 정하영 씨, 하모니카 연주자 김병섭 씨 등이 초청무대를 다녀갔다.

"클래식 애호가라 하면 괜한 선입견을 갖는 사람이 있는데, 클래식이든 트롯이든 모두 음악의 장르일 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김희성 회장. 그는 모차르트의 '레퀴엠'이 좋아 200여장이 넘는 음반을 수집한 모차르트 매니아이다. "개인적으로 바그너 음악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바그너의 대가인 회원의 세미나를 듣게 되면서 바그너 음악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그는 음악에 대한 폭을 넓히는데 동호회 활동이 무엇보다 큰 도움이 되었다고, 특히 클래식음악을 막 접하기 시작한 초보 회원들에게는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회원들의 조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한다.

■ 문의/국도클래식음악동호회(cafe.daum.net/kukcl)

부산시립예술단, 한울림합창단이 준비하는 윤이상 민족 칸타타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 한국초연 무대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의 민족 칸타타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가 9월 20일 부산문화회관에서 한국 초연된다.

부산광역시와 윤이상 평화재단 주최로 진행되고 있는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 초연공연은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부산시립합창단, 전문 예술단체 한울림합창단 등 230명의 연주인이 참가하는 대규모 공연이다.

윤이상 선생은 음악청년기 시절 그의 고향 통영보다도 부산에서 교육자로, 음악가로 긴 세월을 보냈다. 특히 부산사범학교 교사시절 음악교사와 국어교사로 만난 부인 이수자여사가 부산토박이라 선생과 부산과는 인연이 깊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임에도 불구하고 동백림사건이후 국내에서 선생의 작품이 제대로 연주되지 못하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연주되기 시작했지만 칸타타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 만은 고도의

연주력과 규모 때문에 초연되지 못했다 박두진, 고은, 김남주, 문이환, 문병란, 배기안, 양성우 등의 민족시 11편에 곡을 붙인 이 작품은 분단 민족의 아픔과 통일의 염원을 노래하고 있다. 선생의 민족의식과 통일에 대한 염원, 조국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음악적 모든 역량을 담아 낸 윤이상 음악의 집대성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1987년 선생은 작품을 완성하고 남한에서 초연되길 간절히 바랬지만 당시의 정치적 상황으로 연주가 어려워 이 작품을 북한으로 보내 김병화의 지휘로 초연했다. 당시 김일성주석이 자리하여 작품에 대한 찬사를 보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카르미나 부라나를 작곡한 칼 오르프의 부인이기도 한 독일작가 루이제 린저는 이 칸타타를 세계에서 가장 빼어난 서사성과 동양적 우주관을 표현한 최고의 칸타타라고 격찬했다.

이번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 한국 초연무대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부산시립합창단이 참가하면서 부산의 예술적 역량을 한데 모아 윤이상 민족 칸타타의 깊은 뜻을 알리는 역사적인 무대이다.

“부산을 빛낼 인물로도 선정된 윤이상 선생의 음악을 집대성한 칸타타를 부산 예술인들의 힘으로 초연 무대를 갖게 되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2007년 벽두부터 부산시립예술단 일정을 조율하며 초연무대 성사를 위해 마음 졸인 부산문화회관 공연훈 공연과장. 작품의 규모가 230여명의 연주진이 참여하는 대형작품이기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부산광역시의 지원 결정으로 9월, 역사적인 한국초연을 하게 되어 기쁘다.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 초연무대는 한울림 합창단 차재근 단장을 빼놓을 수 없다. 차재근 단장은 2005년 초부터 사전조사를 하여 이 작품을 비롯한 몇몇 한글가사로 된 작품의 저작권이 평양 윤이상 연구소에 있음을 알고 윤이상 평화재단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초연의사를 전달했다. 약 9개월의 진행 과정 끝에 2005년 9



칸타타 ‘나의 땅, 나의 조국’은 230명의 연주인이 참가하는 대규모 곡이다. (사진은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부산시립합창단)

월 2일 선생의 장녀인 윤정 씨 입회하에 한국초연에 따른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순수민간차원에서 남북이 처음으로 맺은 음악부문 저작권 계약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는 윤이상 탄생 90주년 기념 윤이상 국제음악페스티벌의 메인작품입니다. 유일하게 서울이 아닌 부산에서 연주되는 것도 의미있지요. 연주 당일 부인 이수자 여사와 장녀 등 가족의 부산방문이 추진 중인데 좋은 결실이 있을 듯 합니다.”

차재근 단장은 초연무대에 11명의 시인 중 생존하고 있는 시인들도 공연에 초대할 계획이다.

역사적인 무대를 준비하는 단원들의 마음도 여느 때보다 설렌다. 현재 합창연습이 시작되었다.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가 스케일이 큰데다 고도의 연주력을 필요로 해 지금껏 국내는 물론 독일 무대에도 한 번도 울려 지지 못한 작품이기 때문에 연습에 임하는 단원들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공연훈 공연과장과 차재근 단장은 마음이 바쁘다. 지휘자 선정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선정한 독일 하노버 국립오페라극장 지휘자인 구자범 씨와 예술단의 일정이 맞지 않아 다른 지휘자로 방향을 선회하다 보니 다소 지연되었다. 현재 북한 국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인 김병화 지휘자와 재일동포 지휘자 김흥재 지휘자로 압축하고 추진하고 있다.

음악 부분 외에도 초연무대 준비가 그리 녹록지만은 않다. 공연훈 공연과장과 차재근 단장은 요즘 협찬사 확보를 위해 발품을 팔고 있다.

“평양에서 초연되고 30년이 지난 지금 남한에서 초연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 작품의 주제인 우리민족과 땅의 역사, 현실, 미래 그리고 민족과 조국, 통일에 대한 남북간의 음악적 공통분모를 비로소 만들게 되는 것이지요.”

차재근 단장은 주요 대북창구단체와 이번 부산시립교향악단을 비롯한 부산 초연팀의 평양공연을 추진하고 있다. 모 중앙언론사가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북한 합동문화행사로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의 남북 합동공연 추진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9월 한국 초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평양 공연, 남북 합동 공연이 이루어진다면 이 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초연 무대를 준비하는 230명 연주자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진다.

부산문화회관, 국제신문 공동주최
국립발레단과 함께 하는 발레리노 김용걸 초청공연

백조의 호수

8월 25일 토요일 오후 7:00, 26일 일요일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발레리노 김용걸

부산문화회관이 창간 60주년을 맞은 국제신문과 공동 주최로 동양인 최초 파리오페라 발레단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발레리노 김용걸과 국립발레단을 초청, 오는 8월 25일과 26일 양일간 발레 '백조의 호수'를 부산시민들에게 선보인다.

데뷔 이후 국내에서 모든 작품에서 주인공 역할을 도맡아 실력을 인정받은 부산출신의 발레리노 김용걸은 한국인 최초로 1997년 모스크바 국제발레콩쿠르 남자 동상과 1998년 파리국제무용콩쿠르에서 발레리나 김지영과 함께 듀엣부분 1위를 수상, 세계적인 발레리노로 주목을 받았다.

고향에서의 무대를 손꼽아 기다리는 김용걸은 중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 듯 가벼운 도약으로 허공을 가르며 보는 이의 호흡을 일순간 정지시키는 마력의 소유자이다.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고 있는 '백조의 호수'는 작가이자 볼쇼이 극장의 레퍼토리 디렉터인 베기체프와 발레 마스터였던 켈체르 공동 대본으로, 차이코프스키 음악, 벤젤 레이징거(Wenzel Reisinger) 안무로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에서 초연되었다. 그러나 초연당시 안무가 레이징거가 차이코프스키 음악의 극적인 아름다움을 발레로 잘 표현하지 못해 호평을 받지 못했다.

차이코프스키 음악의 진가는 쉐 피체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의 예술감독으로 있던 마리우스 프티파(Marius Petipa)에 의해 재조명되었다. 프티파는 차이코프스키가 죽은 뒤 볼쇼이 극장에서 음악과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을 발견하고 마린스키 극장장에게 이 발레를 차이코프스키 추도 공연의 레퍼토리로 공연하도록 추진했고 차이코프스키의 막내동생인 모데스트가 대본의 일부를 수정하고 작곡가 드리고가 곡의 일부를 변경하고 차이코프스키 만년의 피아노곡과 18개의 소품집에서 3곡을 선곡해 오케스트라로 편곡해 삽입했다. 당시 프티파의 조감독으로 있던 이바노프가 안무하여 2막만 추도공연으로 공연했는데 대호평을 얻었다. 이에 힘을 얻은 프티파는 다음해 1895년 1월 27일 '백조의 호수' 전막을 무대에 올렸다.

고전발레 양식을 확립한 프티파는 '백조의 호수'에서 이런 고전발레의 특징을 잘 살려 춤에



빈틈이 없이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만들었다. 또한 이바노프가 안무한 호수가 장면에서는 어슴푸레한 달빛이 비치는 호수, 백조와 인간의 사랑이라는 비현실적 이야기를 잘 살려서 '환상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낭만발레의 특징도 갖추고 있다.

국립발레단이 선보이는 이번 작품은 1969년 불쇼이 발레단의 예술감독 그리가로비치가 재안무한 '백조의 호수'로 그동안 우리가 많이 보았던 러시아 키로프 발레단이나 영국 로열 발레단 등의 '백조의 호수'와 비교해 볼 때 내용이 나 안무 스타일이 매우 다르다.

국립발레단은 1962년 국립극장 산하단체로 출발 2000년 이후 재단법인으로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레퍼토리와 관객을 먼저 생각하는 공연을 통해 대중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동시에 세계적 수준의 발레단으로 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립발레단은 최근 몇 년간 '해설이 있는 발레'와 같은 참신한 대중화 프로그램, 유리 그리가로비치의 장-크리스토프 마이요, 마츠 에크 같은 세계적인 거장과의 작업, 적극적인 단원 매니지먼트를 통해 국내 무용계 최초의 스타 시스템을 정착시킴으로써 한국 발레가 오늘날 인기 예술 장르로 자리 잡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음악은 지휘자 故홍연택에 의해 1985년 3월, 순수 민간 교향악단으로 출범한 이래 폭 넓은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한다. 1995년 '플라시도 도밍고 내한공연' 1999년 '호세 카레라스 내한공연', 2001년 '3테너 내한공연' 등 세계 유명 연주자들의 음악을 담당한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2001년 3월 재단법인으로 탈바꿈하면서 예술의전당 상주오케스트라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구성

1막 1장 - 왕자의 생일날 1막 2장 - 백조의 호수가
2막 1장 - 왕궁무도회 2막 2장 - 백조의 호수가

■ 입장료 : VIP석 100,000원 · R석 70,000원 · S석 50,000원 · A석 40,000원 · B석 3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5% 할인)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예술기획(0505-700-9798), 국제신문 문화사업부(500-5222)

세계에 우뚝 선 부산 출신의 발레리노 김용걸



세계정상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도전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

8월 25일과 26일 부산문화회관과 국제신문 공동 주최로 개최하는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공연을 위해 부산을 찾는 세계적인 발레리노 김용걸 씨.

1997년 모스크바 국제발레콩쿠르 동상, 1998년 파리국제무용콩쿠르 듀엣 부분 1등상을 거머쥐며 한국발레를 대표하는 '빛나는 별'로 등극한 김용걸 씨는 2000년 한국에서 보장된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홀연히 파리로 건너갔다. 파리국립오페라발레단 5개월 계약 견습생으로 파리 생활을 시작한 그는 340여년 전통의 파리 국립오페라발레단의 엄청난

경쟁률의 승급 심사를 차례로 통과하며 6년 만에 솔리스트 자리에 올랐다. 그는 동양인에 대한 따가운 시선을 극복한 유일한 남자 단원이다. 한 번 뿐인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는 바다까지 내려가 인생을 배운 것이다.

“남들은 이번 공연을 모두 금의 환양이라고 합니다. 저를 기억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것 같아 부산공연이 너무 기다려져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는 발레에 대한 선입견을 없앨 수 있는 편안한 무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프랑스 출발 당시 겁없이 덤벼들었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지금도 김용걸 씨는 웃음이 난다.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발레학원을 찾은 그는 부산예고 진학을 하고서도 그다지 발레에 흥미를 갖지 못했다. 어머니의 열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김용걸 씨는 탄생되지 못했을 것이다.

발레 의상이 싫어 무조건 하기 싫다고만 생각했던 발레였지만 어머니의 도움으로 마음을 열고 가슴으로 발레를 받아들였다. 자기만 고집한다면 자칫 놓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던 것.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항상 스스로 한테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그는 파리국립오페라발레단의 최고 단계 단원인 에프왈(프랑스어 로 빛나는 별)에 도전하기 위해 또 도전한다. 항상 겸손하게 자신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김용걸 씨. 그를 지켜보는 부산과 부산 시민들 앞에서 그는 언제나 자랑스러운 에프왈이다.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 합창단 연합공연

칼 오르프의 카르미나 브라나 전곡

8월 21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8월 23일 목요일 오후 7:3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극장

8월 28일 화요일 오후 7:30 진주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동양권 합창단으로 처음으로 바티칸 미사 공연을 가져 큰 호평을 받은 부산시립합창단이 8월 21일 부산과 울산, 경남 시·도합창단과 연합무대로 시원한 한 여름밤 무대를 마련한다.

3개 시·도 연합합창공연은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만들어 부산, 울산 경남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2000년부터 시작되었다. 2000년 울산시립합창단 나영수 지휘자의 지휘로 3개 시·도합창단의 남성 단원들로만 무대를 가진 데 이어 올해는 부산시립합창단 김강규의 지휘로 부산시립합창단과 울산시립합창단, 진주시립합창단 3개 시·도 합창단이 응징하고 장엄한 연합혼성합창으로 합창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을 마련한다.

이번 무대는 독일이 자랑하는 현대작곡가 '칼 오르프'의 '카르미나 브라나' 전곡을 연주한다. 전 25곡 3부작인 카르미나 브라나는 중세 라틴어와 독일어 텍스트를 통해 신을 떠나 육신을 찬미한 세속 찬가로, 단순한 화음과 고전적인 멜로디를 사용하여 극의 효과를 주었으며 재미있고, 우리 귀에 익은 익숙한 선율은 모든 이의 마음을 감동으로 사로잡는다. 부산출신의 소프라노 김유섬, 테너 곽성섭, 바리톤 박대용이 솔로로 출연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합창단의 반주자 이경미, 이승윤 외에 국내 최초의 팝 연주 전문 타악기 앙상블 팝스 앤 퍼커슨이 타악기 특유의 다이내믹함과 열정적인 리듬의 앙상블로 참신한 감동과 재미를 선사한다.

21일 공연에 이어 23일은 울산문화예술회관, 28일은 경남문화예술회관 순회 공연을 갖는다.



김강규



김유섬



곽성섭



박대용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합창단(607-6126)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 콘서트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8월 22일 수요일 오전 11:00,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금난새

청소년 음악회의 대명사로 불리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특별기획연주회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가 8월 22일 오전 11시와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에서 두차례 펼쳐진다.

지난 1996년 첫 선을 보인 이래 매년 매진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클래식은 내친구'는 청소년들이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 클래식음악을 지휘자 금난새의 재치있는 해설로 쉽고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이다.



박혜령

이번 무대에서는 각종 청소년콩쿠르에서 우승한 차세대 마림비주자 박혜령의 협연으로, 로시니의 '빌헬름 텔' 서곡을 비롯 비발디의 '사계' 작품 8 중 '가을', 레스피기의 교향시 '로마의 소나무' 작품 141을 들려준다.

첫 곡인 로시니 최후의 오페라 '빌헬름 텔' 서곡은 아들의 머리에 얹힌 사과를 명중시키고 압정을 일삼던 오스트리아 총독을 활로 쏘 죽여 스위스 독립의 도화선을 제공했다는 '빌헬름 텔'의 전설을 내용으로, 대체로 가볍고 익살스러운 분위기인 로시니 전작과는 달리 합창과 발레가 포함된 대단히 장대한 곡이다. 새벽, 폭풍, 목가, 스위스 독립군의 행진 등 4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스위스의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지난 2월과 5월 웰빙콘서트에서 연주했던 비발디의 '사계' 중 '봄', '여름'에 이어 연주되는 '가을'은 춤과 노래로 수확의 기쁨을 노래하는 마을사람들을 표현한 1악장과 수확과 축제가 끝난 다음의 달콤한 잠을 부드럽고 고요한 현악기로 연주하는 2악장, 그리고 날이 밝아 사냥에 나서는 사냥꾼의 모습을 활기차게 그린 3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곡인 레스피기의 '로마의 소나무'는 로마의 분수, 로마의 축제와 더불어 로마 3부작으로, 로마의 유서깊은 소나무 네 그루를 소재로 고대 로마의 향수와 환상을 그린 작품이다. 특히 이 작품은 '로마의 분수'에서 다소 미숙했던 관현악법과 드뷔시적 인상주의 기법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으며, '로마의 축제'처럼 지나치게 묘사풍으로 흐르지 않으면서도 시적 정서와 섬세한 감각이 세련되게 표현되어 있어 레스피기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협연자로 무대에 서는 박혜령은 현재 부산예술고등학교 3학년으로, 2004년 부산음악협회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중학생부 1위, 부산예술고등학교 음악콩쿠르 1위, 2005년 부산음악협회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고등학생부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 입장료 : 균일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1인 4매에 한해 20% 할인해드립니다.)

■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3),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07 한여름 밤의 춤 작품전
 - 사랑의 세 가지 그림자 -
 8월 23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해학 넘치는 마당춤관 '선녀와 나무꾼'으로 시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한 부산시립무용단이 8월 23일 단원들의 열정적인 창작무대 2007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한여름 밤의 춤 작품전'을 마련한다.

올해는 시립무용단 총무 서정숙과 단원 오숙례, 이현주가 자신의 춤 작품 세계를 그려낸다. 이번에 선보이는 세 작품은 아버지, 연인, 자신에 대한 각기 다른 사랑의 모습을 담은 창작무대이다.

첫 무대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린 총무 서정숙의 '그네'로 연다. 늘 사랑으로 있어주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춤으로 담아낸 '그네'는 지쳐 늘어진 팔다리를 뺏어 자식들을 감싸 안는 아버지의 크고 단단한 '그네'를 떠올리며 아버지의 사랑을 돌이켜 보는 무대이다. 사람(Human Projector) 대표 하현관이 대본과 무대미술을, 서정숙이 안무를 맡았고 서정숙, 하현관이 직접 출연한다. 안무자 서정숙은 신라대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시립무용단에 입단, 그동안 창작무용 '생의 두갈래', '비천', '인어의 숲', '까치와 장승' 등을 발표해왔다.

두 번째 무대는 연인의 사랑을 담은 이현주의 창작 작품 '나소나'. '나소나'는 '사랑하다'의 순우리말이다. 한국 춤을 추는 여자와 팝핀 추는 남자, 춤으로 서로의 사랑을 말하는 두 연인의 사랑을 담아낸 이 작품은 권희영의 대본을 이현주가 안무를 하고 직접 출연한다. 특히 이번 무대는 댄스팀 XTC 소속 최준호가 팝핀 추는 남자로 출연하고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김윤호가 생음악을 연주하여 새로운 창작무대를 열어준다. 부산대학교 무용학과를 졸업하고 부산시립무용단에 입단한 이현주는 그동안 창작무용 '절로 부는...', '선묘화'를 발표했다.

마지막 무대는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 오숙례의 '하얀 이별'로 장식한다. '하얀 이별'은 자신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예언하듯 보다 나은 삶으로의 염원을 위한 춤으로 나타낸 작품이다. 안무자 오숙례를 비롯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정진희, 황선희, 김진영, 윤은하, 이창규가 출연하고 오륙도 무용단 단원 최필선, 김복실, 박성화, 신서련이 우정출연한다. 남원시립국악원 단원을 역임한 오숙례는 중요무형문화재 제 97호 살풀이춤 이수자, 오륙도 무용단 단장으로 우리 춤의 맥을 잇고 있다.



서정숙 '그네'



이현주 '나소나'



오숙례 '하얀 이별'

■ 균일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무용단(607-6118, www.koreanfolkdance.com)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8월 28일 화요일 오후 8: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우리 음악의 멋과 아름다움을 선보이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오는 8월 28일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특별한 음악여행을 떠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도되는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박호성의 지휘로 그동안 음악회에서 자주 접할 수 없었던 레퍼토리와 협연자들로 다채롭게 펼쳐진다.

공연 타이틀만큼 시원하고 열정적인 무대를 위해 요들송의 대부인 김홍철과 인기가수 마야, 한류의 중심으로 떠오른 현대 B-boy와 전통 B-boy의 만남 등을 기획, 여름밤에 잊을 수 없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1부에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고 그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갈등과 욕망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김선제 작곡의 창작관현악 '아름다운 인생', 피리 협연으로 연주할 오혁의 시원한 여름을 위한 '코사무이', 김홍철과 친구들의 시원한 요들송으로 알프스의 맑은 물과 아름다운 산의 정취를 선물한다.

코사무이는 태국어로 깨끗한 심이라는 뜻이다. 시원한 여름을 위한 '코사무이'는 긴 여정 속에 한나절 고요히 잠들며 쉬고 싶은 태국의 섬 코사무이를 동경하며 작곡된 곡으로 관현악과 태평소의 조화가 어울리는 곡이다. 피리 협연을 할 김용우는 1984년 영남대학교 음악콩쿠르 대상을 수상하고 현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동해안 별신굿 태평소 이수자로 우리 음악의 맥을 잇고 있다.

김홍철과 친구들은 1983년 결성된 이후 홍콩, 스위스, 일본, 오사카, 히로시마 등에서 폭넓은 연주활동을 하다 잠시 주춤, 2003년 재결성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부 첫 무대는 자신만의 색깔과 자신만의 음역을 선보이는 가수 마야의 열창무대로 연다. 락과



박호성



김용우



마야



박성희

국악의 만남으로도 기대가 큰 이번 무대에서 마야는 진달래꽃, 못다핀 꽃 한송이, 나를 외치다로 우리 가락과 락의 절묘한 어우러짐을 이끌어낸다. 마야는 2003 KBS 가요대상 수상, 연기대상 신인상, 2003, 2005, 2006 SBS 가요대전 락상을 수상했다.

마지막 무대는 세계의 정상, 한류의 중심으로 떠오른 현대 B-boy와 전통 B-boy의 만남의 무대로 장식한다. 3월 신춘 음악회에서 처음으로 시도해 폭발적인 사랑을 받은 B-boy와 사물놀이의 만남은 'B-boy, Rapper, Beat box와 풍물과 구음'이 만나는 파격적이고 도전적이며 실험적인 무대이다. 이 곡은 풍물놀이 협연 곡으로 호남지역의 좌, 우도 농악 가락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변형리듬을 혼용한 곡으로, 부정놀이 장단과 칠채, 육채, 오방진 장단을 곳곳에 삽입시켜서 풀고 죄는 맛을 가미하였고, 특히 모듬북이 중심리듬을 연주하도록 하였다.

현대 B-boy를 대표해 B-boy 'TIP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호흡을 맞추고 전통 B-boy를 대표해 버슴새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호흡을 맞춘다. 1996년 결성된 TIP(Teamwork Is Perfect 대표 황대균)는 비보이 챌린지 vol. 5 우승을 비롯 푸마 코리아 비보이 유닛 vol.1 준우승, vol.2 우승, vol.5 우승, vol.6 준우승, 스웨덴 슈퍼잼 게스트 스웨덴 2:2 배틀대회 우승, 영국 유케이 챔피언 한국 최초 우승 등 많은 화제를 몰고 다니는 세계 최강팀이다.

버슴새 예술단은 가, 무, 악이 가능한 전통 예술단으로 2002 부산합창올림픽대회 개막식 공연, 아·태 장애인 경기대회, 2003 아시안게임 1주년 축하 공연 등 다양한 무대 활동을 해왔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박성희의 구음과 현대 B-boy와 전통 B-boy이 뽐어내는 한 여름밤 열정의 무대에 기대가 크다.



김홍철과 친구들



B-boy TIP



버슴새 예술단

■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 A석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R석, S석에 한해 1인 4매 30% 할인)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대극장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 합창단 연합공연

칼 오르프의
카르미나 부라나 전곡

21일 화요일 오후 7:30



매년 여름 부산, 경남의 3개 시·도합창단이 마련하는 연합공연.

올해는 부산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 진주시립합창단이 독일이 자랑하는 현대작곡가 칼 오르프의 카르미나 부라나를 웅장하고 장엄한 3개시도의 연합합창으로 들려준다. 전 25곡에 이르는 카르미나 부라나는 세속 칸타타이면서도 모든 이의 마음을 감동으로 이끌기에 부족함없는 명곡이다.

- 지휘/김강규(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 솔로/소프라노 김유선, 테너 광성섭, 바리톤 박대용
- 반주/팝엔 퍼커스, 피아노 이승윤, 이경미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엘빙 콘서트'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22일 수요일 오전 11:00, 오후 4:00



창의력 넘치는 아이디어와 재치 있는 언변으로 클래식 음악이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청중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 지휘자 금난새가 들려주는 '클래식은 내친구'.

새가 들려주는 '클래식은 내친구'.

'클래식은 내친구'는 매 공연마다 전석 매진의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청소년음악회이다.

프로그램

- 로시니/ '빌헬름 텔' 서곡
- 비발디/ '사계' 작품 8 중 '가을'
- 레스피기/교향시 '로마의 소나무' 작품 141
- 지휘 및 해설/금난새
- 협연/박혜령(마림바, 부산예술고등학교 3년)

입장료 균일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국제신문 창간 60주년 기념

국립발레단과 함께 하는
발레리노 김용걸 초청공연

백조의 호수 Swan Lake

25일-26일 토요일 오후 7:00,
일요일 오후 4:00



동양인 최초 파리로페라 발레단 솔리스트로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발레리노 김용걸과 국립발레단이 선보이는 발레 '백조의 호수'.

1997년 모스크바국제발레콩쿠르에서 동상 수상을 시작으로 1998년 파리국제무용콩쿠르 듀엣부문 1등을 차지하며 한국 발레 정상에 우뚝 선 김용걸은 힘찬 움직임과 섬세한 연기로 관객의 마음을 뒤흔든다.

- 예술감독/박인자
- 음악/차이코프스키
- 안무/유리 그리가보비치
- 연주/코리안심포니 오케스트라

입장료 VIP석 100,000원 · R석 70,000원 · S석 50,000원 · A석 40,000원 · B석 3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5%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70),
예술기획(0505-700-9798),
국제신문 문화사업부(500-5222)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28일 화요일 오후 8:00



우리음악의 멋과 아름다움을 선보이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아주 특별한 여름 국악여행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도되는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는 무더운 여름 더위를 잊을 수 있는 흥겨운 우리 가락으로 열정의 무대를 열어준다.

올해는 김홍철의 요들송, 인기가수 마야와 국악관현악단과의 만남, 현대 B-boy와 전통 B-boy의 만남의 무대로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프로그램

- 김선제/창작관현악 '아름다운 인생'
- 오혁/시원한 여름을 위한 '코사무이'
- 김홍철과 친구들의 시원한 요들송/즐거운 산행길, 아름다운 산장, 아름다운 스위스 아가씨

마야의 대중가요/진달래꽃, 못다핀 꽃 한송이, 나를 외치다

B-boy와 Rapper, Beat box, 그리고 풍물과 구름

· 지휘/박호성(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 협연/김용우(피리), 김홍철과 친구들(김홍철 외 4명), 마야(가수), B-boy 'TIP'(Teamwork Is Perfect 대표 황대균 외 10명), 버숨새 예술단(대표 박현호 외 7명), 박성희(구름)

입장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R석, S석 1인 4매 30%할인)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제 13회 신정희 발레단 공연

Deux Coppelia

29일 수요일 오후 7:30



낭만주의 발레의 마지막 작품으로 평가받는 발레 '코펠리아'를 새롭게 구성한 신정희발레단의 'Deux Coppelial'.

1870년에 파리

에서 초연된 '코펠리아'는 인형 작가 코펠리우스가 만든 인형 코펠리아를 질투한 프란초의 약혼녀 스와닐다가 코펠리아가 인형인 것을 알고 그 의상을 입고 코펠리우스를 희롱한다.

이번 무대는 특히 원작에서 1명으로 등장하는 코펠리아를 두 명의 코펠리아로 등장시켜 극의 재미를 한층 더해 준다. 유니버설 발레단과 세계 무대에서 활약 중인 주연 배우 서라벌, 정두순, 김선희가 출연한다.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경성대학교 무용학과(620-4964), 예은예술기획(632-6904)

Feel the Legend of Musical 뮤지컬 웨스트사이드스토리

9월 1일-2일 토요일 오후 4:00, 8:00 일요일 오후 3:00, 7:00

뮤지컬을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브로드웨이 정통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부산 공연.

1957년 9월 브로드웨이에서 상연되어 당시 734회 공연의 장기 흥행기록을 세운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줄거리를 패러디하여 현대적으로 각색, 종래의 뮤지컬 정석을 깨고 시적인 요소와 춤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연출을 시도하였다.

- 제작/서울뮤지컬컴퍼니
- 연출/이원중
- 무용감독/서병구
- 음악감독/최재광

출연

윤영석, 송용태, 홍록기, 소냐, 장현덕, 김아선, 유나영, 김소향, 김덕환, 윤덕선, 배준선, 이태희

입장료 VIP석 80,000원 · R석 70,000원
S석 60,000원 · A석 50,000원
B석 4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AN시티(1644-4484, www.anticket.co.kr)

솔오페라

유럽 오페라단 주역 가수 초청 오페라 갈라 콘서트

9월 3일 월요일 오후 7:30

유럽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역 가수들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음악의 향연.

에리카 괴트 성악콩쿠르 1위, 로베르트 슈



틀츠 콩쿠르 관객상, 브레머하펜 관객상을 수상하고 2005년까지 도르트문트 오페라 하우스에서 활동한 부산출신의 소프라노 박은주, 프랑코 코렐리 국제 성악 콩쿠르, 벨기에 베르비에 성악 콩쿠르, 마리아 칼라스 콩쿠르와 티토 스키파 콩쿠르에서 차례로 우승을 차지하고 2008년 한국인 테너로는 최초로 이탈리아 밀라노의 라 스칼라 극장 무대에서는 테너 이정원, 세계 3대 오페라단의 하나로 꼽히는 베를린 도이체 오페에서 한국인으로는 현재 유일하게 전속 가수로 활동 중인 테너 요셉강, 하노버 국립극장 주역가수로 활동 중인 바리톤 유진호가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났다.

입장료 VIP석 100,000원 · R석 80,000원 ·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B석 20,000원 · 학생석 10,000원

문의 솔오페라단(1544-9373)

중극장

부산국제해변무용제

4일 토요일 오후 7:30

부산의 여름 바다를 배경으로 화려하게 펼쳐지는 부산국제해변무용제 무대공연.

7월 31일 개막을 시작으로 8월 6일까지 10개국 33개 팀이 '꿈의 바다로... 축제의



선택은 한번, 감동은 영원히...

가족처럼 늘 가까이 **야마하**가 함께 합니다

야마하 공식 A/S점



부산 야마하 피아노 악기

- 양정 본점 : 051) 863-0900
- 롯데백화점 부산점 6층 : 051) 816-0089
- 사직동 아울러스 : 051) 506-7332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감동으로' 라는 주제에 맞는 화려한 무용 축제를 펼친다. 8월 1일~3일까지 광안리 특설무대공연에 이어 8월 4일은 무대공연으로 수준 높은 세계 각국의 춤사

위를 만날 수 있다.

프로그램

- 일본 Makoto Cluv 'Nipponia Nippon'
- 중국 YUWEI Dance Collection 'Water'
- 한국 SIN DANCE '남자 그리고 1, 2, 3'
- 한국 김진홍전통춤연구회 '지전춤'
- 아일랜드 Dance Theater of Ireland 'Soul Survivor'

입장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일반석 10,000원 · 학생석 7,000원

문의 부산국제해변무용제 추진위원회
(642-0943)

그랜드오페라단

환상과 마법의 가족오페라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10일~12일 금요일 오후 4:00
토요일 오후 2:00, 5:00
일요일 오후 5:00



여름방학을 맞아 그랜드 오페라단이 어린이와 가족 관객을 위해 마련하는 오페라 '마술피리'.

모차르트의 천재적인 감성과 유머가 돋보이는 독일 최고의 걸작 오페라 '마술피리'를 쉬운 우리말로 번안, 각색하고 원전의 무겁고 지루한 부분을 과감하게 덜어내 재미를 더해준다.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무대 뒤쪽의 분장, 조명, 의상, 무대장치 등을 둘러보는 신나는 문화체험 Backstage Tour와 페이스 페인팅, 공연감상문 쓰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열린다.

- 연출/안지환(신라대 음악과 교수, 그랜드 오페라단 단장)
- 협력연출/안주은(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국립극장 조연출)
- 무대디자인/전성중(청강문화대학 교수)
- 의상디자인/양재영(청강문화대학 교수)
- 드라마투르기/오계영

출연

전병호, 광성민, 박현정, 이경희, 고예정, 김한나, 이승우, 임성욱, 구현정, 김소영, 성미진, 김은실, 김정화, 박동운 외

입장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학생석 1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그랜드오페라단(610-1004)

레이디스 필 앙상블
청소년해설음악회

13일 월요일 오후 4:00, 7:30



섬세하고 부드러운 실내악 특유의 아름다움과 여성적인 서정성이 잘 어우러진 품격 있는 연주로 사랑받고 있는 레이디스 필 앙상블이 들려주는 청소년해설음악회.

부산시립교향악단 김은정(바이올린), 최방주(바이올린), 한아름(바이올린), 양혜원(바이올린), 최영화(비올라), 박소영(비올라), 전수정(첼로), 임미형(더블베이스), 이은정(피아노)으로 구성된 레이디스필 앙상블은 단원 개개인의 우수한 기량은 물론,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해 온 깊은 우정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무대를 열고 있다.

프로그램

-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인형' 중 '갈대 피리의 춤', '꽃의 왈츠'
- 쇼스타코비치/재즈 오케스트라 모음곡 중 '왈츠'
- 하이드리히/생일 축하 연주곡
- 몬티/차르다시
- 하차투리안/ '가인스' 중 '칼의 춤'
- 비발디/ '사계' 중 '가을'
- 박범훈/가야금 협주곡 '새산조'

- 지아조토/알비노니의 아다지오 등 수곡
- 해설/이동신(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 가야금/김효진, 김윤정, 윤지유(로사 가야금 앙상블 단원)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레이디스필앙상블
(607-6103, 011-9771-2367)

노엘 남성중창단 특별연주회
'비교음악회'

14일 화요일 오후 7:30



여름방학을 맞아 노엘남성중창단이 청소년들의 음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특별히 마련하는 무대로 평소 즐겨 듣던 음악을 남성중창과 혼성 합창, 소프라노, 앨토, 테너, 베이스 각 파트로 연주, 음색과 그 느낌을 비교해본다.

프로그램

- 흑인영가/Steal a way, 깊은강, 너 용기 잃지 마라
- 헨델/하나님께 찬송드리자, 왕께 찬양해
- 이수인/내 맘의 강물 등 수곡
- 해설/송필석
- 솔로/소프라노 김은수, 앨토 조기욱, 테너 강중철, 바리톤 최성규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최성규(011-564-3439)

아코르 청소년 관현악단
제 5회 정기연주회

15일 수요일 오후 6:00

2002년 9월, 음악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청소년들로 창단된 아코르 청소년 오케스트라 제 5회 정기 연주회.

아코르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생에 이르는 단원 71명(일반단원 59명, 명예단원 18명)이 활동하고 있다.

프로그램



모차르트/협주곡 제 5번 가장조 K.219
 모차르트/교향곡 제 40번 사단조 K.550
 아코르와 함께하는 영화음악/The Whole
 Nine Yards(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 A Lover's Concerto(영
 화 '접속')

- 지휘/정홍기
- 협주/이영지(사직여중1, 바이올린), 박은
 성(연천중 3, 클라리넷)

입장료 무료

문의 아코르 청소년 관현악단(759-1648,
 011-564-9258)

부산원드오케스트라 매직 브라스

16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원드오케스트라가 여름방학을 맞아
 금관악기의 매력을 담은 '매직 브라스' 무
 대로 청소년들과 만나다.

드미트리 로카렌코프(트럼펫 I)를 비롯 안
 명기(트럼펫 II), 정선화(트롬본), 송인봉
 (튜바), 조용길(세트 드럼) 등 부산시립교
 향악단 금관 5중주단과 신라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마산시립교향악단 지휘자
 백진현이 호른을 연주, 신비로운 브라스 음
 악을 들려준다.

- 특별출연/YMCA 소년소녀합창단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윤두현(011-582-8480)

한국음악협회 부산지회 2007 신인음악회 '한 여름 밤의 음악 산책' 17일 금요일 오후 7:00

한국음악협회 부산지회 임원, 분과위원장
 추천으로 선정된 뛰어난 재원들과 함께하는
 한국음악협회 부산지회 2007년 신인음악회
 '한 여름 밤의 음악 산책'.

프로그램

베르디/오페라 '해적' 중 '그는 여전히 웃
 지 않는다'

김계옥/궁 타령의 멋

리스트/단테 소나타 등 수곡

연주

이슬비(소프라노), 박예니(플루트), 최주실(가
 야금, 부산가야금연주단 단원), 신지아(피아
 노), 황윤원(클라리넷), 배웅철(바리톤), 김희
 정(바이올린)

- 해설/송필석

입장료 균일 5,000원

문의 한국음악협회 부산지회(634-1295)

제 35회 부산의, 치대 관현악단 정기연주회 19일 일요일 오후 7:30

1973년 부산의대 실내악단으로 출발한
 부산대 의치대 관현악단의 제 35회 정기연
 주회로 의학수업 중 틈틈이 연습하며 음악
 을 생활화하고 있는 아마추어 음악인들의



열정을 만날 수 있다.

프로그램

비제/아를의 여인 모음곡 제 2번 중 4악장
 라흐마니노프/피아노 협주곡 제 2번 다단조
 작품 18

베토벤/교향곡 제 7번 가장조 작품 92

- 지휘/김상철(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 협연/박홍준(부산의치대관현악단 33기)

입장료 무료

문의 염정인(011-9332-0096)

2007 제 3회 The Great Ensemble of KNUA 전국투어 콘서트 20일 월요일 오후 7:30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 연주자 윤유진,
 조혜운, 배은진, 김원정으로 구성된 크누아
 앙상블 전국투어콘서트.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젊은 아티스트들이

since 1955



MUN WOO DANG BOOK STORE
 www.mwdangbook.com

문우당서점

Tel: 245-3843(대표)

245-2714(공연문의)

자갈치시장정문 아지탑앞

(미니불 건너편)

각종 공연에매처

평도원타지어, 경주월드, 평안리미월드 연중계속 예매

52년의 양심경영 앞으로도 이어가겠습니다!!

대형종합서점(지하 1~5층) 최대의 종합지도센터

지금부터~3월까지의 캘린더
 그 이후로는 「세계지도」 기타, 선물
'2007' 세계지도캘린더 증정

- ❖ 문우당서점 회원카드로 문우당서점과 CGV
 영화관까지 공용적립(회원카드 무료발급)
- ❖ 가마골소극장 특정요일할인(50~20%)

책 읽는 사람이
 아름답다!



충별 : 만남과 휴식공간
 (커피 · 코코아 각 100원)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방향을 맞아 청소년들과 클래식을 어려워하는 청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주자들이 작곡 배경과 악기에 대해 설명하며 그 음악을 접하는 음악가의 견해를 함께 나눈다.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3중주 내림
나장조 작품 11 '가뻐하우어'

헨델-할보손/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파
사칼리아

브람스/피아노 4중주 제 1번 사단조 작품 25
연주

윤유진(피아노, 현 한국예술 종합학교 및 인제
대학교, 부산예고, 브니엘고, 부산예중 강사),
조혜운(바이올린, 뉴저지필하모닉오케스트
라 수석, 보스턴대학교 박사 과정중), 배은
진(비올라, Joy of Strings 비올라 수석)
김원정(첼로, NEC 석사, 최고연주자과정)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사)부산문화(633-8990)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07 한 여름밤의 춤 작품전

-사랑의 세 가지 그림자-

23일 목요일 오후 7:30



서정숙 이현주 오숙례

부산시립무용단원들의 열정적인 창작춤
무대 2007 한여름밤의 춤 작품전.

올해는 시립무용단 총무 서정숙과 단원
이현주, 오숙례가 아버지, 연인, 자신에 대
한 각기 다른 사랑의 모습을 춤으로 담아
낸다.

프로그램

서정숙 '그네' (안무/서정숙 대본 · 무대미술
/하현관 · 출연/서정숙, 하현
관)

이현주 '다소다' (안무, 출연/이현주 · 대본/
권희영 · 생음악/김윤호 · 특별출연/
최준호)

오숙례 '하얀 이별' (안무/오숙례 · 출연/오
숙례, 정진희, 황선희, 김진영, 윤은
하, 이창규 · 우정출연/최필선, 김복

실, 박성화, 신서련)

입장료 균일 5,000원

문의 부산시립무용단(607-6118, 6120)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키타큐슈 소년소녀합창단 초청
'추억만들기'

24일 금요일 오후 7:30



일본 후쿠오카교육대학교 교수, 전 일본
합창연맹 후쿠오카현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와자키 요우이치가 지휘하는 키타큐
슈 소년소녀합창단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
단의 합동연주회.

프로그램

포레/키리에

박지훈/글로리아

Music! Music! Music! - Brenie Baum
뮤지컬 '애니' 중에서 '꿈은 이루어
어지네' 뮤지컬 '그리스' 중에서
'우리 함께 가요'

일본민요/나쁘노 오모이데

한국민요/밀양아리랑 등 수곡

· 지휘/배정행, 이와자키 요우이치

· 반주/이영욱

· 지도/노금선(안무, 김양자(합창))

입장료 균일 2,000원

문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6131)

2007년 무대공연작품 - 남산놀이마당

전통 연희로 그려본 우리민족이야기
사신도(四神圖)

26일-27일 일-월요일 오후 7:00

고대의 우리민족이 지니고 있었던 음악오
행사상과 원시적 토LEM리즘, 영혼불멸사상이
깃든 내세관을 전통연희의 극적인 형태로
반영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전해오던 잠
재적 내세관을 표현한 남산놀이마당 2007



년 무대공연작품.

특히 이번 작품은 그동안 남산놀이마당이
실험적으로 가져왔던 작품의 총체로서 풍
물, 굿, 춤, 연극적 요소를 총망라하여 표현
한 '창작 풍물굿' 공연이다.

입장료 일반 12,000원 · 학생 8,000원

문의 남산놀이마당

(516-4434, 016-856-4434)

신타요가연구회 제 4회 정기공연
요가와 예술의 만남

28일 화요일 오후 7:00



신타요가연구회에서 마련하는 요가와 예
술의 만남 네 번째 무대.

특히 인도 명상수행자들이 직접 방한하여
음악명상을 함께 선보인다.

프로그램

부루요가원의 '어린이 요가', 박금숙요가원
의 '협동', 사회체육센터 '정화', 윤한우
'실버요가', 인도명상수행자들 '바잔' 등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최수정(010-7979-4018)

김은진 비올라 독주회

29일 수요일 오후 7:30

차분하고 깔끔한 음색을 지닌 연주자로
평가받고 있는 비올리스트 김은진의 독주회.
서울대학교 졸업 후 독일로 유학, 국립음
악대학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2005



년 귀국한 김은진은 귀국 후 부산심포니 오케스트라, 부산신포니에타 등과 협연하여 독주악기 비올라의 매력을 들려주었다. 김은진은 독일에서

Suedwestfaelischen Philharmonie, Neue Philharmonie Westfalen 단원, Junge Oper Stuttgart 수석단원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프로그램

슈만/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아다지오 알레그로 작품 70
브람스/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1번 바단조 작품 120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클래식포인트(521-5729, 010-9142-5729)

제 12회 고신의대관현악단 정기연주회

30일 목요일 오후 7:30



1993년 창단한 고신의대 관현악단이 들려주는 제 12회 정기연주회.

고신의대 관현악단은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백혈병 아동들을 위한 작은 연주회, 소아병동 어린이를 위한 캐롤 연주회 등을 가지면서 음악을 통한 사랑을 펼쳐왔다.

프로그램

베토벤/에그몬트 서곡
생상/첼로협주곡 제 1번
베토벤/교향곡 5번 '운명'
· 지휘/황장수
· 협연/정성의(첼로)

입장료 무료
문의 단장 윤기운(010-2319-3117)
악장 이형주(011-860-2966)

최정순 교수 정년기념 연주회

31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사범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1977년부터 부산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많은 인재를 배출해낸 피아니스트 최정순 교수 정년기념 연주회.

최정순은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학장, 부산 피아노 연주가 클럽 회장을 역임했다.

프로그램

모차르트/돈주앙(2piano- 8hands)
드보르작/전설(2piano- 8hands)
리스트/헝가리안 랩소디
무소르그스키/전람회의 그림 등 수곡

입장료 초대
문의 노은주(016-565-9780)

이라희 바이올린 독주회

9월 2일 일요일 오후 7:30



2004년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원 졸업하고 귀국하여 귀국독주회를 가진 이라희의 두번째 독주회.

연주회 타이틀 '열정 Passion' 에 맞추어 바이올린 레퍼토리를 선곡하여 연주한다.

1부에서는 북유럽 노르웨이의 열정과 서정성 그리고 낭만을 담고 있는 그리그의 바이올린 소나타 제 3번, 2부에서는 바이올린 음악의 열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집시음악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그리그/바이올린 소나타 제3번 작품45
라벨/치간
몬티/차르다스
사라사테/피고이네르바이젠
· 피아노/유영옥

입장료 초대
문의 이라희(010-4604-7040)

소극장

엄희정 피아노 독주회

23일 목요일 오후 7:30



브니엘 예중, 브니엘 예고, 인제대학교를 졸업한 엄희정의 피아노 독주회. 엄희정은 PBC 신인음악회, 화요음악회 등에 출연했다.

프로그램

바흐/평균율 클라비어곡집 제 1권 16번 사단조 작품 861
모차르트/피아노 소나타 2번 바장조 작품 280

볼링/센티멘탈 등 수곡
· 특별출연/김민지(플루트)

입장료 초대
문의 엄희정(010-3167-1554)

한국피아노지도자협회 2007 여름음악 페스티벌

25일-26일 토-일요일 오후 4:00

음악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고 보급하고 피아노를 지도하는 전공교사들을 재교육하고 있는 한국피아노지도자협회의 여름 특별 연주회.

한국피아노지도자협회는 매년 2회의 여름, 겨울 피아노페스티벌을 통해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클래식음악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대구, 울산 연주에 이어 부산에서 일반 대중들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진 비중 있는 클래식 곡을 쉽고 재미있게 들려준다.

프로그램

룻시니/피아노 연탄곡으로 편곡된 윌리엄 텔 서곡
베토벤/전원교향곡 제6번 바장조 작품 68
모차르트/교향곡 제 40번 사단조 1악장
J.스트라우스 11세/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등 수곡
· 특별출연/유명숙(소프라노), 고충진(클레식기타리스트)

입장료 무료(선착순)
문의 박선연(011-9508-6846)

- __음악
- __연극
- __무용
- __아동극
- __영화
- __콘서트
- __행사
- __전시

● 주요문화공간

- 가람아트홀(626-6664)
- 가마골소극장(245-0042)
- 가톨릭센터(462-1870)
- 경성대학교 콘서트홀(620-4561)
- 금정문화회관(519-5651)
- 글로벌아트홀(505-5995)
- 늘원아트홀(631-0660)
- 너른소극장(622-3572)
- 동래문화회관(550-4481)
- 동보서적 문화홀(803-8000)
- 동서대학교 소향아트홀(320-1209)
- 동아대학교 석당홀(240-2651)
- 동의대학교 석당아트홀(890 1001)
- 미리내소극장(504-2044)
- 민족극터 신명천지(515-7314)
- 부산민주공원(462-1016)
- 부산사회체육센터(744-1181)
- 부산시민회관(630-5200)
- 부산전시컨벤션센터(740-7300)
- 실천무대 소극장(245-5919)
- 엑터스소극장(611-6616)
- 열린소극장(555-5025)
- 울속도문화회관(220-5321~4)
- 추리문학관(743-0480)
- 프랑스문화원(465-0306)
-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 40계단문화관(600-4041)
- KBS부산홀(620-7100)
- MBC아트홀(760-1000)
- SH공간소극장(621-8518)

(※ 가나다순)

음악

금정수요음악회

여름방학 특집 청소년 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일 청소년과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음악회-신비의 악기 오카리나 이야기

오카리나 연주자 박종근, 홍화정, 신영숙, 정금미와 교사오카리나합주단 바운스앙상블이 들려주는 신비한 오카리나 음악의 세계.

■8일 부산청소년국악관현악단이 들려주는 우리음악이야기

부산예고와 브니엘예고, 부산대학교 국악 전공자들로 구성된 부산청소년국악관현악단이 들려주는 우리음악 이야기.

■22일 김화정과 친구들의 노래이야기

성악가 김화정과 그의 제자들이 마련하는 클래스 무대.

■29일 김수진, 김윤정 콤비음악회

작곡가 김수진과 피아니스트 김윤정이 당대 거장들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자칫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들의 음악을 편곡, 클래식음악의 이해를 돕는다.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2)

제 8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청소년 교과서음악회

2일 목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방학을 맞은 청소년을 위해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마련한 해설이 있는 교과서음악회.

프로그램

- 브리튼/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
- 도니제티/오페라 '사랑의 묘약' 하이라이트
- 차이코프스키/환상적 서곡 '로미오와 줄리엣'
- 지휘/오충근
- 협연/테너 광성섭, 바리톤 이다니엘, 소프라노 서경숙

라노 서경숙

입장료 일반 12,000원 · 청소년 8,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620-4917~8)

부산예술기획 나눔 27

한여름 밤의 콘서트

3일 금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귀에 익은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 팝송과 가요가 한데 어우러진 열정의 무대.

· 출연/유명숙(소프라노), 강재권, 강재석(바리톤), 이수열(가수), 박성수(색소폰), 이현주(피아노), 장덕환(재즈피아노)

입장료 일반 20,000원 · 중고생 5,000원

문의 부산예술기획(016-9317-4728)

청소년과 함께하는

이장호 바이올린 독주회

3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학구적인 자세로 진지한 음악을 들려주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장호 독주회.

부산대학교와 오스트리아 빈시립음대, 독일 트로싱겐 음대를 졸업한 이장호는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 크로노스앙상블 단원, 뮤젠앙상블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프로그램

모차르트/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듀엣
문티/차르다스

드보르작/소나티네 사장조 작품 100 등
· 협연/이성호(비올라) · 피아노/이주연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이장호(011-830-4770)

영 필하모니오케스트라(부산 · 서울연합)
제 15회 정기연주회- 안익태의 나라사랑

한국 환상곡의 밤

4일 토요일 오후 7:00
시민회관 대극장



1997년 서울, 부산지역 초·중·고교 단원 100여명으로 결성된 영 필하모니오케스트라(부산·서울연합)가 들려주는 한국 환상곡의 밤.

- 지휘/김현경
- 사회/최동호(전 KBS 부사장, 보도본부장)
- 특별출연/박세원(테너, 서울대학교 교수), 박종관(오보에,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 협연/손혜원(덕문여고 1년), 박인영(당리중 2년), 정찬우(학사초등 4년), 김효연(신도초등 4년)

입장료 초대
문의 정동화(017-587-8994)

PBC 화요일음악회 2007 여름음악축제

매주 화요일 오후 4:00, 7:30(28일은 오후 7:30) 가톨릭센터 소극장

■7일 피아니스트 공소현, 김미현의
4Hands

경성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독일 로스토크국립음대를 졸업한 공소현과 동아대학교 음악학부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김미현이 들려주는 피아노 듀오무대.

■14일 소프라노 권선아, 조영희
조인트 리사이틀

경성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권선아와 숙명여자대학교 음악학과, 경성대학교 음악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조영희가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 등을 들려준다.

- 트럼펫/이용하
- 21일 국악트리오 진달래 초청연주회
진민진(아쟁), 신선영(피리), 이인경(해금)으로 구성된 국악트리오 진달래 초청연주회.
- 28일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 특별초청연주회



이반 네델체프(호른),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안명기(트럼펫), 정선화(트롬본), 송인봉(튜바), 조용길(세트 드럼)로 구성된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 특별초청연주회.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가톨릭센터(462-1870)

제 12회 부산바다축제 열린바다 열린음악

8일 수요일 오후 7:30
광안리해수욕장 특설무대

해당도시 부산을 알리는 대표적인 여름축제인 부산바다축제를 축하하는 열린음악회. 국내외의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 뮤지컬 넘버곡 등 다양한 연주곡으로, 한여름 밤 시원한 무대를 선사한다.

· 연주/뉴프라이모케스트라

· 협연/소프라노 최문정,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테너 전병호, 바리톤 김종화, 팸페리가수 박완

입장료 무료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해설이 있는 가족오페라 마술피리

9일-12일 목-일요일 오후 4:00,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모험과 환타지의 극적 구성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대사로 재구성, 온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가족오페라 모차르트 '마술피리'.

· 연출/김성경
· 출연/양승엽, 윤현숙, 김나정, 구형광, 오세민, 권미경, 김정권, 권유진 외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문의 오페라제작소 밤비니 (010-5580-3902)

부산클라리넷콰이어와 함께하는 한여름 밤의 음악여행

14일 화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친근한 멜로디와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주는 한여름 밤의 음악여행.

프로그램
오펜바흐/ '천국과 지옥' 서곡



Glovil Art Hall
Recording Studio

가수 '비'가 녹음하고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감탄하는 국제 수준 어쿠스틱 연주홀 녹음홀 부산에 있습니다.
_글로빌아트홀

글로빌아트홀 2007년 하반기 대관 신청 중
공연/녹음/음반제작/제자발표/마스터클래스/세미나

GloVil Art Hall

607-063 부산광역시 동래구 운천3동 1243-21 기획팀
051+505+5995 | glovil@paran.com | www.glovil.org

부산시내 기타공연 · 전시



비발디/‘사계’ 중 ‘가을’

모차르트/피아노협주곡 작품 21 등 수록

· 지휘/정우영(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 협연/유영호(해금)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부산클라리넷콰이어

(011-583-2810, 011-574-3687)

오카리나 박은숙과 함께 하는
신나는 ‘교과서음악회’

14일 화요일 오후 7: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가나초등학교 교사이자 오카리나 교육연구회 회장인 오카리나 연주자 박은숙이 여름방학을 맞아 중·고등학생이 꼭 알아야 할 교과서에

나오는 연주곡을 들려준다.

· 특별출연/우경준(테너), 고충진(기타), 이승윤(피아노)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박은숙(011-9532-5759)

글로벌아트홀과 함께하는

여름방학 교과서 음악축제

14일(화), 16일(목), 18일(토), 21일(화), 23일(목), 25일(토) 오후

3:00, 5:00 글로벌아트홀

국제수준의 어쿠스틱 연주출연인 글로벌아트홀에서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한 여름방학 교과서 음악축제.

■14일 부산교사합창단과 함께하는 음악회
부산시내 초·중·고교 교사들로 결성된 부산교사합창단이 국내외 가곡 및 가요 등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 지휘/김강규 · 반주/박정호

■16일 리코더합주와 성악양상블

아울로스 리코더합주단과 글로빌콰이어가 들려주는 리코더 합주와 성악 양상블의 무대.

■18일 성악가 손금희, 김혜진, 차세대 바

이올리니스트 홍영은과 함께하는 음악회
소프라노 손금희, 메조소프라노 김혜진, 바이올리니스트 홍영은이 함께하는 성악과 바이올린 선율의 감미로운 무대.

■21일 기타줄 위에 춤추는 하모니카, 팬플룻

기타리스트 고충진, 하모니카 연주자 이성규, 팬플룻 연주자 손현줄이 들려주는 기타와 하모니카, 팬플룻의 이색만남.

■23일 바이올린과 첼로, 피아노를 위한
트리오



바이올리니스트 김동욱, 첼리스트 양옥진, 피아니스트 정성흠이 들려주는 트리오 앙상블의 밤.

프로그램

피아졸라/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
베토벤/피아노3중주 내림마장조 작품 1-1
브람스/왈츠 등 수록

■25일 톱연주와 성악의 만남

테너 신덕균과 글로빌콰이어, 톱연주가 구자봉이 함께하는 톱연주와 성악의 만남.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플라우탄도 쾰른 리코더
콰르텟 내한연주회

14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1990년 결성된 독일의 정통 리코더양상블로, 중세음악부터 현대곡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자랑하는 클라우탄도 쾰른 리코더 콰르텟은 이번 내한연주회에서 국내에서는 처음 연주되는 이태리, 영국 등 고음악과 일본의 현대음악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입장료 균일 20,000원

문의 한국리코더아카데미

(02-582-8714~5)

故 김연수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공연

동초소리와 새울타락의
아름다운 만남

15일 수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동초제 판소리의 창시자 동초 김연수 선생 탄생 100주년을 맞아 (사)동초제판소리 보존회 부산·경남지회가 마련한 기념무대.

· 사회 및 해설/최동철

· 출연/오정숙, 김청만, 김규형, 김은경, 권은영, 김정애 외

입장료 균일 20,000원

문의 (사)동초제판소리보존회 부산·경남지회(512-1616)

청소년을 위한 ‘마티나타’

연주회 -여름! 그 열정을 위하여

16일 목요일 오전 11: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바이올리니스트 김동욱, 김준영, 비올리스트 이기중, 첼리스트 양욱진, 피아니스트 정성흠, 더블베이스주자 조영훈이 마련하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프로그램

피아졸라/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 슈베르트/피아노 5중주 가장조 D. 667 '송어'

입장료 균일 7,000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청소년을 위한 정다운 음악회
한여름 밤의 클래식**

16일 목요일 오후 7:00
시민회관 대극장



클래식 연주와 시낭송, 아름다운 요들송으로 마련되는 청소년을 위한 정다운 음악회.

프로그램

슈베르트/피아노5중주 가장조 D.677 '송어' 리스트/헝가리광사곡 제 6번 내림라장조 스위스민요/바이에른이 처녀 등 수곡

·출연/비루투오 앙상블(백재진, 김은진, 정준수, 김은국, 노경원), 방현호(테너), 유영목(피아노), 전연희(시인), 부산알핀로제오델클럽

·사회, 해설/송필석

입장료 일반 7,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음악협회 부산지회(634-1295)

**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
제 1회 청소년을 위한
방학숙제 음악회**

16일 목요일 오후 4:00,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와 부산의 연주자들이 들려주는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지휘/손명균

·출연/김경, 임충진, 오동주, 김지호, 서명보(테너), 배수진(소프라노), 강희영(메조소프라노), 서숙지, 서양지(피아노), 문수경(바이올린), 손경균(색소폰), 황민규(클라리넷), 이재순(플룻)

입장료 균일 10,000원(전화예매시 20%할인)

문의 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

(016-9614-5228)

**2007 가람아트홀과 함께하는
8월의 기억**

18일(토)-19일(일), 22일(수)-26일(일) 오후 4:00, 6:00 가람아트홀

■18일(토)-19일(일) 로렘플룻앙상블과 춤의 대향연

로렘플룻앙상블과 현대무용가 박재현이 펼치는 클래식과 춤의 대향연.

■22일(수) 피아니스트 원영아와 떠나는 스크린 유럽여행

피아니스트 원영아, 강애린, 권경은, 차정은, 이해영, 전보라와 떠나는 음악 유럽여행.

■23일(목)-24일(금) 스위트디의

All Ask of You

구원모, 임연희, 김진아, 강송희, 김현지, 최다희로 구성된 달콤한 목소리 스위트디와 소프라노 황진용, 피아니스트 김윤정, 유영목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는 음악무대.

■25일(토)-26일(일) 파르텟 공유의 클래식 애니메이션

바이올리니스트 김성은, 하은영, 비올리스트 이정환, 첼리스트 박현영으로 구성된 파르텟 공유가 우리 귀에 익숙한 클래식곡과 애니메이션 주제곡을 들려준다.

입장료 균일 10,000원

(4회 전 공연 20,000원)

문의 가람공연기획(626-6664)

아현 제 26회 정기연주회

18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대학교 의 · 치대, 간호대 연합 클래식기타 동호회인 아현의 26번째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슈베르트/밤과 꿈

바흐/오케스트라 조곡 제 2번 BWV 1067

모차르트/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직 등 수곡

입장료 무료

문의 오영재(016-593-9083)

오카리나와 성악가의 만남

20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한국음악오카리나 협회 회장, 한국사 회교육원 오카리나 원장으로 있는 박종근과 부산지역 성악가와의 만남.

이번 무대에서는 박종근의 창작곡

온가족 신나는
바다속 여행!

대한민국 대표 해양테마파크
Busan Aquarium

전시 생물 수 400여종 35,000여 개체, 세계 각지의 열대 담수어와 해수어 등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부산아쿠아리움에서 신비로운 해저세계를 경험하세요

부산아쿠아리움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busan-aquarium.com * 행사 및 예약 문의 : 051-740-1700

부산시내 기타공연 · 전시

'Nostalgia of China' 'Picnic'과 유명 성악곡을 들려준다.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JK예술기획(016-9665-6535)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트럼펫 독주회

21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단원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드미트리 로카렌코프가 들려주는 경쾌한 트럼펫 선율의 세계.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JK예술기획(016-9665-6535)

제 17회 신동일의 작곡마당

21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에서의 창작 음악 영역을 넓혀 나가고자 지난해 출범시킨 '부산작곡마당'의 두 번째 무대.

백현주, 신동일, 오세일, 김수진, 김태환, 정보형, 김진아 등 작곡가 7명의 새로운 창작음악을 선보인다.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작곡마당(017-585-2052)

터키 안탈리아 국립교향악단 내한 협주곡의 밤

21일 화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한국, 터키 수교 50주년을 맞아 터키의 5대 국립교향악단 중 하나인 터키 안탈리아 국립교향악단이 청소년 유망주와 함께 들려주는 협주곡의 밤.

· 지휘/나지 외즈쿠즈
· 협연/이민강, 안하영, 장다운, 동지연(피아노), 외즈잔 울루진(바이올린)

입장료 R석 30,000원 · A석 10,000원
학생단체 6,000원

문의 클래식아트매니저(624-1991)

건반위의 낭만을 꿈꾸는 자유로운 영혼 피아니스트 박중훈 독주회

21일 화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이태리 산레모 클래식 국제 피아노콩쿠르에서 우승한 뒤 현재 이태리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중훈 독주회.

탄탄한 연주실력으로 평단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박중훈은 정통 클래식 뿐 아니라 뉴에이지, 재즈 및 크로스오버, 작·편곡 연주로 예술의 폭을 한층 더 넓혀가는 이 시대 진정한 멀티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다.

프로그램

쇼팽/발라드 제 1번, 2번, 3번, 4번
쇼팽/안단테 스피나타와 화려한 대 폴로
네이즈 내림마장조 작품 22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을숙도문화회관(220-5321~4)

뮤젠 '실내악 앙상블의 밤'

21일 화요일 오후 8: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바이올리니스트 이장호, 피아니스트 김민선, 첼리스트 박현영, 해금주자 윤해승으로 구성된 뮤젠앙상블의 실내악의 밤.

국악과 양악이 어우러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졸라, 카를로스 가르델의 탱고, 영화음악 등 청중들과 쉽게 교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입장료 VIP 20,000원 · R석 10,000원

학생 5,000원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영남필하모니오케스트라 청소년을 위한 방학숙제 음악회

22일 수요일 오후 4:00, 7:30
시민회관 대극장

영남필하모니오케스트라와 부산지역 성악가들이 들려주는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 지휘/손경균

· 출연/김경, 임충진, 오동주, 김지호, 서명보(테너), 배수진, 이영은(소프라노), 문수경(바이올린), 황민규(클라리넷), 김세진(오카리나)

입장료 균일 10,000원(전화예매시 20%할인)

문의 영남필하모니오케스트라
(010-8525-7816)

뉴프라이م 오케스트라 한 여름밤의 향연

22일 수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복지관, 병원, 학교, 기업체 등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시민들과 만나는 뉴프라이م 오케스트라와 한 여름밤에 떠나는 시원한 음악여행.

· 지휘/임준오

· 협연/동민칭(바이올린), 김경미(바이올린)

입장료 초대

문의 황성준(816-1104, 011-556-7308)

제 1076회 MBC 목요 음악회 동아원드오케스트라 초청 청소년 음악회

23일 목요일 오후 3:00, 7:30
시민회관 대극장



동아원드오케스트라를 초청, 우리귀에 익숙한 클래식곡과 영화음악 모음곡으로 마련하는 제 1076회 MBC목요음악회.

- 지휘/정우영
- 비보이 출연/경성전자정보고 Free-D

입장료 일반 10,000원 · 청소년 5,000원
문의 (사)문화도시네트워크(760-1494)

제 5회 챔 색소폰 앙상블 정기연주회

23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 KBS 챔버오케스트라 지휘자 정재영이 이끄는 챔 색소폰 앙상블은 지난 2002년 6월 창단한 후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 KBS 창작동요제, 부산바다축제, 금정수요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해왔다.

- 출연/정재영, 신정현, 김은경, 하성춘, 유동석, 남강택

입장료 일반 10,000원 · 청소년 5,000원
문의 챔색소폰앙상블(011-851-6574, 011-837-6282)

부산 클라리넷 콰르텟 한여름 밤의 팝스콘서트

24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우리나라 최초의 클라리넷 4중주 전문연주단체로 그동안 100여회가 넘는 다양한 무대를 통해 시민들과 만나온 부산 클라리넷 콰르텟이 마련하는 한여름 밤 팝스콘서트.

- 출연/김태훈, 최지혜, 김성현, 이성관
- 특별출연/윤태준(바순,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김태훈(017-543-0883)

BMF 스타음악가와 함께

26일 일요일 오후 4:00,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화려한 스타군단으로 이뤄진 실내악 드림팀이 연주하는 부산국제음악제(BMF:Busan Music Festival)의 한국 출신 스타음악가인 피아니스트 백혜선, 첼리스트 정명화, 바이



올리니스트 백주영, 호르니스트 김영률이 펼치는 실내악의 대향연.

프로그램

계 데르벨루아/모음곡 제 2번 중 '안단티노'
로카텔리/소나타 라장조 중 '아다지오'
헨델/파사칼리아 등

입장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한 여름밤 떠나는 춤으로의 여행

27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999년 메디슨 피아노앙상블 창단 연주를 시작으로 매년 듀오무대를 가져오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성숙, 형희전이 들려주는 청소년음악회.

기존의 알려진 작곡가들의 곡보다 어깨를 들썩일 수 있는 유쾌한 춤곡들을 선곡, 재미나는 클래식 무대를 선사한다.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클래식 프론티어(521-5729)

꿈과 사랑이 있는 아름다운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 부산문화회관 협약체결

부산문화회관 직원 및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족 특별우대

■예약문의: 협진협력병원 경유/ 진료의뢰센터 (051-990-6613)



1·2차진료는 고신대학교복음병원 협진협력병원에서, 3차진료는 고신대학교복음병원으로
이시어보병원 · 김성덕진료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KOSIN UNIVERSITY GOSPEL HOSPITAL
학곡법인 내관역수교장로회 영회 고려대학
부산광역시 서구 일남동 34번지 602-702

대표전화 (051) 990-6114
전 화 세 약 (051) 990-6900
응급의뢰센터 (051) 9906-119
암예방검진센터 (051) 990-6051
진료의뢰센터 (051) 990-6613
International Clinic (051) 990-6155

부산시내 기타공연 · 전시

**유즈노 사할린스크
시립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
28일-29일 화-수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1999년 사할린주 주도인 유즈노 사할린스크에서 창단된 유즈노 사할린스크 시립오케스트라는 상임지휘자 즈라자예브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정교한 앙상블을 들려준다.
입장료 일반 20,000원 · 중고생 5,000원
문의 부산예술기획(016-9317-4728)

백재진 바이올린 독주회
-초심으로

28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서울대학교와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동의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 독주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으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사라사테, 위니아브스키, 크라이슬러의 연주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사라사테/씨교이네브바이젠
위니아브스키/화려한 폴로네이즈 등 수곡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백재진(890-1318)

박종석 기타독주회
29일 수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예술학교 재학중 독일로 유학, 쾰른 음대 연주자과정을 졸업한 박종석은 그동안 독일과 벨기에, 스페인에서 다수의 독주회와 협연무대를 가져왔다.

프로그램

나르바예즈/황제의 노래
바이스/소나타 사정조
소르/에튀드 가장조 작품 6-2 등 수곡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신성진(017-542-8107)

박미옥 피아노독주회
31일 금요일 오후 7:30
글로벌아트홀



동아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경성대학교 대학원에 재학중인 피아니스트 박미옥 독주회.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소나타 '발트슈타인'

브람스/헨델 주제에 의한 변주곡 등 수곡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연극

낭만 수사실

6월 29일(금)-8월 19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6:00(월요일 공연없음) 공간 소극장

소심한 범인 소심함과 사건을 과대 포장하려는 시경 경찰들이 펼치는 황당한 이야기.
 · 작, 연출/김만중
 · 출연/김진욱, 양진혁, 김우석, 장나운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문의 문화공간 살터(611-8518)

뮤지컬 찰리 브라운

7월 14일(토)-9월 1일(토) 평일 오후 4:00, 8:0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4:00, 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경성대학교 멀티미디어 소극장

어늘하지만 착한 마음씨의 찰리 브라운과 그의 친구들의 일상을 통해 인생에 대한 통찰력과 철학적인 유머를 담아낸 뮤지컬.
입장료 균일 2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ANS이티(1644-4484)

그 남자 그 여자

7월 18일(수)-8월 5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운명적인 만남에서부터 핑크빛 사랑, 쓰라린 이별, 아련한 추억까지 사랑의 과거, 현재, 미래를 그린 감성 연극.
입장료 일반 30,000원 · 청소년 20,000원
문의 (주)코엔(1544-3164)

액션멜로 갱스너 넘버원

3일(금)-12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한날 강패에서 마침내 모든 것을 거머쥐고 조직의 정점에 오르게 되는 어느 조직폭력배의 파란만장한 삶을 그린 액션멜로극.

· 각색, 연출/전용환
 · 출연/오경석, 이진호, 고민성, 하고은, 권민성, 권웅
입장료 일반 25,000원 · 학생 2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강풀의 순정만화2 '바보'

8일(수)-2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어린시절 연탄가스 사고로 바보가 된 순수한 영혼 승룡과 주변인물들의 이야기를 서정적이면서도 감동적으로 그려낸 작품.
입장료 일반 30,000원 · 학생 2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평일 20%, 주말 10% 할인)
문의 (주)코엔(1544-3164)

로맨틱 코메디 뮤지컬 김종욱 찾기

11일(토)-1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첫사랑을 찾아나선 여자와 첫사랑을 찾아

주는 남자의 티격태격 로맨틱 코메디 뮤지컬 '김종욱 찾기'.

- 작, 연출/장유정
- 작곡, 음악감독/김혜성
- 출연/원기준, 신성록, 전병욱, 오나라, 안유진, 김세준, 원종환

입장료 R석 45,000원 · S석 3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AN시티(1644-4484)

극단 누리에 제 16회 정기공연

적의 화장법

14일(화)-25일(토) 평일 오후 8:00, 토요일 · 공휴일 오후 5:00, 8:00, 일요일 오후 5:00
액터스소극장



인간의 숨겨진 양면성을 기상천외한 상상력과 충격적인 반전으로 그려낸 극단 누리에의 '적의 화장법'.

- 작/아멜리 노통
- 연출/강성우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사랑티켓 참가자)

문의 극단 누리에(621-3573)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정의의 사람들

15일(수)-2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열린소극장



혁명과 사랑, 테러와 생명, 정의와 인간애 사이에서 고뇌하고 행동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정의의 사람들'.

- 작/알베르 까뮈 · 각색, 연출/김지용
- 출연/이현주, 유성주, 금경훈, 유재명 외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사랑티켓 참가자)

문의 김지용(010-9876-4194)

막무가내들

8월 17일(금)-9월 2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귀신이야기의 고 정관념을 깨는 독특한 발상과 유쾌한 스토리의 코믹 호러극.

- 작/이주용
- 연출/오승수
- 출연/유승일, 최

재섭, 이장원, 연보라

입장료 일반 25,000원 · 학생 2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아트서커스 동방의 신기-비천

18일-19일 토-일요일 오후 3:00, 7: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1925년 창단된 후 1960년대 서커스의 대전성기를 누리며 수많은 스타를 배출했던 동춘서커스단의 화려한 무대를 감상할 수 있는 아트서커스.

입장료 VIP 20,000원 · R석 10,000원
학생 5,000원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소년소녀가장돕기 개그콘서트

18일 토요일 오후 3:00, 6:00 KBS부산홀

고음불가, 뮤지컬, 불청객, 게임의 법칙 등 인기코너를 통해 최고의 웃음을 전해주는 개그콘서트 부산공연.

- 출연/이수근, 김병만, 유성호, 류담, 정명훈, 정경미, 김재욱, 신봉선 외

입장료 VIP 66,000원 · R석 55,000원
S석 44,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PS엔터테인먼트(442-6500)

구민주 모노드라마 영순아 어디가니

8월 23일(목)-9월 23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 공휴일 오후 6:00(월요일 공연없음) 미리내소극장



자살증후군이라는 현대인의 심리 저변에 나타나는 일상을 통해 삶에 대한 강렬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모노드라마.

· 작/이훈주 · 연출/호민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사랑티켓 참가자)

문의 미리내소극장(504-2544)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시즌 1 썸머스페셜

25일 토요일 오후 4:00, 7:30, 26일 일요일 오후 3:00, 6:30 KBS부산홀



비보이 년버벌 퍼포먼스의 선두 주자로 비보이 열풍을 일으킨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썸머스페셜 무대.

· 작, 연출/문주철

입장료 R석 45,000원 · S석 3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AN시티(1644-4484)

년버벌 힙합퍼포먼스 힙합고 D반

31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부 아

부산시내 기타공연 · 전시

이들과 그 반 친구들을 춤으로 화해시켜나가는 과정을 그린 난버벌 합창퍼포먼스.

입장료 VIP 20,000원 · R석 10,000원
학생 5,000원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8월 31일 **금요일** 오후 7:30, 10:30
9월 1일 **토요일** 오후 4:00, 7:00
9월 2일 **일요일** 오후 3:00, 6: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996년 한국뮤지컬대상 작품상, 음악작곡상 등 4개부분을 수상, 작품성과 흥행성을 인정받았던 창작뮤지컬로, 형제간의 갈등과 화해를 감동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입장료 1층 44,000원 · 2층 33,000원
(7/31일까지 예매입금시 20% 할인)

문의 (주)코엔(1544-3164)

무용

2007 볼쇼이 아이스쇼

10일-15일 **금-수요일** 오후 4:00, 7:30(13일 오후 7:30, 15일 오후 2:00, 5:30) KBS부산홀



우아한 발레와 피겨 스케이팅이 만나 환상적인 무대를 선사하는 아이스 발레 '볼쇼이 아이스쇼'.

입장료 R석 66,000원 · S석 55,000원
A석 44,000원

문의 KBS비즈니스(625-8511)

땡브르발레연구회

제 14회 정기공연

18일 **토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989년 부산 최초의 발레 동인단체로 창단한 땡브르 발레 연구회의 14번째 정기공연. 프로그램 피카소? 피카소! (안무/이원주)

아리서눔(안무/이유하)

해적 2막 중(안무/마리우스 프티파 · 재구성 /남영, 최은정)

· 무대감독 및 연출/김정순

· 출연/이원주, 이유하, 강용기, 김동석, 이상영, 이윤경, 박은경 외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이상영(011-859-5162)

영화

2007 멕시코 영화제

1일-5일 **수-일요일** 오후 1:30, 3:30, 5:30, 7:30 시네마테크 부산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멕시코 영화의 현재를 소개하는 2007 멕시코 영화제.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 제작되어 산업과 비평면에서 모두 성과를 거둔 신작영화 6편이 상영된다.

입장료 균일 4,000원

문의 시네마테크 부산

(742-5377, cinema.piff.org)

제 2회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17일(금)-21일(화) 프리머스 해운대, 화명 키즈시네마, 해운대 씨네파크

25개국 130여편의 영화가 상영되는 아시아 최고의 어린이 영상문화축제.

어린이 베틀시장, 어린이 영화캠프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펼쳐진다.

· 17일 오후 7:00 씨네파크 야외상영관

개막식-축하공연 및 개막작 상영

· 21일 오후 6:30 씨네파크 야외상영관

폐막식 및 폐막작 상영

입장료 균일 4,000원(개·폐막작 6,000원)

문의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조직위원회
(743-7652)

아동극

라스베거스 공연기술팀 내한 가족뮤지컬 **피터팬**

10일 **금요일** 오후 3:00, 7:00
11일-12일 **토-일요일** 오후 2:00, 5:30 시민회관 대극장



상상속 세계 네버랜드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환상적인 무대와 무대에서 객석까지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입체적인 플라잉 액션 등 화려한 볼거리가 재미를 더해주는 가족뮤지컬.

입장료 R석 55,000원 · S석 45,000원

A석 30,000원 · B석 2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AN시티(1644-4484)

어린이 영어연극 리틀 드래곤

10일-12일 **금-일요일** 오후 1:00, 4: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쉬운 영어대사와 3차원 입체영상, 섬세한 인형연기 등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어린이 영어연극.

입장료 균일 20,000원

문의 라드어린이극장(02-580-0996)

가족뮤지컬 토끼의 이솝이야기 II

11일(토)-19일(일) 평일 오전 11:00, 주말 오후 1:00, 3:00(월요일 공연없음) SH공간소극장

이솝우화의 동화 속 세상에 들어간 토끼를 따라 떠나는 신나는 모험을 통해 이솝우화의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가족뮤지컬.

입장료 균일 15,000원

문의 극단 사계(611-8518)

어린이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24일 **금요일** 오전 10:20, 11:40, 25일 **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26일 **일요일** 오후 1:00, 3: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용감한 소녀 도로시와 겁쟁이 사자, 머리 빈 허수아비, 눈물많은 양철아저씨와 떠나는 신나는 모험의 세계.

· 작, 연출/오계영

입장료 균일 1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3,000원 할인)

문의 동그라미그리기(818-1772)

춤추는 호랑이

30일 목요일 오전 10:30, 11: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31일 금요일 오전 10:30, 11:30,
 오후 1: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사랑의 약을 먹은 후 처음 본 못생긴 돼지에게 빠져버린 심술꾸러기 호랑이의 사랑 찾기를 그린 코믹 인형극.

입장료 균일 4,000원

문의 김희곤(017-553-9323)

어린이 뮤지컬 사과가 쿵!

25일 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26일 일요일 오후 1:00,
 3:00 시민회관 대극장



다양한 의성어와 의태어의 반복적인 리듬으로 어린이들의 흥미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오감만족 뮤지컬.

입장료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PS엔터테인먼트(442-6500)

행사

제 12회 부산바다축제

1일(수)-10일(금) 해운대 해수욕장 및 부산시내 주요 해수욕장

해운대 야경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화려한 개막공연과 아름다운 축하불꽃쇼,故 현인



선생을 기념하는 창작가요제 '현인가요제', 열정적인 춤의 향연 부산국제해변무용제, 유명 록 아티스트들의 라이브 공연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로 펼쳐지는 2007 부산바다축제.

문의 부산바다축제조직위원회
 (888-3392~6)

전시

상하이박물관 소장 중국 고대 청동기·옥기展

6월 15일(금)-9월 9일(일)
 부산박물관 특별전시실

문의 부산박물관(624-6341~2)

김병권, 도영준, 이광기 평범한 것의 변용

7월 4일(수)-8월 19일(일)
 용두산미술전시관

문의 용두산미술전시관(244-8228)

한국의 멋 '부채' 2007 扇面藝術展

7월 25일(수)-8월 7일(화)
 타워갤러리



문의 타워갤러리(464-3939)

제 33회 부산미술대전

7월 30일(월)-8월 28일(화)
 부산시립미술관

문의 부산미술협회(632-2400)

경일대학교 사진영상학부 사진그룹 '판단중지' 본다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다

7월 31일(화)-8월 12일(일)
 영광도서갤러리

문의 영광도서갤러리(816-9500)

이선경 작품전

8월 2일(목)-8월 31일(금)
 부산프랑스문화원 전시실

문의 부산프랑스문화원(465-0306)

조현화랑 기획전 필립 꼬네 展

8월 3일(금)-9월 15일(토)
 조현화랑



지난해 조현화랑을 통해 처음 한국에 소개된 프랑스 작가 필립 꼬네는 밑남파 테크닉과 사진적 시각을 결합하여 주변의 일상적인 오브제와 풍경을 그려오고 있다.

문의 조현화랑(747-8835)

부산디자인센터 상품기획전

8월 6일(월)-8월 26일(일)
 부산디자인센터 제 1, 2전시실

문의 부산디자인센터(790-1032)

四季의 風景展

8월 8일(수)-8월 18일(토)
 타워갤러리

문의 타워갤러리(464-3939)

홍관선 작품전

8월 14일(화)-8월 19일(일)
 영광도서갤러리

문의 영광도서갤러리(816-9500)

❖ 예술단 정기회원이 할인 공연

장 소	일 시	공 연 명	관 람 료	할 인	문 의
부산문화회관	8/11(토) 14:00, 17:00 8/12(일) 17:00	그랜드 오페라단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학생석 10,000원	10%	그랜드오페라단 (610-1004)
	8/22(수) 11:00, 16:00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균일 15,000원	30%(1인 4매)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9/1(토) 16:00, 20:00 9/2(일) 15:00, 19:00	웨스트사이드스토리	VIP 80,000원 · R석 70,000원 S석 60,000원 · A석 50,000원 B석 40,000원	10%	ANSITI (1644-4484)
시민회관 대극장	8/10(금) 15:00, 19:00 8/11(토)-8/12(일) 14:00, 17:30	가족뮤지컬 '피터팬'	R석 55,000원 · S석 45,000원 A석 30,000원 · B석 20,000원	10%	ANSITI (1644-4484)
	8/25(토) 12:00, 14:00, 16:00 8/26(일) 13:00, 15:00	어린이 베스트셀러 뮤지컬 사과가 콩!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10%	PS엔터테인먼트 (442-6500)
KBS부산홀	8/18(토) 15:00, 18:00	소년소녀가장들기 개그콘서트	VIP 66,000원 · R석 55,000원 S석 44,000원	20%	ANSITI (1644-4484)
	8/25(토) 16:00, 19:30 8/26(일) 15:00, 18:30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시즌 1 썸머스페셜	R석 45,000원 · S석 35,000원	10%	PS엔터테인먼트 (442-65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8/11(토)-8/19(일) 평일 20:00, 토요일 16:00, 19:00, 일 · 공휴일 15:00, 18:00(월요일 공연없음)	로맨틱 코메디 뮤지컬 김종욱 찾기	R석 45,000원 · S석 35,000원	10%	ANSITI (1644-4484)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7/18(수)-8/5(일) 평일 20:00, 토요일 16:00, 19:00, 일요일 15:00, 18:00(월요일 공연없음)	그 남자 그 여자	일반 30,000원 청소년 20,000원	평일 20% 주말 10%	(주)코엔 (1544-3164)
	8/8(수)-8/26(일) 평일 20:00, 토요일 16:00, 19:00, 일 · 공휴일 15:00, 18:00(월요일 공연없음)	강풀의 순정만화2 '바보'		평일 20% 주말 10%	
가마골소극장	8/3(금) 8/12(일) 평일 19:30, 토요일 16:30, 19:30, 일요일 15:00, 18:00(월요일 공연없음)	액션멜로 갱스너 넘버원	일반 25,000원 학생 20,000원	10%	가마골소극장 (245-0042)
	8/17(금)-9/2(일) 평일 19:30, 토요일 16:30, 19:30, 일요일 15:00, 18:00(월요일 공연없음)	막무가내들			

예 / 매 / 창 / 구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예 / 매 / 방 / 법

직접 또는 전화 신청

예 / 금 / 계 / 좌

부산은행 036-01-034848-7
예금주 :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 지정 예매처

부산은행 전 지점, 티켓 365(www.ticket365.co.kr)

- 중구/남포문고(245-8911)
- 부산진구/동보서적(서면 제일은행 옆 803-8000), 영광도서(롯데백화점 건너편 816-9500)
- 남구/면학도서(경성대 앞 623-9404)
- 사하구/향학서점(동아대 허단 캠퍼스 앞 203-9381)
- 북구/대한도서(덕천로터리 332-7339)

Recommended Performances in August

Busan International Beach Dance Festival 'To the sea of dream, the sea of festival'

31st(Tue), July - 6th(Mon), Aug. Kwangan Beach,
Busan Cultural Center

This is a summer festival featured with special stages of beautiful beach, the symbol of Busan.

This festival will show diverse dance performances such as traditional Korean dance, sports dance, belly dance, jazz dance, tap dance and others by the 33 teams from 9 countries including Austria, Switzerland, German, Holland, US, and Korea.

Ticket: Free

For more information: www.bibdf.com

The 2nd Busan International Kids' Film Festival

17th(Fri) - 21st(Tue), August Primus Haeundae,
Primus Hwamyong, Cinepark



The 2nd Busan International Kids' Film Festival is the best opportunity to enjoy various world's famous children's movies.

This year, the festival prepared to release 120 films of short motion pictures, feature films, animations and documentaries from 20 countries.

For more information: Busan International Kids' Film Festival
(www.biki.or.kr)

Turkey Antalya State Symphony Orchestra Concert

21st (Tue) 7:30p.m. Busan Citizens' Hall (Main hall)

In the commemoration of the 5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of the two countries, Turkey Antalya State Symphony Orchestra, one of the five Turkey national orchestra, performs concertos with Korean counterparts.

Program

Ferit Tuzun/Esintiler

Mozart/Piano Concert K. 414

Beethoven/Piano Concerto No. 3

Suk-tae CHOI/ARIRANG FANTASY 2007

Conductor/Naci Ozguc

Ticket: R-30,000 Won, A-10,000 Won, Student-6,000 Won

For more information: 624-1991 (ClassicArtManager)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Well-being Concert' for the Busan citizens
'The Classical music is my friend' with Nan-se GUM

22nd (Wed) 11:00a.m. 4:00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The host of 'the classical music is my friend' Nan-se GUM, conductor will give tips to enjoy classical musics with his creative

ideas and pleasant stories.

Program

G.Rossini/Overture to 'Wilhelm Tell'

A.Vivaldi/'L'autunno' from 'Four Seasons' op.8

O.Respighi/Symphonic Poem 'Pini di Roma' P.141

· Conductor & Commentator/Nan-sae GUM

· Marimba/Hye-ryeong PARK

Ticket: All seats for 10,000Won

For more information: 607-6101, 607-6070

Busan Music Festival (BMF) Ensemble on the Road

26th (Sun) 4:00p.m., 7:30 p.m.

Haeundae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Busan Music Festival (BMF) is a festival of the star chamber music artists. You can have a chance to meet the Korea's most proud artists like Pianist Hye-sun BAEK,

Cellist Myeong-Hwa JUNG, Violinist Ju-Young BAEK, and Hornist Young-Lyoul Kim.

Program

Caix d'Hervelois/Andantino from Suite No. 2

P. Locatelli/Adagio from Sonata in D Major

J. Brahms/Trio for Violin, Horn & Piano in E b Major, Op. 40

F. Mendelssohn/Piano Trio No. 1 in d minor, Op.49 etc.

Ticket: R-40,000Won, S-30,000Won, A-20,000Won

For more information: 747-1536

Invitational Ballet Performance by Yong-Geol KIM and Korea National Ballet 'Swan Lake'

25th (Sat) 7:00p.m., 26th (Sun) 4:00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Yong-geol Kim, the first Korean dancer at The Paris Opera Ballet will be on the stage for Swan Lake.

Ballet fans are already anticipating how he will

carry his moves on the stage.

· Artistic Director/In-ja PARK · Music Pyotr/ I. Tchaikovsky

· Choreography/Yuri Grigorovich

· Original Text/Vladimir Begichev, Vasily Geltser

· Orchestra/Korean Symphony Orchestra

Ticket: VIP-100,000Won, R-70,000Won, S-50,000Won,

A-40,000Won, B-30,000Won

For more information: 607-6070, 0505-700-9798, 500-5222

■ Translated by Hui-Sun, Chung

2대의 피아노를 위한 음악

곽근수 · 음악평론가, 부산시립교향악단 해설자



모차르트의 2대의 피아노를 위한 음악앨범 표지

피아노는 1709년, 이탈리아의 첼발로 제작자인 바르톨로메오 크리스토포리가 'Piano & Forte' (여린 소리와 강한 소리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건반악기)를 발명하였고, 이 악기는 모차르트에 의해서 다양하게 실험되었으며, 베토벤에 의해 표현의 극대화라는 지평을 얻었고, 쇼팽을 만나 지극한 詩的 세계로 인도되고, 드뷔시에게서는 관능에 눈을 뜨고, 바르톡에 의해 타악기적인 쓰임새로 변신하는 등 끊임없는 변화와 변신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악기만의 품격을 지켜왔다.

그러나 피아노 연주회에 빈자리가 많은 것은 이 악기가 본질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다양성을 연주자나 청중이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다양성이란 문자 그대로 강렬한 개성을 전제로 한다. 우리들이 뛰어난 피아니스트라고 부르는 연주자는 바로 그 강렬한 개성의 소유자들이다. 그러나 강렬한 개성의 피아니스트를 찾는 것도 용이한 일이 아닐 뿐더러, 피아노 음악을 수용하는 청중에게서도 보다 진지한 접근의 욕구를 찾아보기 어려우니 문제의 해결점을 다른 측면에서 찾아보는 시도가 절실한 형편이고, 그 시도의 한가지 방편으로 '2대의 피아노를 위한 음악'을 생각해 본다.

2대의 피아노를 위한 음악은 관현악곡을 일반에게 널리 보급한다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 그것은 마치 미술작품을 갖고는 싶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쉽게 살 수 없었던 대중들의 편의를 위해 얼마든지 적은 돈으로 그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판화'가 만들어졌던 것과 같다. 관현악곡을 듣고 싶은데 그 경비를 감당기 어려웠거나 제한된 작은 실내에서도 관현악곡을 감상하는 기분을 낼 수 있다는 경제성과 편의성에 의해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음악이 만들어 졌던 것이다. 피아노만이 오케스트라의 음향적 케페시티(Capacity)를 수용할 수 있는 악기이며, 그것을 두 대를 사용하여 표현했을 때 관현악의 근사치를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2대의 피아노를 위한 음악은 연주자에게나 감상자에게 다채로운 긴장과 재미를 제공한다. 때문에 1대의 피아노 음악을 평면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2대는 입체적이며, 특히 이 음악이 지니고 있는 강렬한 협주적 개성과 다양성은 다른 종류의 음악에서 찾기 어려운 독특한 매력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2대의 피아노가 표출하는 스테레오포니한 음향효과도 빠뜨릴 수 없는 매력이며, 두 사람의 연주자에 의해서 연출되는 지극한 음악적 대화는 우정과 사랑의 상징으로 듣는 이를 감동시키기도 한다.

피아노 음악의 대가인 리스트는 일찍이 이 분야에 눈을 뜨고 '관현악 작품을 피아노로 보급시키는 가능성'을 위해 37명의 작곡자들이 발표했던 143곡의 관현악곡을 피아노 곡으로 편곡했고, 베토벤의 교향곡 9곡을 모두 편곡하여 이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였다.

화성에서 꿈꾸다

이상훈 · 뮤클(뮤지컬&클래식) 운영자

근래에는 제법 많은 창작 뮤지컬이 무대에 오른다. 이중 소극장에서 몇 작품은 그 내용과 작품의 완성도 그리고 흥행까지도 겸하여 창작 뮤지컬의 많은 가능성을 엿보이게 했다. 그러나 이른바 어느정도 규모를 가진 뮤지컬들은(특히하계도 대부분 사극적인 구조를 띤다.) 제작중에 있거나 혹은 지금 공연중이어서 선불리 그 평가를 내리기가 조심스럽다.



올 초 재단법인 경기도 문화의전당에서,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경기도 수원의 화성과 이를 건축한 정조대왕을 소재로 하는 뮤지컬이 선보였다. 당시 큰 흥행을 거두지는 못했으나 많은 뮤지컬 매니아들 사이에서 서서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서울 공연 막이 내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하이 서울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경희궁에 고궁 야외 뮤지컬이 열렸다. 그 장소적인 장점을 십분살려, 3일간 공연은 큰 화제를 나았다. 그리고 얼마지 않아 제 1회 뮤지컬 어워즈에서 정조역의 뮤지컬배우 민영기의 남우주연상과 함께 최우수 작품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뮤지컬은 혜경궁 홍씨와 시도세지의 비극으로 장중하게 시작된다. 시도세지의 죽을 장면은 극전체에 구슬프게 흘러내리는 해금가락과 함께, 첫장면부터 인상적이다. 1막 마지막 Scene. '지금 조선의 시간의 몇 시인가' 사복차림으로 궁궐 밖의 왕(정조)의 바깥나들이는 늘 그 반전을 기대하는 심리와 더불어, 사극에서 자주 나오는 대목이다. 거리의 실학자들과 젊은 서생들에게 규장각에서 만나자 한다. 이는 2막의 밝은 미래를 즉 조선의 개혁을 예감한다. 그렇지만 그들의 만남과 등용과정이 너무 축약되어 진행되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2막에서 보여지는 '군신의 사랑' 노래는 덕이와 정조의 이룰 수 없는 혹은 사랑을 애뜻하게 잘 표현하였다. 그리고 수원화성에서 회갑을 맞이한 혜경궁 홍씨의 진찬례는 그 볼거리가 화려하다.

행사를 진행하는 나레이터의 말은 지아비를 잃고, 아비를 잃은 두 모자의 심경을 애뜻하게 풀어낸다. 끝으로 의문의 병사를 한 정조에 대한 자막이 전달되고, 조선의 개혁을 이루지 못한 정조의 꿈이 담긴 노래 '달의 노래 Royal Dream of the Moon' 이 대미를 장식한다. 영조역의 배우 민영기의 진가를 확인 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조금 과장이지만 민영기 캐스팅이 이 작품 성공의 절반의 비중을 차지한다해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그가 열연한 정조역은 눈에 띄었다.

이제 뮤지컬로 정조의 꿈을 만나보자. 그리고 이 뮤지컬이 그의 못 이룬 꿈과는 달리 해를 거듭하여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우리 창작 뮤지컬의 획을 긋는 작품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해본다.



안젤라 게오르규 라 스칼라 데뷔 실황

세계 3대 오페라 하우스를 모두 점령한 우리시대 최고의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의 <라 스칼라> 데뷔 리사이틀이다. 이태리 가곡, 벨 칸토 가곡, 프랑스 가곡, 루마니아 가곡이 수록되어 있고 까다롭기로 악명 높은 라 스칼라 청중들의 열렬한 환호속에, 토스티 '귀여운 입술', '난 밤새 춤출 수 있어', 푸치니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등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헨델 : 아리아(새벽이 훔쳐 가듯이...)

연주 : 마크 패드모어(테너), 루시 크로(소프라노) 잉글리시 콘서트, 앤드루 맨지(지휘)

2004년 '올해의 신인상'을 수상하며 실력과 재능을 유감없이 펼치고 있는 테너 가수 '마크 패드모어'가 풍성하고 섬세함으로 앤드루 맨지, 잉글리시 콘서트와 함께 헨델의 오페라와 오라토리오 아리아를 열연하고 있다. 패드모어는 자신의 탁월한 발음과 깔끔하고 세련된 가창력 그리고 강약을 자연스럽게 조절함으로써, 헨델의 야심찬 아리아들을 완벽하게 노래하고 있다. 음반 전체를 통해서 패드모어는 다 카포 부분에서의 감정적인 효과를 탁월하게 살려내고 있는데, 특히 다양한 색채는 새로운 경지에 이른 듯하다. 더욱이 소프라노 가수 '루시 크로'와 카운터 테너 '로빈 블레이즈'가 함께함으로써 앨범은 더욱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듯하다.



빈 국립오페라하우스 재개관 50주년 기념 갈라 콘서트(DVD)

다섯 명의 마에스트로들과 이 시대를 대표하는 22명의 정상급 가수들이 등장하는 사상 최고의 갈라 콘서트가 화려하게 펼쳐졌다. 1955년 11월 5일은 2차대전 중 파괴되었던 빈 국립오페라하우스가 재개관했던 날이다. 2005년 11월 5일 재개관 50주년을 기념하는 성대한 갈라 콘서트가 펼쳐졌다. 빈 국립오페라단의 음악감독인 세이지 오자와, 차기 음악감독 내정자인 프란츠 벨저-뫼스트를 비롯하여 주빈 메타, 크리스티안 틸레만, 다니엘레 가티 등의 다섯 정상급 지휘자들이 번갈아 지휘봉을 잡았고, 도밍고, 발차, 그루베로바, 햄슨, 터펠, 폴라스키, 이소코스키 등의 최고의 오페라 스타들이 줄줄이 등장하여 화려한 오페라의 향연을 펼쳤다. 이날의 공연 프로그램은 재개관 시즌 당시 무대에 올렸던 오페라들 중에서 돈조반니, 피델리오, 장미의 기사, 아이다,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거, 그림자 없는 여인의 여섯 작품을 택하여 각 작품들의 하이라이트를 콘서트 형식으로 엮은 것이다. 비단 오페라 애호가들이 아니더라도 3시간동안 화려하게 펼쳐지는 이 갈라 콘서트의 푸짐한 성찬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스테후데 '칸타타: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육신' (DVD)

바로크 이전 독일 3대 작곡가인 바흐의 선배 북스테후데는 독일 음악에서 슈츠의 생명력을 바흐에게 이어 주도록 하는 작곡가이다. 북스테후데는 북독일의 개신교적 전통과 라틴적인 가톨릭 전통을 자신의 음악 속에 자연스럽게 융화시키고 있다. 이 DVD에서 소개하는 작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수난을 당할 때의 모습을 그린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육신>이란 작품으로 일종의 수난곡으로 분류되고 있다.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의 육신 각 부위에서 느낄 수 있는 인류에 대한 대속의 자비로운 상징을 극적으로 표현한 이 작품은 그의 칸타타 중에서도 그 주제가 갖는 절실한 상징성으로 인해 수작으로 꼽히고 있다. 마리아 크리스티나 키에르, 안드레아스 솔, 르네 야콥스 등 연주자의 이름만으로도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DVD이다.

■ 비바체클래식 제공

우리문화 박물관

이어령 지음 / 디자인하우스 / 283p / 13,000원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인 이어령 교수가 과거 우리나라 일상생활의 64가지 소재에 대한 생각을 짧지만 깊이 있는 산문으로 엮어냈다. 한국문화의 본질을 예리하면서도 아름답고 정확한 언어로 들려준다. 우리 조상은 짚으로 계란꾸러미를 만들 때 왜 전체를 싸지 않고 절반만 싸을까. 같은 짚으로 계란을 포장하면서도 일본인들은 계란을 보이지 않게 완전하게 싸다. 우리 조상들은 계란이 깨지기 쉬운 물건이라는 계란 자체의 '정보성'과 '언어성'을 일부러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조심해서 취급하도록 했다. 한복바지를 보자. 서양의 바지와는 달리 한복 바지에는 치수가 없다. 언뜻 합리성과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한복의 바지와 치마는 어떤 치수를 가진 사람이라도 맞도록 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적응하도록 배려한 옷이다. 또 옷 자체의 모양이 정확하게 잡혀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이 입어야만 비로소 완성된다. 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인간을 감싸주는 그 형태는 한국인의 인간미를 상징한다고 지은이는 보고 있다.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는 책이다.

흙과 불 그리고 혼, 사기장 신정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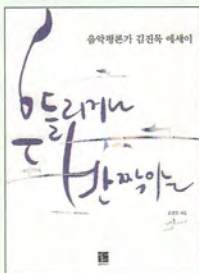
신정희 지음 / bookin / 319p / 18,000원



전통 도예가이자 조선시대 막사발이었던 분청사기를 재현해낸 사기장(옛 그릇을 굽는 도예가) 신정희 선생이 지난 6월 18일 향년 77세로 별세했다. 이 책은 도자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정리해 담은 자서전. 삼천포중학교 재학 중 국어교사이던 시조시인 초정 김상옥 선생을 만난 것이 고인에게는 인생의 중요한 인연이 되었다. 초정 선생이 학생들을 데리고 냇가를 거닐다가 우연히 청자 파편을 주워들고 "이게 바로 고려청자 쪼가리다. 여기에 우리 조상들의 혼과 열이 담겨 있다. 우리 민족의 우수성이 바로 이 속에 그대로 담겨 있다."고 외쳤다. 스승의 외침을 통해 청자와 백자 조각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자 자긍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에 눈을 떴던 신정희 선생은 군 제대 이후 도자기에 인생을 걸었다. 그는 술한 고난과 고비 끝에 1968년 석회석을 불에 구운 가루에다 나뭇잎 재를 섞어 만든 나무재 유약을 천신만고 끝에 알아냈고, '이도다완'을 재현해 냈다. "흙은 생명의 원천이다. 목숨이 있는 것은 모두 흙으로 돌아간다. 그 흙을 다루는 것은 장인의 손이다. 흙은 그냥 두면 흙이지만, 흙에 감성을 불어 넣으면 보석이 된다." 사기장 신정희 선생의 말이다.

흔들리거나 반짝이는

김진묵 지음 / 정신세계사 / 319p / 10,000원



음반평론가이자 음악감독으로 활동하며, 세계 각지의 음악인들과 교류하고 그 결과물을 새로운 명상음악으로서 소개하는 일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기고 있는 김진묵 씨가 들려주는 음악 이야기.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두운 음악감상실 안을 유영하는 피아노 소리에 문득 '음악이란 소리가 까부는 것'에 다름 아님을 알아버린 한 소년이 음악에 대한 열정과 이성 사이를 오가며 살아온 40여 년간의 추억과 단상이 잔뜩 담겨 있는 책이다. 음악이라는 안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작은 트랜지스터 라디오에 만족하는 한 음악평론가의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 어느새 함께 웃고 울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이다. "김진묵에게는 지식인들이 갑옷처럼 걸치고 다니는 오만과 편견이 없다. 따라서 그는 동서고금의 모든 음악을 사랑한다. 그가 보는 관점에 의하면 하나의 존재는 하나의 음악이다. 하늘에 존재하는 것들도, 바다에 존재하는 것들도, 과거에 존재하는 것들도, 미래에 존재하는 것들도, 모두 아름다운 음표들로 흔들리거나 반짝거린다" 소설가 이외수가 바라본 '김진묵의 음악'이다.

■ 박현주/동보서적 <책소식> 편집장

부산은행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단체 가입

7월 9일 오후 5:00 부산광역시, 부산은행 협약 체결



부산의 향토 은행 부산은행(은행장 이장호)이 부산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높여 주기 위해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단체 가입했다. 7월 9일 오후 5시 이권상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부산시립예술단 단장)과 문섭재 부산은행 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한 부산광역시와 부산은행은 상호협력을 통해 공연 활성화와 시민 문화체험 기회제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정기회원 가입은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은 부산은행이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을 실천하고 부산이 문화예술도시로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지원(Culture Angels Project)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메세나 활동이다.

앞으로 부산은행은 병원, 군부대 등 문화소의지역과 경찰관, 교사, 소방관 등 지역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시민계층에게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시립무용단 '2007 Cross Cultural Festival' 참가



부산시립무용단이 지난 7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열린 '2007 Cross Cultural Festival'에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 참가했다.

부산광역시와 자매도시를 맺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시는 매년 '2007 Cross Cultural Festival'에 자매도시의 문화공연팀을 초청, 자매도시간의 문화예술 교류와 협력을 맺어오고 있다.

21일 리셉션 공연을 시작으로 공식일정에 들어간 부산시립무용단은 7월 22일 수라바야시청 야외극장에서 열린 '2007 Cross Cultural Festival' 초청공연에 참가, 노동의 피로를 씻기위해 일터에서 즐겼던 사물의 흥과 신명을 오늘의 시각으로 창작한 '터울림 21'을 무대에 올려 인도네시아 현지인과 교민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부산시립무용단은 7월 22일 오후 Gwalk Festival 공연, 23일 댄스스쿨 등을 마치고 25일 귀국했다.

한편, 부산광역시와 수라바야시 자매도시간 해양항만과 문화교류 활성화 및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지난 7월 9일 부산시를 방문했던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시 대표단이 7월 12일 부산문화회관을 방문해 공연단 교류에 따른 폭넓은 의견을 나누고 공연장 시설을 견학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31회 청소년 협연의 밤 협연자 모집

■ 공연개요

- 공연 명: 제 31회 청소년 협연의 밤 [2007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 공연일시: 2007년 10월 18일(목) 오후 7:30
- 공연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협연자 모집개요

- 대 상: 전국 중, 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포함) 재학생인자로
학교장(학과장)의 추천을 받은자.
- 응시곡목: 협주곡 (자유곡) 1곡
- 전형위원: 7명(지휘자 1명, 악장 1명, 수·차석 5명)
- 모집부문: 전파트(관악, 현악, 타악, 성악, 작곡, 특수악기-笙簧, 비파, 양금 등)
- 모집인원: 6명 이내


■ 전형개요

- 전형일자: 2007년 8월 31일(금) 오후 2:00
※ 전형지는 오디션 당일 오후 1:30까지 대기실에 입실 완료 (추첨)
- 전형장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습실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2007년 8월 13일(월)~8월 24일(금) 오후 6:00
※ 우편접수는 2007년 8월 24일(금) 오후 6:00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응시원서 (소정양식) 1부, 학교장 (학과장) 추천서 1부,
협연곡 (자유곡) 악보 1부, 본인 프로필 1부, 사진 1매
- 접수처 및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사무실(051-624-4737)

지역과 함께 더 높은 가치창조를

받은 사랑, 더 큰 사랑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부산은행은 지역사회와 늘 함께하는 나눔경영 실천을 위하여
앞으로도 사회공헌사업을 새롭게 펼쳐 나갈 것입니다.

 부산은행



·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기로운제

- 지휘자 금난새와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매년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하는 청소년 해설음악회.
- 인터넷에서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세계 최대의 미국 인터넷 검색엔진회사.
- 매년 8월 마지막 주말에 열리는 유럽 최대의 거리 축제가 열리는 영국의 도시. 줄리아 로버츠, 휴 그랜트 주연의 영화제목이기도 하다.
- 농악에 쓰는 느린 4박자의 장단.
- 통소보다 짧고 가늘며 구멍이 앞에 네 개, 뒤에 한 개가 있는 국악관악기 소리가 크지는 않지만 음색이 맑고 깨끗하다.
- 서경덕, 박연복보다 더불어 송도삼철이라 불리었던 조선 시대의 명가(名妓). 한시와 시조에 뛰어났으며 시조 6수가 '청구영언'에 전한다.
- 1988년 영화 '붉은 수수밭'으로 데뷔한 후 베니스영화제 여우주연상, 몬트리올 국제 영화제 여우주연상 등을 수상한 중국의 여배우.
- 밀란 쿤데라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의 배경이 되었던 체코의 수도.

- 봉정사 극락전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우수한 목조 건축물로 꼽히는 부석사의 본전(本殿).
- 한 사람의 배우가 모든 배역을 혼자 맡아 하는 연극.
- 자세와 호흡을 가다듬는 훈련과 명상을 통한, 고대 인도에서부터 전해오는 심신 단련법의 하나. 오늘날에는 건강 증진, 미용 따위를 목적으로 한다.
- 다시 돌아온다는 뜻의 필리핀 말. 나무, 플라스틱 등으로 평평하고 둥글게 된 것을 맞붙여서 짙은 축으로 연결하고, 그 축에 실을 감은 다음 실 끝을 손에 친 상태로 던졌다 당겼다 하는 놀이기구.
- 다 타지 아니한 장작불. 불임결.
- 행운을 가져온다고 믿어 간직하는 물건이나 사람.

새로운제

- 고무보트를 타고 계곡의 급류를 헤쳐나가는 레포츠.
- 몸에 내린 신을 맞아서 무덤이 되려고 신에게 비는 곳. 강산국.
- 철도역이 폐쇄되면서 지금은 철로 위에서 페달을 밟아 달리는 레일바이크가 정선까 지 운행된다.
- 곱셈에 쓰는 기초 공식 1에서 9까지의 각 수를 두 수끼리 서로 곱하여 그 값을 나타낸다.
- 높이 1,507m. 천왕봉(1,915m), 반야봉(1,734m)과 함께 지리산 3대봉의 하나.
- 돌이나 나무에 사람의 얼굴을 새겨서 마을 또는 절 어귀나 길가에 세운 못말. 10리나 5리 간격으로 이수(理數)를 나타내 이정표 구실을 하거나,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한다.
- 1986년 방영된, 일본 NHK가 제작한 다큐멘터리에 삽입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무라 소지로의 오키리나 연주곡.
- 여성이나 어린이의 가장 높은 음역(音域). 또는 그 음역의 가수.
- 전설상의 동물로 뿔이 없는 용. 여편 저편에 의하여 용이 되지 못하고 물속에 산다는, 여러 해 묵은 큰 구렁이를 이른다.
- 행성이 태양의 둘레를 돌거나 위성이 행성의 둘레를 도는 것.
- 판소리 열두 마당의 하나. 고대소설 '토끼전'을 바탕으로 한, 토끼와 자라의 행동을 통하여 인간을 풍자한 내용이다.
- 구두 바닥에 쇠 날을 붙이고 얼음판 위를 치는 운동 기구.
- 이슬람교에서 예배하는 건물을 이르는 말. 집단 예배를 보는 신앙공동체의 중심지로 군사, 정치, 사회, 교육 따위의 공공 행사가 이루어진다.
- 주로 선에 의해 어떤 이미지를 그려 내는 기술. 또는 그런 작품. 소묘.
- 중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프랑스의 첼리스트. 크로스 오버에도 관심이 많은 그는 흑인 가수 비비 맥퍼린과 함께 발표한 'HUSH'와 탱고의 거장 피아졸라의 탱고 음악을 연주한 음반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나호 정답

로	맹	이	안	바	팬	팔
스	훈	네	비	게	이	션
트	천	의	트			아
로	마	의	휴	일	막	쟁
표		기	커			오
비	울	라		피	노	키
치		이	중	섬		나
	네	은	지	카	와	인
초	킹	코	스	프	레	도
복	선	토	지	카	밀	양

- 신마루골터(구.문방블래)
 - 장귀하(해운대구 우동)
 - 심보영(남구 흥호1동)
 - 강진호(사하구 신평2동)
 - 이병곤(사하구 장림2동)
 - 이점도(연제구 연산5동)
- 가미골 소극장 초대권
 - 정희경(부산진구 개금2동)
 - 유용원(금정구 징전동)
 - 전준곡(중구 중앙동)
 - 김인섭(남구 대연5동)
 - 이지용(북구 화명동)
- 린진 식사원
 - 유영빈(사하구 장림2동)
 - 홍선정(부산진구 연지동)
 - 노현홍(연제구 거제1동)
 - 아성(사하구 대대동)
 - 양정희(사상구 모라동)
- 동보서적 도서상품권
 - 김복희(연제구 연산5동)
 - 김명선(진구 양정동)
 - 안서원(금정구 징전2동)
 - 홍중여(서구 서대신동 3가)
 - 이수자(사하구 신평동)

그리움이 있는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한국 전통음식점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예약을 하시면 특별찬(샐러드, 죽)을 제공해 드립니다.
 ◆ 큰집은 광복로 국제시장에 있습니다.

날마다 연극축제가 열리는 곳
 부산에는 가미골소극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연극의 산실

가미골소극장

(051) 245-0042 www.kamagol.co.kr

신마루골터

· 짬갈비

· 삼계탕, 돌솥비빔밥

UN타워 문화회관 영빈관 앞 **예약문의 : 611-4040**

부산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보서적 1층 안내에서
 각종 공연 티켓을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습니다.

동보서적

· 도서안내 : 803-8000 · 단체발품 : 804-6391
 · www.dongbobooks.com

■ 보내실 곳/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8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부산시립무용단 여름마라츨판 선녀와 나무꾼

비가 온다는 기상예보를 듣고도 만덕에서 지하철을 타고 부산문화회관으로 향했다.
 일찍가서 좋은 자리를 잡고자 했는데 어찌그리 사람이 많은지...
 선녀와 나무꾼, 점박이시늬들, 꼬마 출연자들, 화려한 종이꽃, 짬질방의 선녀들, 빨간 대형천에서의 출산 장면... 단원들의 개인기가 어우러져 더욱 신나는 공연이었다.
 선녀들과 나무꾼의 배경이 짬질방이 되다니 참 재미있다.
 아빠들과 함께한 '아내를 위한 노래'에 함께하지 못한 내 남편의 빈 자리가 더욱 아쉬움으로 남는다.
 - 안윤주(북구 만덕동)

노래를 찾는 사람들 특별공연

'사계'를 잘블렀던 그 선배는 잘 살고 있을까?
 뜨거웠던 그 시대와 열정이 넘쳤던 젊음을 떠올리며, 또 함께 했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한 2시간여의 무대.
 - 김정설(서구 암남동)

뮤지컬 '찰리 브라운'

토니상을 수상한 브로드웨이 뮤지컬 찰리 브라운. 네컷 짜리 만화를 어떻게 뮤지컬을 만들었을까
 궁금하던 차에 부산에서의 공연 소식을 듣고 공연장을 찾았다.
 소박한 무대 셋트와 만화속 의상을 입은 배우들, 신나는 노래. 원작의 특성상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로
 진행 되기 보다는 에피소드별로 구성이 되었다.
 캐릭터별로 고른 배분은 아니었지만 캐릭터의 성격이 살아나는 이야기와 노래로 즐겁게 관람할 수 있었다.
 - 하지영(남구 문현3동)

새로운 시설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레스토랑
모짜르트

TEL. 051-622-1456
 부산문화회관 영빈관 맞은편 1층
 리셉션·생일잔치·각종모임 예약 받습니다.

방 법 bsculture@naver.com으로 공연후기 '100자 토크'와 'Q&A' 질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와 'Q&A' 질문과 답변은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 후기를 보내주신 분중 3명을 선정하여 모짜르트 2인 식사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7~8)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과 함께한 7월 테마여행

빗소리와 함께한 7080콘서트



장마철에 여행 계획을 잡는 것이 여간 모험이 아니다. 매달 둘째주 금요일 출발하는 7월 13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테마여행은 비가 있어 더욱 행복한 하루였다. 테마 여행에 당첨된 정기회원들과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남순천, 최영수와 함께 석남사 여행길에 올랐다.

이른 방문이라 석남사는 한적했다. 게다가 아침에 가늘게 내린 빗줄기가 점차 굵어져 우산없이는 다닐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여행은 숨 가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떠난다는 것만으로도 절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테마여행은 다른 여행과 다르게 비교적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여행이 진행된다. 절집 마루에 걸터앉아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오랜만에 오전을 여유롭게 보내는 회원들, 이왕 온김에 문화유산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하나라도 배워 가려는 실속파 회원들, 일찌감치 버스로 내려가 잠을 청하는 회원들까지 한 시간 주어진 자유 시간이 다양한 모습으로 흘렀다.



오전 11:30, 여행사에서 준비한 비옷과 장갑을 받은 뒤 영남 알프스 자락인 배내골로 향했다. 부산과 멀지 않은 곳이지만 의외로 초행길인 회원들이 많았다. 짙은 안개로 제 모습을 쉽사리 드러내지 않는 배내골이 신비롭기까지 하다.



배내골 장선 휴(休)마을에 도착할 무렵 비가 그쳤다. 점심 식사 후에는 합창단 단원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감자 캐기와 두부 만들기, 떡메치기 일정이 진행되었다. 바티칸, 로마 공연 후 오랜만에 부산 시민과 만나게 된 두 단원들도 자연 속에서 회원들과의 만남이 즐겁기만 하다. 최영수 단

원이 학창 시절 만져본 기타를 챙겨와 회원들과 7080 메들리를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가졌다. 반 주 없이 노래해야 하는 부담감도 있는 채 남순천 회원은 ‘노래의 날개 위에’를 열창, 회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듣는 사람은 물론 노래하는 사람들까지 즐거운 순간. “우리 감자 캐지 말고 그냥 노래만 듣고 있으면 안될까” “선생님, 로비 음악회 때 박수 더 열심히 칠게요.” 실비 속에 모두 둘러앉아 노래하는 시간 부산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이어서 진행된 감자캐기 농사 체험. 오전에 간간이 내린 비 때문에 호미가 필요 없을 정도로 흙이 부드러워 손으로 감자밭을 몇 차례 파내자 굵은 감자들이 즐기 채 딸려 올라왔다. 감자밭을 처음 본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주렁주렁 달린 감자를 보며 환호가 끊이지 않았다. 인심 좋은 배내골 부녀회장의 배려로 방울토마토며 오이, 가지 등 다른 농작물도 한 두 개 씩 따먹으며 배내골의 후한 인심을 즐겼다.

드디어 기다리던 두부만들기와 떡메치기. 어린 시절 두부만들기는 지겹게 보왔다는 어르신들의 배려로 두부만들기는 어린 친구들의 체험시간. 콩갈기부터 두부물 끓이기, 찌기 등 열심히 지켜보며 만들어낸 따끈한 두부 맛은 분명 여느 부두와 달랐다. 감탄도 잠시, 이어진 떡메치기 시간. 배내골에서는 찹쌀을 찌서 평평한 바위 위에서 떡을 친다. 봄에 캔 쑥을 같이 넣어 힘껏 떡메를 치니 어느새 쫄깃쫄깃한 쑥떡이 완성 되었다. 함께 한 회원들과 나누어 먹는 즐거움 속에 다음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진다.

낮에 캔 감자며 오이, 떡을 챙겨 넣고 배내골을 떠나며 하루를 돌아보는 회원들의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선생님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테마여행 응모방법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예술의 초대〉에 있는 응모엽서를 작성하여 8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10명을 추천, 1인 2명에게 여행상품권을 드립니다.

※한달동안 신규가입한 회원 중에서도 10명을 추천, 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발 표 : 8월 25일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ulture.busan.kr), 〈예술의 초대〉지면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주)레임 투어편(1544-2579)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정기회원 여러분들에게 자연과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 9월 14일(금) 남해 독일마을, 문항갯벌 체험

늦여름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갯벌에서 맞는 테마여행.
남해의 또다른 풍광 '환상의 커플' 촬영지 독일 마을에서 느껴보는 늦여름, 갯벌에서 체험하는 조개잡이는 또 다른 재미.

- 08:00 부산문화회관 집결
- 10:30 남해 독일마을 도착
- 13:00 문항갯벌 도착 갯벌 체험
- 15:10 남해출발



▶ 10월 12일 금요일 마산 문신미술관, 부재산방

10월 높은 가을하늘과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문신미술관에서 조각품을 감상하는 기회. 부재산방에서 영농체험과 전통음식 만듦으로 가을의 향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10월의 테마여행.

- 08:40 부산문화회관 집결
- 10:00 문신미술관 도착
- 11:20 문신미술관 출발
- 12:00 부재산방 도착
- 16:30 부재산방 출발
- 18:00 부산문화회관 도착

※ 이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상기일정은 날씨와 도로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테마여행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8월 당첨자

▶ 8월 10일(금)

비봉내와 함께하는 여름여행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신규가입 당첨자 명단(15명)

강명희(남구 대연3동)
권순일(사상구 패법동)
김경희(금정구 장전2동)
김영규(금정구 남산동)
김복희(연제구 연산5동)
박광섭(남구 용당동)
박분열(연제구 연산5동)
양상주(해운대구 반송동)
이점도(연제구 연산5동)
이선애(사상구 주례2동)
이수애(사하구 허단2동)
이진희(남구 용호동)
정순옥(부산진구 개금2동)
박수택(부산진구 부전동)
강미경(서구 압남동)

■ 기존가입 당첨자(연서) 명단(15명)

김명순(남구 문현동)
남정선(사상구 모라동)
오선희(해운대구 우1동)
이상미(남구 대연4동)
이호숙(사상구 모라2동)
박미정(부산진구 양정동)
박성진(남구 용호1동)
박영자(연제구 거제3동)
장귀하(해운대구 우동)
장지원(남구 용호3동)
정창숙(연제구 연산9동)
홍정남(부산진구 양정동)
황광주(수영구 망미2동)
김경희(서구 압남동)
김찬우(사하구 괴정동)

WELCOME TO "HANULCHE"

자연과 사람,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곳
그곳에 "하늘채"가 있습니다

부산 문화예술의 중심에서

순수한 자연환경과 유엔평화공원이 내집 정원인 곳

멋진 광안대교 야경까지 당신이 즐기는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코오롱
하늘채로
구경오세요**

- 하늘채에 방문하신 모든 분께 방문사은품을 드립니다.
- 이벤트1. 1인 3천여명의 대단지를 콜프링 카드로 구경하러
- 이벤트2. 볼곳에 들든 자연의 향연 - 하늘채에 펼쳐집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빛나는 품격이 있습니다

전세대 3bay · 4bay구조	개방감 및 채광은 물론 우수한 환기까지, 광폭발코니 적용으로 공간활용을 자유롭게.
컬러테라피 아파트	국내 최초로 컬러테라피 개념을 주거에 도입, 입주가구별 맞춤 컬러상당 주거공간 연출
최상층 전세대 다락방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최상층에 다락방을 설치하여 우수한 전망과 가치를 드립니다.
전세대 남향 배치	하늘채는 전세대 남향(남동, 남서향)배치로 일조권과 개방감이 우수합니다.
타이공원형 단지설계	지형을 거스르지 않는 친환경 첨단건설기술로 단지 전체를 공원화 하였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2007년 4월 20일 코오롱하늘채를 실제로 촬영한 것으로 가보들은 이미지 처리한것입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코오롱건설(주)

33평형 / 33평형A형 / 46평형 / 56평형 **총 712세대**

문의 051)703-1003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민의 문화수준은 공연장 관람 질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공연장 신사, 숙녀

- ◇ 입장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좌석번호를 확인하여 앉습니다.
- ◇ 공연 중에 지정좌석을 찾으실 때는 뒤에서 기다리거나 빈 좌석에 앉아 있다가 한 곡이 끝나면 조용히 자리를 찾습니다.
- ◇ 공연장내에서는 발소리, 기침소리, 부스럭대는 소리, 수근거리는 소리까지도 옆사람에게 방해가 되니 조심합니다.
- ◇ 공연장내에서는 신발을 벗거나 무릎 위에 발을 올리지 않습니다.
- ◇ 남의 앞을 지날 때는 몸을 숙여 남의 시선을 가리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 ◇ 연주중에는 들락날락하거나 뛰어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 옷차림은 가능한 정장이나, 안전한 복장을 합니다.
- ◇ 껌을 씹거나, 음료수·음식물 등을 반입하여 드시면 안됩니다.
- ◇ 휴대폰, 호출기 등 소리나는 물건은 반드시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고 입장합니다.
- ◇ 공연시작 5분전까지는 입장하여 자리에 앉습니다.
- ◇ 냄새나는 음식을 드셨을 때는 옆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입을 씻고 입장합니다.
- ◇ 7세이하의 어린이는 공연장내에 동반하지 않습니다.(공연장 3층 어린이 놀이방 활용)
- ◇ 화환이나 꽃다발은 입장시 로비에 보관하셨다가 공연후 증정하도록 합니다.
- ◇ 앵콜 연주까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일어서거나 나가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 ◇ 공연장내 휴지나 인쇄물(프로그램, 좌석권 등)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 ◇ 공연장내에서의 사진 촬영은 연주자의 연주에 방해가 되므로 삼가야 합니다.



Vivace Classic (클래식음반 전문매장)



음악이 흐르는 곳에서 낭만을...
(비바체클래식은 클래식 CD와 DVD 그리고 LP를 취급하는 전문매장입니다)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단, 예술에의초대 쿠폰과 정기회원카드 함께 제시)

☎ 051)743-0003
www.vivaceclassic.co.kr

Since 1981 - 에스프레소 커피전문점 · 퓨전레스토랑

philharmony

식사 · Wine · Beer · 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 628-2592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입안내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권을 구입하는 번거로움 없이 전화로 공연 예약이 가능합니다.
- 부산시내 전 공연장의 정보와 문화예술계의 동향 등을 담은 '예술에의 초대' 월간지를 매달 무료로 발송해 드리며, 부산시립예술단에서 마련하는 모든 무료 공연에 최우선으로 초대합니다.
- 부산시내 각 공연장에서 열리는 외부 단체의 공연 입장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주최측과 협의된 공연에 한함).
- 부산문화회관과 시립예술단 특별기획공연 입장료를 20~50% 할인해 드립니다.
- 50명 이상 단체 가입시는 가입 총액의 10%가 할인되어 관람료가 더욱 저렴합니다.
- 청소년 푸른회원은 20%, 장애인(1~3급) · 경로우대 · 국가유공자 사랑회원은 가입회비가 50% 할인되어 더욱 저렴합니다.
- 협력업체 이용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필하모니, 가마골소극장, 부산아쿠아리움 등)

정기회원이입회비

VIP 회원 1년제 10회 관람 100,000원

일반회원 1년제 5회 관람 25,000원 10회 관람 45,000원

(청소년 푸른회원 20% 할인, 장애인 · 경로 · 국가유공자 사랑회원 50% 할인)

■ 가입비 납입 은행계좌번호

부산은행 036-01-034846-1(예금주 : 부산문화회관)

■ 가입 및 공연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ulture.busan.kr)에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교통편

버 스 : 19, 51-1, 68, 134

지하철 : 대연동역 5번 출구에서 유엔로타리 방향으로 도보 15분 거리

■ 셔틀버스 무료운행

출 발 지 : 7번가 피자 앞(대연지하철역 5번 출구에서 유엔로타리 방향으로 100m지점)

출발시간 : 오후 7시(공연이 있는 날에 한함)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 편 엽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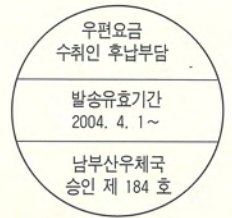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의초대 담당자 앞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의초대 담당자 앞

-

2007 Honeymoon event

가을 허니문 이벤트 30만원 할인 해드립니다.

사은품
여행용가방(24인치), 여권발급(단수), 1억원여행자보험, 면세점 쿠폰



부산문화회관 테마여행 협찬사 www.tourfun.co.kr

NAVER **투어편**

추천 커플 여행

거대한 중국의 절정기 북경/만리장성 4일

479,000원~

포함내용

왕복항공, 공항세, 천단공원, 서커스관람, 천안문, 이화원, 자금성, 발맞사지, 명13통, 특식 4식, 여행자보험

테마파크와 일본온천 북큐슈 온천/하우스텐보스 4일

569,000원~

포함내용

패속선 왕복, 부두세, 팁포함, 아소활화산, 하우스텐보스 1일프리패스권, 온천욕체험, 쿠마모토성 관광, 여행자보험

만화같은 세상 홍콩 디즈니랜드 홍콩/디즈니랜드 3일

629,000원~

포함내용

왕복항공, 공항세, 팁포함, 빅토리아피크, 디즈니랜드 1일프리패스권, 워터아슬사원, 스타의거리, 시내관광, 여행자보험

추천 가족 여행

[세부 직항] 세부/코스타벨라 4일

639,000원~

포함내용

왕복항공, 공항세, 팁포함, 마젤란십자가, 리조트 내 자유시간, 성어거스틴 교회, 특식1회(샤브샤브), 여행자보험

[세부 직항] 세부/마리바고 5일

799,000원~

포함내용

왕복항공, 공항세, 팁포함, 마젤란십자가, 리조트 내 자유시간, 성어거스틴 교회, 특식1회(샤브샤브), 여행자보험

[수,월요일출발] 동경/하코네/닛코 or 디즈니랜드 4일

839,000원~

포함내용

왕복항공, 공항세, 팁포함, 신도청전망대, 하코네국립공원, 아시호수유람선 탑승, 동경디즈니랜드 or 닛코 선택, 여행자보험

프리스타일 자유여행

북경 프리스타일 4일

279,000원~

포함내용

왕푸징거리 - 서커스관람 - 만리장성 - 명13통 - 용경협 - 옥룡천온천 - 천안문 - 자금 - 이화 - 짝퉁시 - 발맞사지
포함 : 왕복항공, 숙박, 안내자료, 샌딩서비스

홍콩 프리스타일 3일

381,000원~

포함내용

헐리우드 로드공원 - 리펠스베이 - 오션파크 - 점보레스토랑 - 워터아슬사원 - 침사추이 - 구룡공원
포함 : 왕복항공, 숙박, 안내자료, 샌딩서비스

오사카/동경 프리스타일 3일

539,000원~

포함내용

신사이바시 - 도톤보리 - 청수사 - 사슴공원 유니버설스튜디오 - 신주쿠 - 동경디즈니랜드 - 오다이바 - 비너스포트
포함 : 왕복항공, 숙박, 안내자료, 샌딩서비스

미리 준비하세요

디럭스 벳부 온천 3일

9/22 출발

549,000원~

포함내용

패속선 왕복, 부두세, 팁포함, 온천욕, 천만궁, 모모치해변, 지옥온천, 아소활화산, 원숭이쇼, 쿠마모토성, 여행자 보험

북큐슈 특급온천 3일

9/21 출발

539,000원~

포함내용

패속선 왕복, 부두세, 가이드팁, 온천욕, 유후인 마을, 유노하나, 가마도 지옥, 아소분화구, 쿠마모토성, 천만궁, 여행자보험

마닐라/팍상한/ 따가이파이/히든벨리 6일

9/21 출발

889,000원~

포함내용

왕복항공, 공항세, 팁포함, 팍상한 폭포 카누체험, 따가이파이, 열대과일시장, 마닐라대성당, 산티아고오새, 여행자보험

REiM
첫여행의 시작점 (주)레이

부산본점) 부산광역시 중구 대창동 1가 24-2 독일빌딩 2층 (주)레이
서울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31 두산위브센터움 930호 (주)레이
마산점) 경상남도 마산시 합성1동 157-1 선메디컬센터 1층 (주)레이
울산점) 울산광역시 남구 무가2동 619-5 소비안경점 3층 (주)레이

대표전화 (국번없이)

1544-2579

(투어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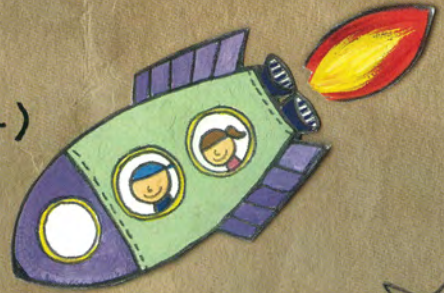
2007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Busan International Kids' Film Festival

장소: 프리미어스 (해운대, 화명)
야외상영관

일시: 2007년 8월 17일(금) ~ 21일(화)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연주회

"팔빙수같이 시원한 콘서트"



지휘 박호성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연주곡목

- 창작관현악 '아름다운 인생'
- 시원한 여름을 위한 '코사무이'
- 김홍철과 친구들의 시원한 요들송과 국악관현악
- 마야의 대중가요와 국악관현악
- B-boy와 Rapper, Bear Box, 그리고 중들과 구름

2007. 8. 28(화) 오후 8: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마야
가수



김홍철과 친구들
요들송 가수



B-Boy TIP



박리 김용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구슬 박성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버름새 예술단

주최 부산광역시 협찬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이마트 문화마을 하늘채

예매처 부산은행 전자점 티켓365 www.ticket365.co.kr 콜센터 1588-2528

입장권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30% 할인 (1인 4매) (R석, S석에 한함)
- 단체 30명이상 관람(예약)시 20% 할인 (R석, S석에 한함)

문의 부산문화회관 051) 625-8130
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 051) 607-6070 www.bsculture.busan.kr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051) 607-6110 www.bsgugag.com